천도영험도량 · 지장도량 성 거 사
1만불 청동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봉안
상담문의전화 041-567-6820

#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10월 20일(음력9월 7일) 수요일 (주간) 제496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조계종 '불교환경의제21' 점검해 보니…*

## 말로는 '필요' 현실은 '엇박자'

### 총무원 11월 지침발표 계획 … 교구본사 1곳만 준비

'불교환경의제21'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인가?

사찰과 단체, 재가불자들이 실천해야 할 항목들을 분야별로 정리한 환경지침서인 불교환경의제21이 '구호'로만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의제실천의 실질적 주체인 교구본사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과 환경의 가치가 시대의 화두가 되면서 조계종이 2년 여간 준비해 온 불교환경의제21은 법장 스님이 총무원장에 취임한 이래 종책과제로 선정 · 추진돼 왔다. 2003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불교환경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조계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단차원의 노력과는 달리 불교환경의제21 실천을 준비하는 교구본사는 1곳에 불과하고, 18곳의 교구본사들은 아직도 환경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환경의제21을 마련하고 있는 총무원과 교구본사가 따로 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준비부족은 본지가 조계종의 전국 24개 교구본사를 대상으로 불교환경의제21의 △필요성 △실천방안 마련 △교구환경위원회 구성 등의 실천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여실히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24개 교구본사 중 불교환경의제21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사찰은 마곡사 단 한 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기본적인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개의 교구본사는 불교환경의제21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교구환경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본사는 용주사 · 월정사 · 법주사 · 동화사 · 해인사 · 통도사 등 6곳에 불과하며, 이 중 일부 본사의 환경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에 대해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스님은 "전 사부대중이 함께 나서서 불교환경의제21을 실천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각 본사차원에서 어떻게 의제를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불교환경활동을 내실있게 진행하고 불교환경의제21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종단과 교구본사,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별사찰들이 의제내용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종단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먼저 거론되는 것은 집행 가능한 의제를 구분해 제시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불교환경 기본의제' '친환경적 생활과 수행' '생태사찰 만들기' '수행환경 지키기' '사찰과 지역공동체'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정리된 의제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부터 제시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연구실장은 "현실적으로 모든 의제를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차별로 집행할 수 있는 의제를 간추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매년 친환경적 생태사찰을 선정해 포상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 교육도 꾸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교구본사는 종단-사찰-지자체-환경단체-신도회를 포괄하는 환경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구환경위원회가 환경현안에 대처하는 등의 환경활동을 벌이며 불교환경의제21을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사찰 역시 기본적인 실천 활동을 진행하면서 종단과 재가불자들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단이 제시하는 내용들을 재가불자들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뒷받침도 필수적이다. 특히 관련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밀양대 환경공학과 이병인 교수는 "불교환경의제21이 명실상부한 '환경법구'가 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특히 교구본사와 개별사찰이 의제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 법전 스님 신계사 복원에 '금일봉'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사진)이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법전 스님은 예경실장을 통해 신계사 복원추진위원회에 금일봉을 전달하며 "금번 불사는 남북화합과 통일의 디딤돌을 놓는 남북공동의 대작불사"라고 말하고 "모든 종도들이 역사적인 통일불사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서울 진관사 주지 진관 스님이 5천만 원,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1천만 원, 노래하는 포교사 '머루와 다래'가 5백만 원을 각각 신계사 복원추진위에 전달했다. **남동우 기자**

社 告

**제10회 신행수기 공모에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마감 12월 15일

명실공히 교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당선작 발표: 2005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및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성명과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시상내역
▷대상(유마상) ▷우수상(본사 사장상)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돈) 열쇠를 각각 수여합니다.
※ 10~11월 두 달간 현대불교신문과 붓다뉴스를 통해 수필가 맹란자 선생(에세이문학 발행인)의 '수기 쓰기 이렇게'를 연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각으로 컴퓨터 작동…"유식사상 입증"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만법은 오직 식(識)일 뿐이다(三界唯心 萬法唯識)"는 유식(唯識)사상을 입증하는 과학적인 실험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USA투데이는 10월 11일 미국의 한 전신마비 환자가 뇌에 전선을 연결해 생각만으로 컴퓨터의 커서를 움직여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뇌에 전선연결 컴게임**
**e메일 열고 TV 켜기도**

이에 따르면 이 환자는 100여개의 작은 감지기를 뇌에 심은 뒤 이것을 전선으로 외부의 컴퓨터와 연결했으며, 결국 이 환자는 생각만으로 커서를 움직여 '퐁(pong)'이라는 게임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지난 8일 미국물리의학 및 재활협회 연례총회에서 발표된 이 연구결과는 매사추세츠주 폭스보로 소재 '사이버키네틱스 뉴로테크놀러지 시스템스(CNS)'에 의해 실시됐다. CNS 측은 25세의 남자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움직였고 텔레비전을 켜고 e-메일을 여는 한편 70%의 정확도로 컴퓨터 게임 '퐁'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일련의 뉴런(신경단위)으로부터의 신호를 읽고, 신호를 행동으로 해석하기 위해 컴퓨터와 연산을 이용하는 기술의 초기단계임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우희종 서울대 교수(수의학)는 "눈, 귀, 코, 혀, 몸, 생각 등의 인식작용인 6식(識) 가운데 생각(意識)의 힘으로 대상을 움직이는 것은 낮은 단계의 유식사상을 입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인지과학이 유식학을 집중 연구한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신희섭 한국과학기술원 학습기억현상연구단장은 "뇌의 의식을 전기신호로 변환시켜 사물을 움직이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분야의 성과는 마음의 작용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뇌과학의 발달로 인해 마음의 비밀이 벗겨질 날도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단청문양에 빠진 동심**

"연꽃이 너무 예뻐요." 전형적인 가을날씨를 자랑하던 10월 13일 오후, 양주 가납어린이집 원생 100여명이 '현대불교' 창간 10주년기념 김윤오 창작단청문양전이 열리고 있는 경인미술관을 찾아 단청문양의 신기함에 흠뻑 빠졌다. 관련기사 4면 사진= 고영배 기자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우리이웃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 · 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할'




그림 · 조태호

정광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간 · 암 · 환 · 자 · 돕 · 기

# 한마음선원 합창제



함께 울고웃는 화합의 한마당
하늘과 땅을 울릴 선법의 화음

모든 이들이 마음의 도리를 알아
스스로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밝고 화목하게 자유인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2001년 심장병 어린이 돕기 합창제에 이어
간암 환자를 돕기 위한 합창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일 시: 2004.11.6 (토) 오후 3시
11.7 (일) 오후 3시 오후 7시
장 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문 의: 한마음선원 031)470-3173 www.hanmaum.org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주 관: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신도회
후 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전국비구니회,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 현대불교신문, BBS, BTN
출 연: 한마음선원 본원 어머니, 거사, 청년, 어린이 합창단, 해외지원 등 약 1,100명
특별출연: 스님 합창단 연 주: 서울시 국악 관현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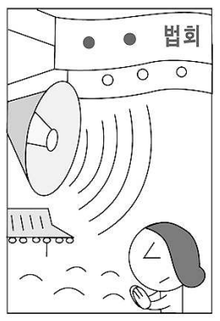



## 사찰 문턱을 낮추자

현대의 고도화된 산업사회, 물질만능사조의 팽배, 핵가족화 등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면을 갈수록 황폐화시키는 것 같다. 이런 때일수록 종교가 제역할을 해줘야 한다. 주5일근무제가 확대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에 눈을 돌리고 있다. 산중 불교가 민중불교, 생활불교화 돼가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이 사찰문화와 음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때, 사찰의 문턱을 낮춰 국민과 호흡하는 정신문화적인 중심체로 거듭났으면 한다.

사찰은 그동안 참배 관람객들에게 거부감을 주었을 지도 모르는 관행을 정비하고, 맑고 향기로운 본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사찰의 현 모습 중에서 우선 다음의 네 가지가 달라졌으면 한다.

첫째, 경내에 어지럽게 걸려있는 현수막을 정리하고 확성기예불을 자제해야 한다.




### 찾아오는 '손님' 모두 전법대상
###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돼야

일주문에 걸려있는 울긋불긋한 글씨의 현수막, 본존불이 모셔져있는 큰법당 편액을 가로질러 걸려있는 현수막. '00불사 접수중' '00일 기도접수합니다' 이런 '공고성' 현수막은 적당한 장소에 지주틀을 세워 질서정연하게 세워야 마땅하다.

둘째, 전각마다 설치돼 있는 복전함을 최소화시키자. 웬만한 사찰에는 복전함이 10~20개 정도 설치돼 있는 것 같다. 심지어는 야외석탑 앞에도 철제 복전함이 놓여있는데 뻘겋게 녹이 슬어 복전함인지 흉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다. 감히 제안한다. 복전함은 주법당(큰법당) 한 군데만 놓고 모두 제거하기를. 재가불자들이 불공을 드리거나 사찰순례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 전날 은행에 가서 1천원 지폐 바꾸는 것이 주요한 일과중의 하나임을 사찰측은 아는가. 정성을 정성으로 받는 지혜가 아쉽다.

셋째, 불상 · 불화에 간략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불 · 보살상은 대부분이 황금색이며 생김새도 대동소이하다. 전각 안팎도 온통 불화(영산회상도 · 팔상성도 · 십우도 · 신중탱 · 지장탱 · 삼장탱 · 삼성탱화 · 변상도)로 장식돼 있다.

그렇지만 참배객은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으니 이런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을까.

행여 동반한 자녀들이 아빠 엄마에게 불상이나 불화에 대해 묻기라도 한다면? 입장이 난처할게 뻔하다. 불상, 불화 앞에 간단하게 설명서를 첨가했다고 해서 불교의 존엄성이나 경건성이 훼손된다고 생각지 않는다.

넷째, 절마다 거의 있는 불사 권선이 어느 때는 부담스럽다.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연령 지긋한 노보살이 "00 불사하세요. 복지으세요" 라고 종용한다. 부처님 참배도 하기 전에 독촉부터 받는 꼴이다. 마당에서, 또 다른 전각에서도 불사 권유 목소리가 드높다. 불사는 예산을 확보해 정성껏 집행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불교를 널리 전법할 좋은 기회는 자주오지 않는다. 모든 프로그램이나 사찰 분위기를 국민 눈높이로 개방하고 불교문화를 널리 알릴 때 한국불교는 도약을 거듭할 것이다.

■ 이귀인(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승가고시 강화하는 조계종

# '통과의례' 옛말 공부해야 '통과'

3급 승가고시를 단순한 통과의례쯤으로 여기던 조계종 스님들의 인식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승랍 10년차 이상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3급 승가고시가 엄격한 고시관리를 통해 실질적 법계고시로 자리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승가고시에서는 1차, 2차에서만 무려 70여명의 스님이 탈락해 승가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 갈마·고시산림 평가 점수화로 객관성높여

2001년 첫 시행된 3급 승가고시는 올해로 4회째다. 100여명이 응시한 올해 3급 승가고시는 제8교구본사 직지사에서 10월 18~24일까지 열린다.

고시위원장 법산 스님은 승가고시의 출제 수준과 관련해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사전에 예상 문제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한 스님들은 오히려 쉽다고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승가고시가 예년과 달라진 점은 2차 갈마, 3차 고시산림의 평가를 모두 점수화 한 것이다. 법산 스님은 "2차 갈마고시의 면접과정에서 수행이력을 평가하는데, 이때 안거나 기도 이력이 많은 응시자는 가산점을 받게 된다. 3차 고시산림도 산림위원들이 엄격한 평가를 통해 교육참여나 수행태도를 모두 점수화 한다"고 밝혀 승가고시의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오후불식과 발우공양 등 철저한 전통승가방식의 진행되는 이번 산림에는 원로위원 지관 스님의 특강과 혜국, 지환 스님 등 중진 스님들의 교과교육 일정이 포함돼 있다.

1차 필기시험의 형식도 다소 변화됐다. 기존 100% 논술위주의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마다 단답형 5문제와 논술 2문항 중 선택 1문제 형식으로 개선됐다. 따라서 공통과목인 금강경은 단답형 5문제 50점, 논술 2문제 중 선택 1문제 50점이 만점이다.

한편,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말사 주지 및 교구본사 3직을 맡을 수 있고, 사승(師僧)권한을 얻게 된다.

조용수 기자

행자교육 입교자 느는 태고종

# "종단 발전 재원 모여든다" 화색

태고종이 올해부터 '선교육 후득도' 제도를 시행하면서 행자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자교육 입교자가 크게 늘어나 '화색'이 만연하다.

10월 1일부터 27일까지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에서 열리고 있는 태고종 합동득도 수계산림에 총 281명의 행자가 입교해 태고종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 10월1일 281명 입교 선교육 후득도제 효과인듯

2001년 117명, 2002년 164명, 2003년 173명으로 이어진 행자교육 입교생 증가추이를 이어갔다. 100명 미만 수준을 유지했던 1997년 이전에 비하면 3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동방불교대 재학생 54명이 이번 수계산림에 참가한 점은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다. 동방불교대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친 후 득도할 수 있도록 한 '선교육 후득도' 제도가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 직후 나타난 현상이다. 이 제도는 2006년부터 완전 시행에 들어가 득도과정이 현재보다 상당히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번 수계산림은 참가자가 늘었다는 표면적인 변화 외에도 예년에 비해 습의 · 의식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는 등 교육내용이 대폭 강화됐다.

참가행자들은 4주 동안 승려소양교육을 비롯해 습의 · 의식, 종도로서의 소양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받게 된다. 사미(니)계는 교육을 수료한 뒤 득도고시를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다.

2001년부터 매년 행자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태고종은 종단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진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조계종이 행자교육 강화, 자격제한 등 득도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나타난 반사이익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번 행자교육 참가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40대 이상의 연령층인 점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태고종 교무부장 법현 스님은 "선교육 후득도 제도를 정착시켜 사회를 선도하고 종단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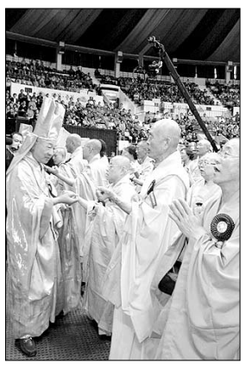
# 한·중·일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 관음종, 장충체육관서…2천여불자 동참

관음종 개산조 태허 대종사 탄신 1백주년 기념 및 국제보살계 수계법회가 10월 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봉행됐다.

1부 기념법회와 2부 수계법회(사진)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대회사에서 "부처의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제도의 원을 세워서 정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과 중국 성휘 스님, 일본 다카하시 류덴 스님이 전계 아사리를 맡아 열린 보살계 수계법회에서 보성 스님은 "수승한 계를 소중히 지녀 참불자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앞서 관음종은 태허 대종사 탄신 다례와 창종연혁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박봉영 기자

## 전통문화전승관 기공 태고종, 20일 법륜사서

태고종 총무원청사가 입주할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 기공식이 10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사간동 법륜사 현장에서 열린다.

전승관은 500평 대지에 지하 3층 지상 4층 연건평 1600평 규모로 120억원을 들여 건립된다. 내부는 불교문화예술 상설공연장과 불교문화재 및 예술품 전시관, 전통예절 및 인성교육관, 대륜불교사상연구소 등으로 구성된다.

박봉영 기자

# 국제포교사 해외문화체험 떠난다

## 종단협, LA·뉴욕서 1주간 실시

국제포교사들의 해외불교 현장체험을 위한 '제1회 국제포교사 해외문화체험'이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미국 LA와 뉴욕일대에서 진행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포교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미국 현지에 있는 한국사찰 및 타국가 사찰들의 전반적인 활동사항과 포교현황 등을 살펴 향후 해외포교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미국인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명상센터와 불교학 연구기관 등을 탐방해 보다 심층적인 포교분석도 실행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국제포교사들의 한국문화체험을 진행한 포교원은 이번 미국연수를 필두로 유럽과 호주 등 기타 해외지역의 현장체험연수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 "정야스님 징계 회복을" 선암사 대책위등 성명

부산 선암사 재산수호대책위원회 등 선암사 관련 8개 단체는 10월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총무원 집행부가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선암사 재산수호에 최선을 다한 정야 스님을 까닭 없이 징계한 것을 원상회복하고, 선암사 재산문제로 더 이상 선암사 신도대중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법 민사 제6부(재판장 김종기)는 지난 9월 24일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징계처분 및 주지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고침 본지 495호 C8면 중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을 '상임이사'로 고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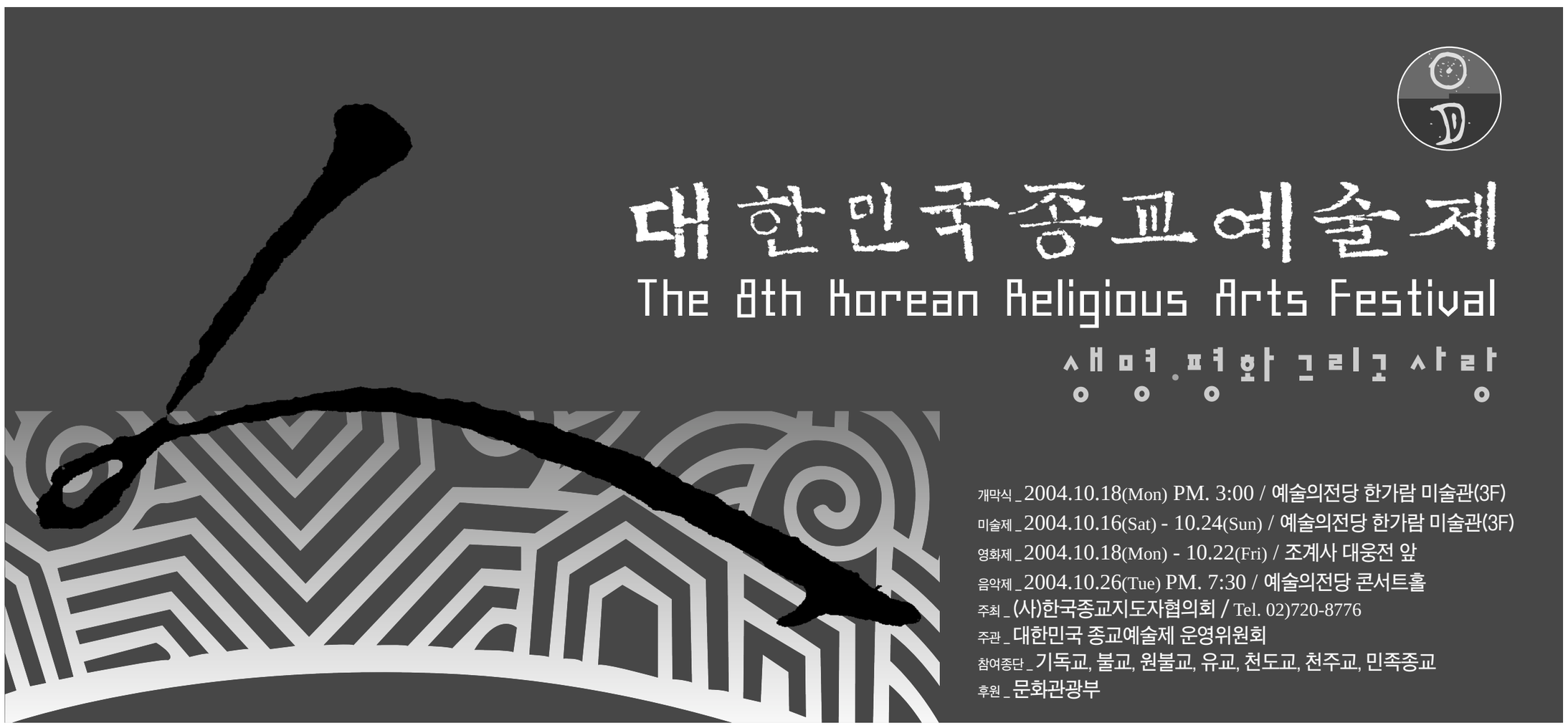
알림

##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에 동참하세요

조계종 금강산 신계사 복원 추진위원회(위원장 종상)는 현대불교신문사 후원으로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소실된 금강산 신계사를 4년에 걸쳐 원형그대로 복원합니다. 대웅전 낙성식은 11월 20일 봉행될 계획입니다. 남북전통문화 복원교류를 통해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역사적인 불사에 불자 및 국민들의 성원과 동참을 바랍니다.

●불사 성금 동참
국민은행 023501-04-006679 / 농협 053-01-255568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대웅전 낙성식 동참 문의
금강산 신계사 복원 추진위원회 : (02)2011-1831~2



# NGO 보금자리 '우리함께 회관' 30일 개관

## 재가연대 · 우리는선우 공동 마련

불교 NGO 단체들이 새롭게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활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와 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용)가 공동으로 서울 장충동에 마련한 대지 200평 지하 1층 지하 6층 연면적 6376평의 규모의 '우리함께 회관.' 이 두 단체는 최근 빌딩 매입을 완료하고 10월 30일 오후 3시 회관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함께 회관'에는 2006년 9월까지 지하 1층 청소년 문화센터, 지상 1층 국제참여불교정보센터, 2층 경영정보교육센터, 3층 NGO네트워크센터, 4층 심성 · 리더십센터, 5층 생활수행센터, 6층 보리수 마당 등 시설들이 차례로 들어서게 된다.

이 일이 완료되면 '우리함께 회관'은 △불교계 핵심인재 및 미래불교지도자 양성 △불교사회화와 건강한 종교문화 정착을 위한 연구 개발 △생활수행운동의 대중화 및 국제참여불교운동의 산실 △NGO 대안과 교육운동의 활성화와 연대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두 단체는 '우리함께 회관'을 명실상부한 참여불교 재가운동의 산실로 키우기 위한 기금 조성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이 두 단체의 사업 계획에 따르면, 총 27억 6천여 만 원의 기금이 3단계에 걸쳐 마련된다. 1단계에서는 내년 4월까지 총 16억 원을 모금할 예정이다. 2단계는 내년 말로 6억, 3단계는 2006년 12월까지 일정이 잡혀있다.

개관을 맞아 재가연대 윤남진 사무국장은 "많은 사람들이 불교가 미래문명을 선도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말하지만 누구도 그 가능성을 현실에서 구현코자 하지 않는다"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함께 회관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효림, 성관)는 NGO단체들을 후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파주 보광사에 'NGO문화관'을 최근 개설했다.

'NGO문화관'은 NGO단체들의 각종 연수 및 회의 공간을 제공하고 사찰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활동가들을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 발굴조사 제도개선 공청회

## 문화재청, '긴급진단…' 주제

연간 발굴 조사가 1000여건에 달하고, 소요되는 비용만도 1000억여 원을 상회하는 시대. 하지만 장기적 안목 없이 마련된 관련 제도들은 이처럼 커버린 사업 분야를 통제 · 관리하는 데 무력함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10월 15일 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긴급진단, 발굴조사의 현실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서오선 국립부여박물관장은 "구제발굴이 폭증한 이 시점에는 발굴 전문기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박물관은 유물 전시 · 보존에 충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금식 한국토지공사 신도시 사업2처장은 사업시행자로서 겪는 고충을 털어놓아 눈길을 끌었다. 문화재 조사 수요와 조사기관의 불균형으로 인한 발굴조사용역의 왜곡현상, 부실한 지표조사로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부담 가중, 사업지구 지정 후에 문화재지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발굴비 원인자 부담의 불합리한 면을 부각시켰다.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이상길 경남대 교수는 면밀한 분석과 아울러 종합적인 처방을 내놓았다. 구제발굴의 최대 조사기간을 정하는 한편, '발굴사' 자격증을 도입해 발굴조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것을 주장했다. 또 '발굴공사' 창설과 조사원의 준공무원화를 통해 발굴전문기관의 구조적인 틀을 전면적으로 바꿀 것도 제안했다.

박익순 기자




사진제공=미주현대불교

# 한국불교 미주전법 40주년 기념법회

한국불교 미주전법 40주년 기념법회가 10월 3일 뉴욕 플러싱고등학교에서 봉행됐다(사진).

보스턴 문수사 도범 스님, 토론토 불광사 광옥 스님, LA 관음사 도안 스님을 비롯한 각 사찰 주지 스님과 신행단체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행사는 신행단체 소개, 대회사, 조계종 총무원장 격려사 대독,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미주전법은 서경보 스님이 1964년 6월 도미, 필라델피아 템플대학교에서 재학하며 포교활동을 펼친 것을 기점으로 하며, 현재는 130여 명 스님들이 100여 개의 사찰에 머무르며 포교하고 있다.

도범 스님은 대회사에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수많은 종교가 활동하는 미국에서 한국불교 전법 40주년을 맞이한 것은 선배 스님들의 선각적인 발원과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준비위 발족

70~80년대 불교계에서 벌어졌던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활동이 펼쳐진다.

불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이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 서동석)는 10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70, 80년대 불교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각종 사료와 자료를 수집, 보존해 객관적 연구와 평가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발족시키겠다"고 말했다.

11월 정식 발족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0월말 민주화운동 불교관련 실태조사 사업 △10월 30일 불교사회운동 관련자 천도재(한희대, 노일현, 김동수, 김동영, 박희정) △12월 개인, 단체별 소장자료 색인 정리 및 발굴 조사 참여자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 국제종교평화회의 21~23일 서울서 개최

국제종교평화회의가 세계 12개국 종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1~23일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아시아 공동의 집-한반도의 평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다.

이 행사는 안보 논리보다 인간, 남북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한 가운데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한국에서는 지구촌공생회 대표 월주, 평불협 회장 법타,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등이 참석한다.

강유신 기자

# 마음 · 생명연구소 12차 국제학술회의

마음 · 생명연구소(Mind & Life Institute)가 매해 과학적 연구 성과를 불교에 접목시키기 위해 개최하는 제12회 국제 컨퍼런스가 10월 18~22일 인도 다람살라에서 열렸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의 주제는 '뇌적응성(Neuroplasticity).' 학습과 그 변형 과정을 좌우하는 뇌신경의 '기질(基質)'에 대한 논의가 티베트 불교 달라이 라마를 포함한 12명의 미국과 캐나다, 일본 뇌신경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강유신 기자

## 조불련 · 해외명사 본지창간 10주년 축하 메시지

본지 창간 1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다. 10주년 특집호인 495호 마감 후에도 조선불교도연맹과 해외에서 축하 메시지가 잇따라 도착했다. 특히 10월 12일 달라이 라마 동아시아 대표부 조베 대표가 직접 본사를 방문, 달라이 라마를 대신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 달라이라마 동쪼 대표부 조베 대표 본사 방문

티베트 '달라이라마 법왕 동아시아 대표부' 조베 펠조 체렁 대표가 본사 김광삼 사장에게 "달라이 라마 성하를 대신해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현대불교'가 한국 불교 발전에 기여해 온 데 대해 아낌없는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사진은 조베 대사(오른쪽)와 본사 김광삼 사장이 악수를 하는 모습.

### 겨레 사랑 받는 신문으로

박태화(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우리는 창간 10돌을 맞이한 '현대불교'의 기자, 편집원들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현대불교신문은 불법홍보와 불교의 현대화, 불교계 언론대변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현대불교신문이 지난 10년간의 선행을 바탕으로 민족의 화합과 협력, 조국통일에 적극 기여하는 불교계의 통일신문으로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불교신문이 평화를 지켜내며 6 · 15공동선언의 이행과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참여적인 문제에 더 깊은 주의를 돌림으로써 겨레의 사랑을 받는 신문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의 앞날에 언제나 불은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 불자들의 의견 전달 앞장

루이스 랭카스터(美 CA 서부대 총장)



한국불교의 부흥은 오늘날 국가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게 됐습니다. 불교에 대한 이같은 관심과 이해는 현대불교와 같은 뉴스 미디어들이 주도해 온 것입니다.

창간 10년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현대불교'가 불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소식을 계속해서 전달해줄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하기 바랍니다.

### 사명감과 열정에 깊은 감명

로버트 버스웰(美 UCLA 불교학연구소장)



몇 차례 가졌던 만남을 통해 나는 '현대불교'의 사명감과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현대불교'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불교 포탈사이트 부다피아는 10년 전 '현대불교'가 그랬듯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불교의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 모아 영향력 있는 사이트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세계인에게 불법 전파

아쇼크 자인
(인도 문쉬람 마노할랄 출판사 대표)

1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한국 불교언론을 선도하는 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인도 출판계를 대표하는 본사가 제휴를 통해 '현대불교'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계 많은 독자들에게 부처님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데 동참하고자 합니다.

### 美 불자들 상상 못할 일

수미 런던
('청바지를 입은 부처' 저자)

한국을 방문할 때 마다 매주, 혹은 매달 불교에 대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발행하는 매체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10년의 세월은 책임, 비전, 인내, 신념 등이 내포된 노력을 의미합니다. '현대불교'가 온 에너지를 쏟아 부으며 신문을 만들고 있음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 불교매체 본보기 되길

아사요 호리베
(미국중서부불교도연맹 대표)

미국 중서부 불자들을 대표해 현대불교와 한국의 불자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합니다. 나날이 복잡해지는 오늘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현대불교'의 비전과 열정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번성해 불교매체로서 좋은 본보기로 남기를 기원합니다.


- 부처님 10대 제자 사리친견 -

# 경제회복을 위한 호국방생 대승마정수기 대법회

귀의삼보 하옵고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만추지절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은총이 불자 여러분들의 가내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합장 기원 드립니다.
금번 「대한불교종정협의회」에서는 침체되어 있는 한국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호국방생」 · 「부처님 10대 제자 사리친견」 및 「대승마정수기」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두루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행사제목 :** 경제회복을 위한 호국방생 부처님 10대 제자 사리친견 및 대승마정수기 대법회
- **일 시 :** 불기 2548년(2004) 10월 26일(양력) 음력 9월 13일 화요일 12시 ~ 오후 4시까지
- **장 소 :** 금강유원지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옆)
- **전 화 :** 02)756-1227(사무처) / 팩스 02)774-1487
- **주최 · 주관 :** 대한불교종정협의회
- **후 원 :** 각 종단 및 단체, 교계 언론사

## 卍 대승마정수기사(大乘摩頂授記師) 卍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임원

- **명예도통정** 석인왕 종정 ((재)한국불교여래종)
- **부 도 통 정** 석무찰 종정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 **대 통 정** 석지산 종정 (한국불교정토종)
- **수석부통정** 석정암 종정 (한국불교조계종)
- **부 통 정** 석혜철 종정 (한국불교원각종)
- **총 정** 석가산 종정 (대한불교삼보조계종)
- **의 장** 석의천 종정 (대한불교선화종)
- **수석부의장** 석혜지 종정 (대한불교해인종)
- **부 의 장** 석덕산 종정 (대한불교천지종)
- **수 석 감 사** 석천강 교령 ((사)용화불교)
- **감 사** 석일강 종정 (대한신불교천우종)
- **이 사** 석청하 종정 ((사)대한불교법사종) · **이 사** 석법광 종정 (세계불교법륜종)
- **이 사** 석석봉 종정 (대한불교삼론종) · **이 사** 석청원 종정 (대한불교불광종)
- **이 사** 석혜봉 종정 ((사)대한불교해동종) · **이 사** 석수선 종정 (대한불교법왕종)
- **이 사** 석동원 종정 (대한불교연화종) · **이 사** 석혜륜 종정 ((사)한국호국불교조계종)
- **이 사** 석월인 종정 ((사)대한불교승가종) · **이 사** 석지일 종정 (한국불교대승법사종)

**금강대승마정수기단** 단장 대통정 **석지산**

## “3만 불자공무원의 ‘손발’ 되겠다”

인터뷰 공불련 회장 김세호 건교부 차관



“연합회장을 대표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자공무원들의 손과 발이 돼야 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행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불련의 발전에 한 몫을 맡겠습니다.”

공무원불자연합회 3대 회장에 선출된 건설교통부 김세호 차관(52 · 청암 · 사진).

“3만여 공불련 회원들의 신행 슬로건은 ‘나랏일 즐겁게 국민에게 기쁨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벽을 허무는 공불련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또 회원들 각자가 업무와 신행활동을 신명나게 할 수 있도록 신행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차관은 이를 위해 공불련 조직 운영을 권역별 중심체제로 완전히 개편할 계획이다. 산하 조직을 서울 · 경기, 부산 · 경남, 대구 · 경북,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제주도 등 총 6개 권역별로 전환해 지부별 신행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또 철도청 불교단체협의회의 ‘무사고 기원법회’, 대한민국경찰불교회의 ‘변사자 천도재’ 등과 같은 기관별 특성을 살린 법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공불련 前 집행부가 추진해온 ‘공불련 사회봉사활동의 날’, ‘지역공무원불교대학’ 설립, ‘미창립 정부투자기관의 불자회 결성’ 등 굵직한 사업을 승계해 적극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불련은 이제 최대 규모의 직장인 연합신행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김 차관은 1977년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하는 뒤 2002년 철도청 수송정책실장, 2003년 철도청장 등을 역임하는 등 교통 분야에 잔뼈가 굵은 정책통으로, 지난 1996년 서울 능인선원불교대학(21기)에 불교공부를 하면서 불교에 입문했다.

김철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공불련, 제 2도약 나섰다

### 3대 회장 김세호 차관 · 사무총장 송도근 국장 선출

전국 280여 곳의 단위 기관불자회, 3만여 회원을 거느리는 ‘거함’ 직장신행단체 공무원불자연합회가 처음으로 정무직 공무원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제2의 순항’에 나섰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는 10월 9~10일 김천 직지사에서 45곳 단위 기관불자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회 3대 회장에 건설교통부 김세호 차관을, 총장급으로 위상이 격상된 중앙사무국 총장에 송도근 건교부 불자회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공불련은 또 회장단에 수석부회장직 신설, 전직 회장단을 포함한 ‘지도자문위원단’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새 집행부는 이번 달 말까지 신임 회장단 인선을 마무리하는 한편, 2005년도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다음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을 계획이다.

공불련 신임 집행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 前 집행부와 연석회의를 갖고 중앙사무국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회장단 인사 추천을 비롯한 연합회 향후 발전 방향, 사업아이템 등을 공불련 홈페이지(www.gongbul.or.kr)에 공시할 예정이다.

지난 2000년 47곳 기관 불자회로 출발한 공불련은 그간 개별적으로 신행활동을 해온 전국의 공무원 불자회를 한데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미창립 기관 불자회원의 개별 가입을 허용하고, 연합회 단위의 합동법회 및 연합수련회도 개최했다.

한편 공불련은 10월 9~10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복지부, 경북도청 불자회 등 45개 단체 6백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주년 기념법회와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

김천 직지사=김철우기자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45곳 단체 6백여 회원들이 10월 9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창립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사진=김철우 기자

## 생명의 숲에서 불법 배워요

### 동국대 제1회 산림학교 현장



10월 10일 유명산 자연휴양림 현장교육에 나선 참가자들이 휴양림 운영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

“부처님은 룸비니숲 무우수(無憂樹)나무아래에서 태어나 녹야원의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사라숲에서 열반 하셨어요. 경쟁에 지친 중생들이 숲을 통해 불교의 ‘불살생’ ‘방생’ ‘자비’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생명의 숲’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해인사 제정 스님)

동국대는 10월 9~10일, 16~17일 두차례에 걸쳐 산림에 관심있는 스님,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제1회 산림학교를 개최했다. 한국녹색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매주 토요일 이론 수업과 일요일 현장교육 형태로 3회에 걸쳐 열리고 있다.

10일 수강생들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유명산 자연휴양림(팀장 안구현 · (031)585-9643)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동국대 산림자원학과 윤화영 오충현 교수를 비롯해 해인사 제정 스님 등 산림학교 수강생 15명가량이 동행했다.

제정 스님은 “어렸을 때만 해도 절에서 농감(農監)이나 산감(山監)은 대단한 소임이었는데 요즘은 이름만 남았을 뿐 실제로 하는 일이 거의 없다. 한국불교의 거대한 자신인 숲에 대한 체계적 관리나 활용방법을 모색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가자인 윤희구 씨는 양주에서 20여년 넘게 ‘단군농원’이라는 식물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산을 몇 십 정보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기회에 뭔가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교육에 참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숲속의 집(펜션)’이라고 부르는 휴양시설운영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몇몇 참가자들은 통나무집의 구조를 살펴보며 직원에게 시설 이용 방법 등을 묻기도 했다.

현장소장을 맡고 있는 안구현(54) 팀장은 “휴양림에 대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피상적인 인식과는 달리 실제 휴양림의 운영은 이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복잡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와 산림의 보호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민간에서 휴양림을 운영하는 것은 대단한 사명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초기 자금이 많이 들고 이익환수가 더딘 사업에 개인이 섣불리 뛰어 드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닌 듯 했다.

오충현 교수는“불교계의 경우 기존 사찰림을 템플스테이 형태의 휴양림 사업에 기존 사찰의 불교관련 포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동국대 산림학교 3회차는 30~31일 열린다. (02)2260-3316 글 · 사진=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 LA에 ‘금오국제선원’ 건립

### 27일 발족식 · 후원의 밤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미국 LA 코리아타운 중심에 금오국제선원이 건립된다.

미국 LA 반야사 금오국제선원 건립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현철 스님(반야사 주지 · 사진)은 10월 14일 “코리아타운 서울국제공원 인근에 48평 규모의 금오국제선원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금오국제선원 건립은 3년 전 LA시와 미 프로야구단인 LA 다저스의 후원을 받아 서울국제공원이 만들어지자 여기에 자극을 받은 반야사 신도들이 한국사찰 건립 원력을 세우면서 시작됐다. 1년 전부터는 모금활동에 들어가 현재까지 50만 달러 정도 후원약정을 받은 상태.

한국에서는 법주사, 불국사, 금산사 등 금오문중을 중심으로 모연활동에 나서고 있다. 금오 스님 손상좌 모임 차원에서 지난 7월 현지를 답사한 뒤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건립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도 금오문중인 도영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종상 스님(경주 불국사 주지), 지명 스님(전 보은 법주사 주지)이 맡았다.

2년여 간의 모연활동 후 2007년부터 본격적인 불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철 스님은 “선불교의 전통을 이은 한국불교를 소개하기 위해 경허 · 만공 선사의 법맥을 계승한 금오 스님의 선풍으로 국제선원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LA 금오국제선원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후원의 밤’은 10월 27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김윤오 창작 단청문양전’ 성황리 개막

본지 창간 10주년 기념행사로 마련된 ‘김윤오 8만 4천 창작 단청 문양 전시회’가 10월 13일 경인미술관에서 개막 19일까지 열렸다.



본지 창간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창작 단청문양 전시회에는 당초 연화, 금시조 등 1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계종 문화부장 성정 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 스님, 불교신문 사장 향적 스님,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 충주청원사암연합회 前 회장 송봉 스님, 안성 정토사 주지 택봉 스님, 설법연구원 대표 동출 스님, 원주 민예총 지부장 정연호, 강원무형문화재 제12호 칠장인 김상수씨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막식에서 본사 김광삼 사장은 “창간 10주년을 기념해 창작단청문양전을 연 것은 10년여 창작에 매진한 김윤오 화백의 올곧은 예술세계를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며 이번 전시회가 한국 단청의 독창성이 폭넓게 연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윤오 씨는 이번 전시회가 일반인들에게 단청의 아름다움과 새로운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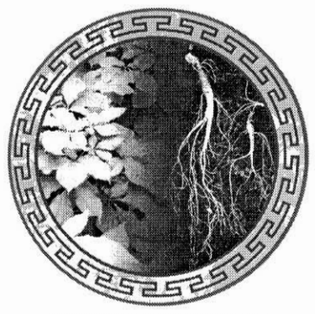
이날 성정 · 도후 · 향적 스님은 “김윤오 씨의 전시가 우리 단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불교미술을 한단계 발돋움 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공주대학교 식물과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SAMSUNG 2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이것이 명품이다!

우리 몸속의 새로운 활력 산삼의 신비가 그대로...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국내산 토종 오가피 추출액에 산삼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의 체질에 알맞게 개발하였으며, 엄격한 품질관리와 검사를 거쳐 정성스럽게 제조한 제품입니다.

산삼배양근 함유

심마니 토종 오가피

- 심마니 토종오가피 출시기념 고객사은행사 -

★심마니 토종오가피 공장 및 농장견학회★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구경도 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묘목 분양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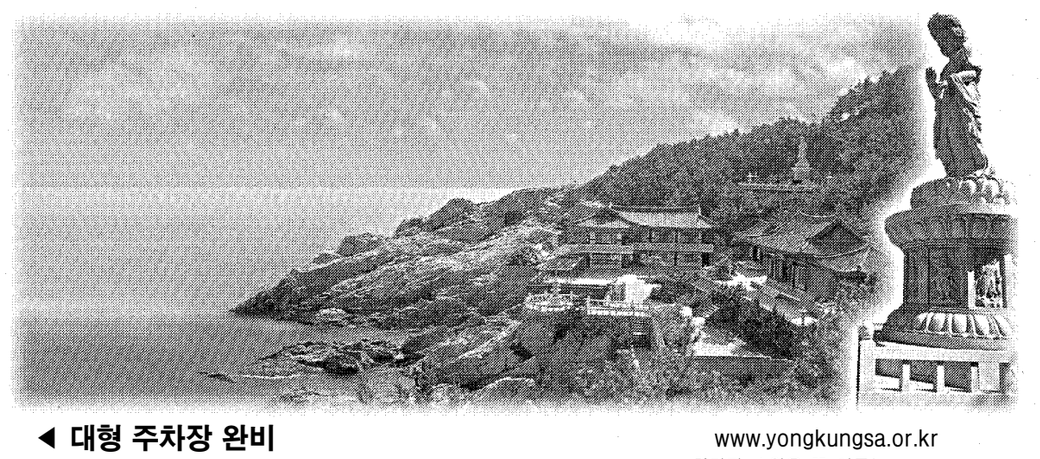
상담문의/무료자료배송 02)455-1114 (주)현풍F&B HYUN PUNG F&B CO., LTD.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 ‘정혜결사문’ 등 목판 인경한다



순천 송광사 화엄전에 소장중인 경전목판.

## 송광사, 3902판 사천왕상 복장 용도로
## 3~4질 일본 불교학자들에 기증도

국내에 하나뿐인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정혜결사문’ 목판이 인경(印經)된다.

승보종찰 송광사(주지 영조)는 10월 20일부터 한 달간 지눌 스님 문집목판과 화엄전에 소장중인 경전목판 65종 총 3902판을 인경해 사천왕상 복장물로 봉안한다.

송광사가 소장중인 목판은 15~18세기에 제작된 <대방광불화엄경> 2346판, <심지경론> 252판과 <계초심학인문> <정혜결사문> 등 지눌 스님 문집, 강원교재, 조선시대 스님들의 문집으로 희귀본이 많아 귀중한 불교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 목판은 80년대 ‘송광사 중창불사 회향’을 기념해 10여질 인경했으나 대부분 소실돼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인경불사를 준비해 왔다.

송광사는 이번에 총 20질을 인경해 송광사 사천왕상 복장물로 봉안하고 송광사 강원, 율원, 박물관 등에 보관하며 일본 불교학자들의 요청으로 3~4질은 일본으로 보낸다.

송광사 성보박물관장 고경 스님은 “목판 인경불사를 위해 전북 남원 한지 마을에서 닥이 많이 함유된 한지를 특별 주문해 확보해 놓았다”며 “인경 전문가를 초빙해 사중스님들이 인경작업을 전수받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인경불사를 통해 목판에 낀 먼지를 털어내고 바람을 쏘여 목판을 관리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인경된 목판 20여질이 복장물로 봉안되는 사천왕상은 사천왕문과 함께 훼손이 심해 지난해 12월부터 문화재청의 지도아래 보수공사를 벌여 최근 복원불사가 끝났다. 사천왕문과 사천왕상은 조선조 광해군 원년에 조성된 문화재로 이번 보존처리 중 복장에서 ‘금강대위덕경다라니’등의 유물이 대량 발견됐다.

이준엽 기자

# ‘뛰뛰빵빵’ 음성포교 출발!

## 운불련 부산 경남 무선 봉사대 발대



(사)대한민국 운송 연합불자회(회장 이재술)는 10월 13일 부산 경남 지회 창립 및 불교교통방송 TRS 408국 무선 봉사대 발대식(사진)을 갖고 무선 음성포교시대의 출발을 알렸다.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이날 법회는 통도사 포교국장 선오 스님과 이재술 전국 회장, 박인수 제주 지회장, 정호기 부산지회장, 안효경 경남지회장을 비롯 부산 경남지회 회원 30여명이 동참했다. 포교국장 스님 법문, 여객연합불자회 회장 인사, 각 지역 지회장 임명장 수여식 등의 순으로 봉행된 이날 법회에서 포교국장 선오 스님은 “늘 고객을 대하는 여객 불자회 여러분들은 대승보살의 서원을 발해 물러서지 않는 정진을 이어가길 바란다” 고 법문했다.

또한 이 재술 회장은 “제주 지회에 이어진 부산 경남 지회의 창립으로 전국의 여객운수 불자회의 창립이 본격화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TRS 408국 무선기지국을 통한 법문, 교리 공부 등으로 달리는 법당을 구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을 가진 TRS 408국은 무선기지국을 통해 단말기에서 100번을 누르면 교통, 일기, 도난차량 수배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200번은 스님들의 실시간 법문, 교리 강좌 등을 들을 수 있는 위성통신기기 시스템. 하루일과 중 대부분을 차안에서 보내는 여객업 종사 불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법문을 듣고 교리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종교적인 내용을 실시간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6월 24일 창립된 전국운송연합불자회는 현재 400여명의 회원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휴게소 홍보 등을 통해 TRS 408국 회원을 늘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장수 죽림사 ‘용성교육관’ 낙성



용성교육관 낙성법회 모습. 용성교육관은 어린이 · 청소년들과 지역민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된다.

근세 한국불교 중흥조 백용성 스님의 사상과 독립운동정신을 교육하게 될 ‘용성교육관’이 용성 스님 생가가 있는 장수 죽림정사(조실 도문)에 건립돼 10월 12일 낙성됐다.

이날 낙성법회에는 은해사 주지 법타, 미국 관해정사 회주 반월, 해인사 율원장 혜능, 네팔 대성석가사 주지 법신 스님 등 스님과 장재영 장수군수, 양해도 장수군의장, 황주선 국가보훈처 목포지청장, 재키반자 네팔 문화국장, 노옥섭 前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유종혁 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네팔 룸비니 대성석가사 건립을 위한 만등불사를 겸해 열린 이날 법회에서 도문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은 용성조사가 오도(悟道)한 지 118회째가 되는 뜻 깊은 날이다”며 “불교성지를 가꾸라고 하신 큰 스님의 유훈실현에 모든 불자가 동참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낙성한 ‘용성교육관’은 목조기와 108평 규모의 전통사찰양식으로 법회는 물론 어린이 · 청소년교육과 지역민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용성스님 생가 성역화 사업을 펼치고 있는 죽림정사는 생가복원과 용성 기념관(유물 400여점 전시), 교육관(108평), 승방(60평) 건립에 이어 범종 법고루 불사가 마무리 되는 2005년 5월 8일 종합준공식을 봉행한다.

한편 이날 죽림정사와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등 신행단체는 법회에 앞서 룸비니 대성석가사 건립 불사기금을 석가사 주지 법신 스님에게 전달했다. 이준엽 기자

## 무량종 칠보정사서 연수



무량종(총무원장 혜안)은 최근 총본산 지리산 칠보정사에서 ‘제3회 중앙 승려 · 법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사진)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120여 종도가 참석한 가운데 기본소양 교육을 비롯해 ‘종지종풍’ ‘포교와 설법’ ‘참선 수행’ 등의 강의 및 실수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혜안 스님은 “모든 종도들이 나라와 불교를 먼저 걱정하고 지혜로운 길을 제시할 때라야 비로소 종단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며 “불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처해있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불교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수에서는 모든 종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선정된 ‘무량선무도’ 창단식도 열렸다. ‘무량선무도’는 그동안 종단 내에 전승돼 오던 것을 수련 · 교육용으로 체계화시킨 프로그램이다. (055)883-7771 박봉영 기자

## 홍법사 1주년 기념행사 다채

제 15교구 본사 통도사 말사 홍법사(주지 심산)가 10월 28일 홍법사 개원 1주년을 맞아 고승초청법회를 비롯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다.

국제불광회 부산지부인 홍법사는 10월 28일 오전 10시 대만 불광산사 종장 심정스님을 초청 ‘생사윤회의 길’이라는 주제로 법회를 여는 한편 같은날 저녁에는 가족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7일에는 금정산 환경캠페인을 통해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23일 오후 7시부터는 삼천배 참회 정진기도, 23일, 28일, 31일에는 홍법사 활동사진 및 동자승 출가 사진전, 24일에는 외국인과 함께 탈춤배우기 등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051)508-0345

천미희 기자

## 법흥사, 천일기도 회향법회

강원도 영월 사자산 적멸보궁 법흥사(주지 도완)는 10월 25일 경내에서 일주문 준공과 가사불사 회향, 10만등 불 밝히기와 천일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오전 9시30분 2차 천일기도 회향 및 3차 천일기도 입재식을 시작으로 법요식, 일주문 준공 현판식, 가사 봉대식 및 천도재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24일 오후 7시에는 십만등 불 밝히기 점등식이 거행된다. (033)374-9177 한명우 기자

## 본원종 석천 스님 9주기 추모

본원종(총무원장 대화)은 10월 23일 오전 11시 서울 본원정사 대법당에서 초대 총무원장을 지낸 석천 스님의 9주기 추모 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본원종 총무원장 대화 스님, 석천문도회 회장 대운스님을 비롯해 석천문도회 소속 스님 등이 동참할 예정이다.

석천 스님은 본원종 창종위원으로 활동해 초대 총무원장을 맡아 종단의 기틀을 다졌으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종단 간 교류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 한국불교포교사대학을 설립하는 등 포교활동에도 진력을 다해 본원종 종도들의 정신적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다. (02)391-4376

박봉영 기자

## 제주종교인협 재창립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 원불교 종교인들의 협의체인 ‘평화를 위한 제주종교인협의회’(이하 평종협)가 10월 11일 북제주군 한림읍 성이시돌 회관 내 글라라수녀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재출범했다.

4개 종교 종교인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대효 스님(원명선원 회주), 방인성 교무, 이문철 신부, 박영조 목사가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평화를 염원하고 환경을 살리는 일에 종교인들이 한데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재창립된 평종협은 평화를 저해하는 지역 활동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 현안과 이슈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 종정협 경제발전 기원 방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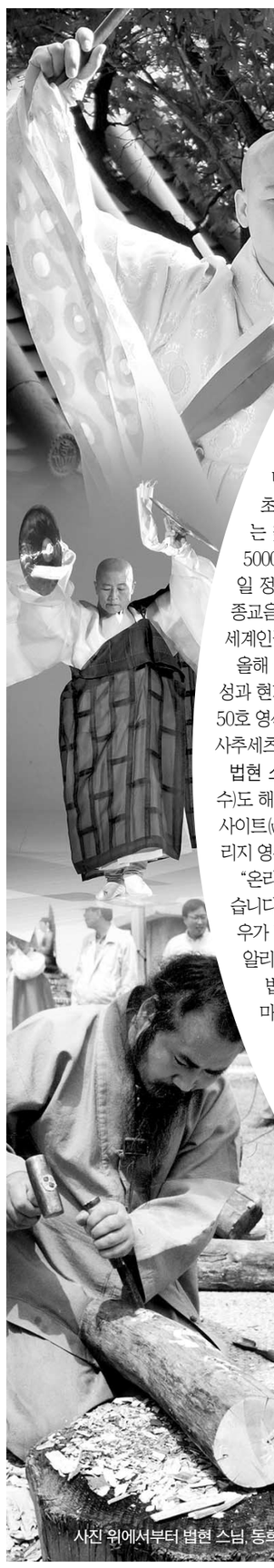
경제발전을 기원하는 범종단적인 방생의식이 치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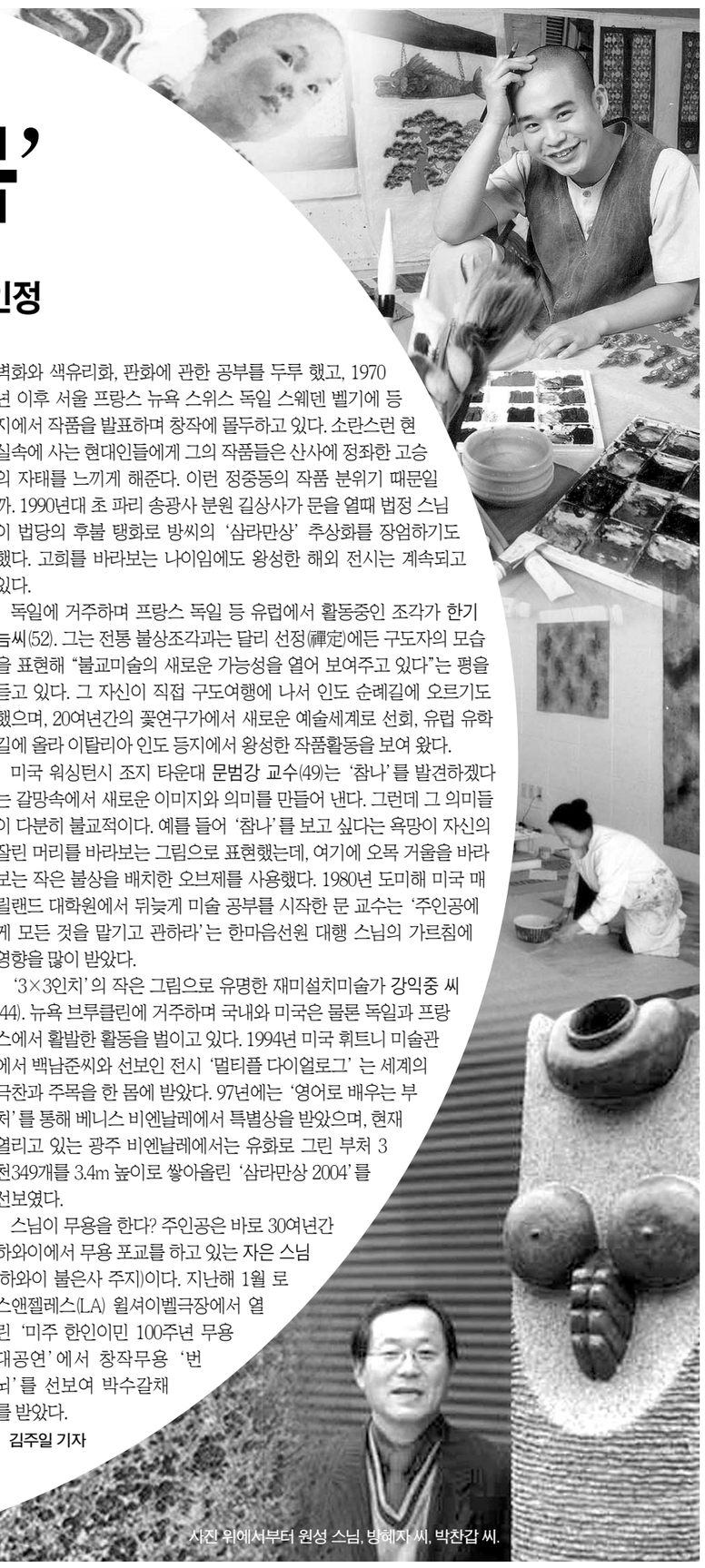
대한불교종정협의회(대통정 지산 · 정토종 종정)는 10월 26일 정오 충북 옥천의 금강유원지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호국 방생대법회’를 봉행한다.

1부 방생법회에 이어 부처님 10대 제자 사리친견 및 마정수기 법회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종정협의회 소속 21개 종단에서 5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10월 20일은 '문화의 날'이다. 문화는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됐다. 각종 공연과 전시회는 예전보다 눈에 띄게 풍성해 졌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란 표방아래 우리의 전통 문화는 이제 국제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불교계도 마찬가지다.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불교문화를 세계로 나가 알리는 예술가들과, 외국에 살면서 불교를 소재로 불교예술의 심오한 의미와 향기를 현지인에게 포교하는 이들이 있다. 이른바 '국제문화포교사'들이다.





## 한국불교 향기에
# 세계가 '주목'

### 공연 · 음악 · 미술 예술인들 창작열정 해외서 인정

**■ 국제무대로 진출하는 문화예술인**

40여년간 영산재 시연과 교육을 통해 한국불교 문화 포교에 앞장서 온 일운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교육조교)은 1985년 6월 독일의 베를린 음악제에 참가하면서 해외 포교의 첫 물꼬를 텄다. 이후 88년 2월에는 태국 국왕 초청으로 방록에 있는 아시아 민속 페스티벌에서, 2000년 6월에는 美한국문화원 주최로 미국 카네기 메인홀에서 열린 '한국무용 5000년'에서 열연 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독일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에서 개최된 '세계종교음악축제'에서 '영산재'를 주제로 한국불교 예술의 아름다움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켰다.

올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공연하며 해외 불교문화 포교의 큰 가능성과 현지인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고 온 동희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02년, 동희 스님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 매사추세츠 등 7개 주에서 순회공연을 했다.

법현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동국대 국악과 교수)도 해외 영산재 포교의 일등공신이다. 범패 음악을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www.pompae.or.kr)를 개설한 스님은 1996년 캐나다 하드보컬리지 영산재 공연 이후 총 30여회 가까운 해외 공연을 치렀다.

"온라인상에 4개국어로 운영되는 범패사이트가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각국의 민속음악 전문가들이 그것을 보고 연락해 초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 문화 포교를 위해서는 온라인 상에 자신의 작품을 알리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는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현 스님은 내년 2월 오스트리아 비엔나, 7월에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각각 초청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해외 포교는 비단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외 전시가 활발한 미술인으로는 조각가인 박찬수 · 박찬갑 씨와 선화가 성륜 · 동성 · 원성 스님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박찬수 목아박물관장**(55 · 중요무형문화재 108호 목조각가)은 일본에서 많이 알려진 작가다. 지난해 10월 일본 나고야의 야외민족박물관 '리틀 월드' 개관 20주년 기념 초청전을 가졌다. 그의 일본 전시는 두 번째 자리다. 2002년에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2개월간 일본의 월드컵 개최 5개 도시를 순회 전시해 호평을 받았다. 당시 목조미륵 반가사유상의 모작(模作)은 우리나라 원형을 보여줬다는 절찬을 받았다.

또 올해 5월에는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 100주년 기념으로 초청받아 파리 베르사이유 국제박람회장에서 퍼포먼스와 30여점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조각가 **박찬갑씨**(65)도 터키 비엔날레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미국 스웨덴 페루 프랑스 등에서 20여회의 초청전을 열며 주로 해외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4년만에 서울 인사동에서 '첩첩층만'을 주제로 전시회를 가진 선화가 **성륜 스님**. 수묵 달마에 채색을 입혀 일반인들도 거부감 없이 달마도를 감상할 수 있는 대중화에 노력해 왔다. 이런 성륜 스님의 인기는 미국에서 더 높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의 전시를 통해 한국 선화의 맛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일운 스님


백남준


한기늠


강익중

### 백남준 · 일운 스님 등 한국 알리기 선봉
### 불교+예술 장르 대중화…현지서 큰 관심

동성 스님(마산 봉국사 주지)은 '한 송이 연꽃이 되어'라는 주제로 수차례의 개인전을 열고 '깨달음과 자유의 달마도'를 발표했다. 그리고 2002년 한 · 일 월드컵행사에 맞춰 불교의 공(空) 사상과 축구공을 퓨전화 시켜 일본과 중국 등에서 전시하기도 했다.

현재 영국에 유학중인 동승의 작가 원성 스님. 해외전시는 주로 2001년에 이루어 졌는데 첫 전시인 독일 베를린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대사관 초청전에 이어 두 번째 전시는 대만 불광산사에서, 세 번째는 중국 상하이 국제 아트페어에 참가해 '동승'의 이미지를 알렸다.

**■ 해외 거주하며 '불교'를 작품 소재로**

너무도 유명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씨**(72). 연로한 나이에 병환으로 거동도 편치 않으면서 아직까지 정열적인 창작활동을 계속하며, 매년 세계 100대 현대 미술가의 최 정상급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그가 1960년대 일본에서 선 수련을 하면서 사물의 본질에 관한 불교적 이해를 현대 서양의 미술사조와 접목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알고나면 그의 예술은 분명 파격과 구분 되어야 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백남준은 '머리를 위한 선'(Zen for head, 1961)이나 '영화를 위한 선'(Zen for film, 1965)등 선(禪)을 작품의 직접적인 주제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40여년간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불 원로화가 **방혜자씨**(67). 서울대 미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1961년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나 현재에 이르고 있다. 회화 외에도 벽화와 색유리화, 판화에 관한 공부를 두루 했고, 1970년 이후 서울 프랑스 뉴욕 스위스 독일 스웨덴 벨기에 등지에서 작품을 발표하며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 소란스런 현실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그의 작품들은 산사에 정좌한 고승의 자태를 느끼게 해준다. 이런 정중동의 작품 분위기 때문일까. 1990년대 초 파리 송광사 분원 길상사가 문을 열때 법정 스님이 법당의 후불 탱화로 방씨의 '삼라만상' 추상화를 장엄하기도 했다. 고희를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왕성한 해외 전시는 계속되고 있다.

독일에 거주하며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 활동중인 조각가 **한기늠씨**(52). 그는 전통 불상조각과는 달리 선정(禪定)에든 구도자의 모습을 표현해 "불교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 자신이 직접 구도여행에 나서 인도 순례길에 오르기도 했으며, 20여년간의 꽃연구가에서 새로운 예술세계로 선회, 유럽 유학길에 올라 이탈리아 인도 등지에서 왕성한 작품활동을 보여 왔다.

미국 워싱턴시 조지 타운대 **문범강 교수**(49)는 '참나'를 발견하겠다는 갈망속에서 새로운 이미지와 의미를 만들어 낸다. 그런데 그 의미들이 다분히 불교적이다. 예를 들어 '참나'를 보고 싶다는 욕망이 자신의 잘린 머리를 바라보는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에 오목 거울을 바라보는 작은 불상을 배치한 오브제를 사용했다. 1980년 도미해 미국 매릴랜드 대학원에서 뒤늦게 미술 공부를 시작한 문 교수는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관하라'는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3×3인치'의 작은 그림으로 유명한 재미설치미술가 **강익중 씨**(44). 뉴욕 브루클린에 거주하며 국내와 미국은 물론 독일과 프랑스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1994년 미국 휘트니 미술관에서 백남준씨와 선보인 전시 '멀티플 다이얼로그'는 세계의 극찬과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97년에는 '영어로 배우는 부처'를 통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특별상을 받았으며, 현재 열리고 있는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유화로 그린 부처 3천349개를 3.4m 높이로 쌓아올린 '삼라만상 2004'를 선보였다.

스님이 무용을 한다? 주인공은 바로 30여년간 하와이에서 무용 포교를 하고 있는 **자은 스님**(하와이 불은사 주지)이다. 지난해 1월 로스앤젤레스(LA) 윌셔이벨극장에서 열린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 무용대공연'에서 창작무용 '번뇌'를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주일 기자**

사진 위에서부터 법현 스님, 동희 스님, 박찬수 관장.

사진 위에서부터 원성 스님, 방혜자 씨, 박찬갑 씨.


# 화엄학 연구원 통화불교 건강원 제2기생 모집

**圓照 覺性** 대강백께서는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 백양사, 은해사, 금산사에서 20여년간 강주를 역임하시고, 서울 부산에서 재가불자에게 불교, 유교, 도교 경전을 강의하셨으며, 동국역경원 번역위원과 증의위원을 역임하시고 현재 통화총서 13집(대도직지, 천부경, 중용직지, 유식론, 대승기신론, 능엄경정맥소현시, 화엄경론희석등등)을 발간하셨다. 큰스님께서 말년의 회향으로 역경, 포교, 도재양성 3대 불사를 목표로 하여 전강 받을 제2기 전강원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수업년한 : 2년, 매주 3일간 수업
(화,수,목요일 오후 8시30분 ~ 10시 30분)
■ 수업과목 : 불교학 및 동양학
■ 수업장소 : 부산화엄사
■ 지원자격 : 강원대교과졸업자, 대학교졸업자, 사서삼경졸업자, 이와 동등한 실력자로써 불교와 인연있는분
■ 제출서류 : 승적사본,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각 1통씩
■ 모집기간 : 2004년 10월 30일 14시까지
■ 월 회 비 : 15만원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138번지 화엄사 종무소
■ 문의전화 : (051)324-0590, 011-573-0824, 010-3067-2578

**화엄학 연구원 통화불교 전강원**



국난극복 소원성취 일광 스님의 합동영가천도

# 선망부모 유주무주 태아령, 조상령 합동영가천도

영가천도로서 유명한 一光 석일선 스님의 국난극복 성원성취 선망부모 유주 무주 태아령영가 합동 천도제를 지장도량 성거사에서 봉행하고자 하오니 그동안 영가의 장애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불자님들이나 낙태 유산으로 남다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있는 불자님께서는 이번 합동 천도재에 꼭 동참을 하시어 업장소멸과 함께 여러가지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시고 만사소원 성취하시어 성불의 인연과 불은(佛恩)의 가피가 각 가정마다 항상 충만하기를 비옵니다. 지난번 합동천도재때에 이미 많은 분들이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소원성취와 함께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며 소원성취를 하신 불자님이 많았고 그동안 많은 사찰에서 영가천도를 해보았지만 전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금번에 합동천도재와 더불어 많은 불자님들이 지장보살님의 가피로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합동 천도재 때에 생긴 영험담들.**

- 합동천도재 전날 어떤 불자님은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어디론가 가는 꿈을 꾸기도 하였으며 합동 천도재 전날 '나를 보내달라'는 조상님의 선몽을 받기도 하였다.
- 어떤 불자님은 천도재를 지내고 쌀이 가득 쌓여있는 방에서 되(쌀을 푸는 도구)로 쌀을 한없이 퍼부어 담는 꿈을 꾸기도 하였고, 어떤 불자님은 천도재를 지내고 꿈에서 아궁이에 장작더미를 한아름을 집어넣고 불을 지피고 그 불길이 하늘로 한없이 올라가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사업성취) 천도재 이후로 양식장의 사업 수입이 두배로 늘어났으며, 아들이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뽑히기도 하였고(전라도 광양시), 또 어떤분은(경기도 수원시) 치매증세가 호전을 보였으며, 어떤분은(경기도 수원시) 매일같이 잠만자고 횡설수설하던 딸이 천도재 이후로 그러한 증세가 완전히 없어졌다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반항만 하던 아이가 모범생으로 바뀌었고, 어떤불자님(천안시 봉명동)은 평소에 항상 어께가 아파서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천도재 이후로는 아팠던 증세가 말끔히 사라졌고, 어떤 불자님은(경기도 의정부시) 병원에서도 못 고쳤던 허리 병이 천도재 이후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으며 그외에도 여러 가지 믿기지 않는 일들이 눈에 띄도록 좋아졌고, 이룰수없을것만 같았던 일들이 성취가 되어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불자님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
- 10월 1일 - (군산시) 그전부터 영가에 장애가 있는 줄을 알고 몇차례 천도재를 많은 사찰에서 지내보았지만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합동천도재를 지낸 그날 밤 어린아이가 신발을 신고 기어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꿈을 꾼 이후 정신이 맑아졌고 몸이 가벼워 졌다고 한다. (천안시) 천도재 이후 짖눌렀던 어깨의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한다.

**합동천도재는 매월 음력 초하루, 그믐, 지장재일에 봉행하오며, 당일 100% 천도시키오니 오시기전날 지장경독송이나 지장정근을 하시고 오시면 더욱 큰 가피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합동천도재 동참 보시금 :** 한가족 10만원 동참 (농협 485047-52-060649 성거사)

※ 서울역 → 강남터미널 매월 음력 초하루, 그믐, 지장재일 7시 30분에 셔틀버스 운행합니다. (성거사 전용 버스)

충남 천안시 목천면 송전리 282 **지장도량 성거사** ☎ 041)567-6820, 567-6822

전화접수로도 가능, 불참시에는 무통장에 입금하시고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이름을 알려주시면 동참을 못하시더라도 100% 천도 시켜 드립니다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 포교사단 8재계 실천대법회 현장



전국에서 모인 1천5백여명의 대중이 팔재계를 수지하고 지계를 다짐했다.



조계종 포교사들은 각자의 서원을 담은 서원지와 발원문, 사경지를 태우며 굳은 의지를 다졌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포교에 나서길 발원하는 참가자들.

# 이 자리 기억해 신명나게 법 전할 터

### 포교사·일반 불자 전국서 1500여명 운집
### 종정 법전·지관·도견 스님 증명 법사로
### '실의죄' 봉독 후 계목에 삼배하며 각자 서원
### 촛불행진·사경지 다비의식…실천의지 다져

**10월 9일** 오전 합천 해인사 구광루 앞마당에는 하얀 천막 10여개 설치되고 자리가 깔렸다. 그리고 포교사 1300여명과 일반 재가자 200여명이 운집했다. 그야말로 말로만 듣던 야단법석이다.

9일부터 10일까지 하룻밤 하루낮 동안의 조계종 포교사단 팔재계 실천대법회는 이렇게 시작됐다. 팔재계란 재가자가 하루 동안 사찰을 찾아가 출가수행자와 똑같이 수행하며 지켰던 8가지 계법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 것(不殺生),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말 것(不偸盜), 사랑을 나눔에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 것(不淫), 거짓말을 하지 말 것(不妄語), 취기 있는 것에 취하지 말 것(不飮酒), 쾌락을 위해 춤, 노래, 연극 등을 보지 않고 치장하지 말 것, 높은 자리에 앉지 말 것, 무절제한 식사를 금할 것을 말한다.

포교사단은 작년부터 지계실천운동을 벌이면서 팔재계법회를 봉행해왔다. 어려운 사회현실을 극복할 방법을 모색한 끝에 찾아낸 결론이다. 따라서 포교사들은 하나같이 지계실천이 전도된 도덕성과 양심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있었다. 또 나부터 솔선수범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한다는 사명감이 남달랐다.

양성홍 단장은 "수계는 받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고 지켜나가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수계는 연비나, 계첩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진정한 계체를 형성시켜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포교사가 참석했다. 또, 참여를 원하는 일반 불자들도 받아들였다. 앞으로 모든 재가자들에게 확산시켜나가야 할 운동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번 8재계 실천 대법회는 많은 큰스님들을 모셨다. 증명에 종정 법전 스님, 지관 스님, 도견 스님을 모셨다. 또 전계 대화상에 보성 스님을, 갈마아사리에 종진 스님을, 교수 아사리에 무관 스님을, 유나에 세민 스님, 혜능 스님을 모셨다.

저녁 7시 30분. "지금부터 포교사단의 본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자 모두 외투를 벗으시고 나눠준 주황색 티셔츠를 입으세요. 줄을 맞추시고, 여기를 기준으로 중앙은 띄워주세요" 이번 행사의 총괄 진행을 맡은 곽명희 부단장의 지시에 포교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새로 만들어진 음성포교팀은 지계의 실천을 다짐하며 지계의 노래를 불렀다. 포교사단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 나타나는 순간이다. 쌀쌀한 날씨지만 외투도 벗어버리고 여법한 모습으로 총재 도영스님을 기다리는 1500여 포교사들 모습 자체가 불법을 수호하고 홍포하는 전령사로서 환희심을 느끼게 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이 단상에 오르고, 기수단이 입장한다. 양성홍단장이 포교사단 기를 앞세우고 먼저 들어왔다. 다음 서울경기포교사단,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남, 전주전북 포교사단. 포교사단 깃발 7개가 단상에 우뚝 세워졌다.

"팔관재계를 실천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끊임없이 전파하여 6바라밀, 10바라밀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도영 스님은 "8관재계가 다음 생까지 연결되어 성불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추운 산사에서 있었던 일을 전하는 정진하는 포교사가 되길 당부한다"고 법문했고,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은 "계율은 불법의 생명이며 모든 불자가 의지하고 실천해야 할 등불"이라고 법문했다.

"뎅,뎅,뎅"저녁 9시를 알리는 종이 울린다. 산사의 밤은 적막강산. 그러나 찬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며 철야정진을 시작한 포교사들의 눈은 더욱 빛이 났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제 법단 위에는 양성홍 단장을 비롯한 6개 지역 단장들이 올라갔고, 목탁소리와 독경소리 보살계목을 봉독하는 소리가 가야산을 가득 채웠다.

천수경과 다라니 7독 후에 재가보살이 지켜야할 여섯 가지 중대한 법과 스물여덟가지 실의죄를 봉독하고 각 계목마다 삼배로서 지계의 마음을 다졌다. 마음을 담아 서원지도 작성했다. 서원지에는 저마다 발원이 다양하다. '국태민안, 남북통일, 세계평화'에서부터 '딸의 시험합격' 발원까지.

11시 50분,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이 참석하여 포교사들의 수행을 이끌었다. 불빛처럼 사회를 밝히겠다는 서원이 담긴 촛불행진이 시작됐다. 보살도의 실천을 통해 성불발원으로 밝힌 1500개의 불씨가 보광루 앞마당을 출발해 성철 스님 사리탑을 친견하고 산내 암자인 홍제암을 지나 율원 앞 축구장까지 이어졌다. 잘 다듬어진 잔디구장에서 다시 한글 108 예참회문을 봉독하고, 좌선의 시간을 가졌다.

드디어 사경지와 발원문 다비의 시간, 율원 뒤쪽 공터에서 이번 행사를 위해 8일 전부터 매일 40분 넘게 준비해 온 사경지가 다비의식을 통해 지계실천으로 승화되고 있다.

전부 감탄과 감동의 빛이 역력하다. 그러나 말이 없다. 그저 한없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 중생심을 던져 넣고 있을 뿐.

다음날인 10일 오전, 단상에는 계단이 마련됐다.

밤을 지새우며 수행정진한 탓일까? 수계를 앞둔 포교사들은 눈빛만 반짝였다.

해인사 경내에는 향내가 진동하고 수계의식이 진행됐다.

보성 스님은 계첩을 수여하기 전에 "70, 80의 노보살님들까지도 불교를 위해 노력하겠노라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계를 전하게 되어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스님은 "'신명이 다하도록'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항상 기억해서 잊어주지 않기를 거듭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글·사진/해인사=배지선 기자



양성홍 단장과 지역 단장들이 법회 참가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교사들이 서원지를 작성하기에 앞서 절을 하면서 스스로를 정화하고 있다.



철야정진으로 행해진 108예참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옴 살바 못자 못지 사다야 사바하" 참회진언을 독송하며 연비하고 있다.



전계대화상 보성 스님으로부터 계첩을 받고 있는 수계대중.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11월 27일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출발
여행경비 : ₩850,000원 (10명이상 출발)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 일 시 | 교통편 | 기 간 | 일 정 |
|---|---|---|---|
| 11월 27일 | MU5042 | 07:00<br>09:05/11:30 | 인천 공항 모임<br>인천 출발 / 상해 도착<br>임시정부, 옥불사 참관<br>호텔휴식 |
| 11월 28일 | 고속페리 | 09:05/11:30 | 선편으로 보타산 이동<br>조음동, 보제사, 해제사, 남해 대불 참배<br>호텔 휴식 |
| 11월 29일 | 고속페리 | 13:30/16:00 | 선편으로 낙가산 이동, 낙가산 참배<br>선편으로 영파 이동 / 아육왕사, 천동사 순례<br>항주로 이동 / 호텔 휴식 |
| 11월 30일 | 전용버스 | | 서호유람, 영은사, 육화탑 참배<br>상해로 이동 / 호텔 휴식 |
| 12월 1일 | MU5041 | 09:15/11:55 | 항공편으로 상해 출발 / 인천 도착 |

※ 개인 경비 외에 모든 경비 포함

호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저사, 옹화궁)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20,000원
3. 천진, 북경, 오대산 7일 (운강석굴, 화엄사, 현통사) ₩620,000원
•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팁 불포함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 85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 85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 80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 80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 179만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 觀音聖地 休休庵

## 破 億劫 沈默 海中智慧 觀世音菩薩 現身 道場

### 억겁의 침묵을 깨고 바다에 나투신 관세음보살님 계신 곳



부처님 꽃이 연꽃인데 2003년 6월 부터 부처님 주변에 회사하게 피어있다. 연꽃 바위가 관음보살 발밑에 피어있는 모습.

### 모든 번뇌 쉬면 몸도 마음도 편안
### 경내 전체가 연화세계…
### 청정한 귀의처



관음보살 이마 밑에 연잎바위, 연봉이 피어있다. 크기가 성인 7~8명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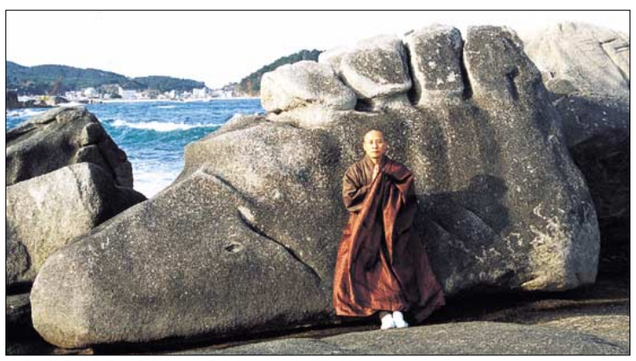
푸른 동해바다위에 쉬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 상주도량 휴휴암(休休庵). 영동고속도로 현남톨게이트를 나와 속초 · 양양 방향으로 5분정도 달리다 보면 눈앞에 펼쳐진 시원한 바다와 기암괴석의 놀라운 절경 속에 자연과 정말 잘 어우러진 한 도량을 접하게 된다. 강원도 양양군 광진리 1번지에 위치한 이 도량은 수행승의 정진으로 일구어진 사찰이다. 그래서 경내에 들어서면 마음의 고향에서 느껴볼 수 있는 아늑함을 느끼게 된다.

휴휴암(休休庵)은 이름 그대로 쉬고 또 쉰다는 뜻의 기도 정진 도량이다. 즉, 팔만사천 번뇌를 모두 놓고 쉬라는 뜻이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라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법당이름은 묘적전(妙寂展)인데 그렇게도 쉬어져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면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원하는 일들이 묘하게 이루어지라는 뜻이다. 절을 지을 때부터 이처럼 예사롭지 않은 서원이 서려 있어서인지 불사가 진행되는 동안 묘한 일들이 휴휴암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5년 전 관세음보살님이 누워계신 채 휴휴암 앞바다에 나투신 것이다. 마치 9년 전 휴휴암이 창건되기 전부터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쉬고 계신 것처럼 망망대해 앞에 머물러 계신 것이다. 근래 해중관세음보살님 주위로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관음기도처로 수 많은 불자들의 참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불상은 이마에 두건(화관)을 쓰셨고, 가슴에는 감로수 병을(호리병) 들고 계시는 형상을 하신 바위불상으로 자연의 부처님이시다. 또한 묘하게도 불상의 길이가 묘적전 법당의 길이와 같고, 묘적전에 모신 관음보살님의 몸매를 매우 닮아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 마치 누군가 이 불상을 조성한 듯 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신비하다. 불상 발밑 좌대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처럼 놓여 있으며, 더욱 특이한 것은 관음보살님 이마 및 다리부분에 2003년 6월부터 연꽃, 연잎, 연밥 형상을 한 바위가 피어나기 시작했으며, 크기도 성인 약 7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모양을 하고 있다. 연꽃은 그



◇휴휴암 해중지혜 관세음보살 손바닥바위, 손등바위.

### 본래 관세음보살은 보타 낙가산에
### 백의 관세음보살로 계시는데
### 이곳이 바로 그 성지가 아닐까!



◇연화법당 발가락 바위앞에서 합장하시는 휴휴암 주지스님.



◇휴휴암 해중지혜 관세음보살 발바닥 바위.

아름다운 자태와 은은한 향기, 고아한 품격, 그리고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청정한 꽃을 피우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이다. 즉 연꽃은 우리에게 탐진치 가득한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청정한 불성을 꽃피울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연꽃이 불상 주위에 피어 났으니 그 신묘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누군가의 작품도 아닌 자연적으로 피어난 연꽃밭에 누워 쉬고 계시는 모습은 마치 이곳이 연화세계가 아니가 착각이 들 정도여서 수많은 불자님들의 또 다른 귀의처가 되고 있는 것이다.

☞ 9면으로 이어짐





◇휴휴암 묘적전에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다.

## 관세음보살 현신 신묘장구대다라니 백만독 천일철야 기도중

☞ 8면에서 계속

휴휴암 사부대중은 요즘 신묘장구대다라니 100만독(讀) 천일철야정진기도를 매일같이 드리고 있다. 한 대중은 "휴휴암 주지스님은 30여년간을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을 드리고 있으며 또한 천일동안 백만독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라며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 기도 원찰로서 자랑을 서슴치 않는다. 주지스님이 오랜기간 대비주기도를 드리게 된 동기는 특이하다. 과거 오랜 겁 전에 관세음보살님이 정광왕 여래 부처님으로부터 신묘장구대다라니 법문을 들으시고 초지보살에서 팔지보살로 껑충뛰어 올라 지혜로운 보살님이 되시기 시작한 내용을 알고 부터 자신도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주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지 휴휴암 앞바다에 관세음보살님이 현신한 것이 아닐까!

근래에는 탁트인 동해 절경속의 방생 명소로 휴휴암은 전국에 널리 알려 졌다. 바다 연화법당에서는 방생하러 오는 신도들로 인해 매일 용왕기도와 방생기도가 이어지고 있다. 찾아오는 불자들과 휴휴암 대중들은 "일반인들은 잡고, 먹는것에 기쁨을 느끼지만 저희는 잡힌 것을 풀어주고 베푸는 것으로 기쁨을 느낀다며 모든 중생들이 자비심을 가질 수 있게 방생하고 있습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공덕을 기린다. 이 덕에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한 어민은 "방생을 하러 오신 신도님들이 크고 작은 어류를 놓아주는 덕에 많은 위안이 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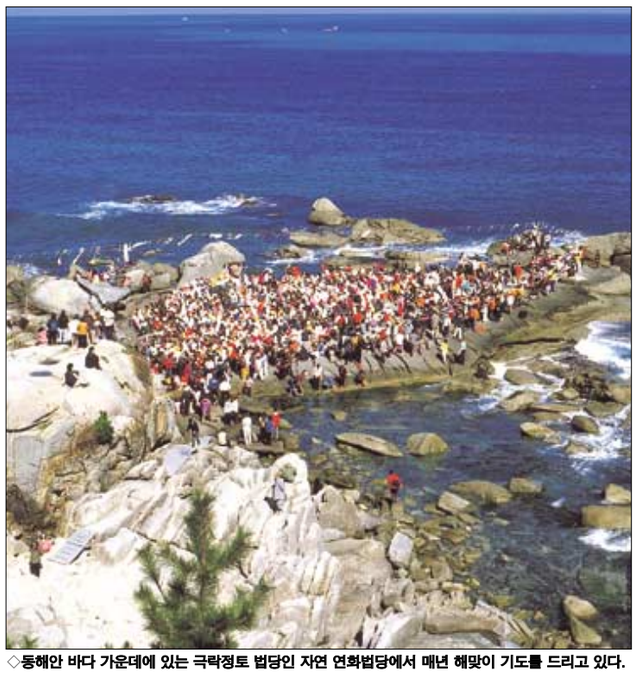
## 연화법당 방생·용왕기도 이어져

라며 휴휴암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지역 어촌계 지역주민들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잡혀있는 생명을 놓아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홍법스님은 "방생하는 것은 곧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연마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가족들이 건강하고 또한 자손들도 수명이 장수하기를 바란다면 죽어가는 생명들을 놓아주는 자비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방생의 공덕을 강조한다. 잡혀 실의에 빠져 있는 생명을 모두 거두어다 놓아 줄때 헤엄쳐 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드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 할 수 없다는 스님의 자비로운 마음은 동해바다를 넘어 온 우주에 퍼질 것이다.

휴휴암은 이름처럼 쉬면서 볼만한 명소들이 아기자기하게 펼쳐져 있다. 달마 바위, 거북 바위, 새끼거북 바위 , 여의주 바위, 손바닥 바위, 손가락 바위, 발바닥 바위, 발가락 바위, 중바위, 바위동굴, 탁 트인 동해바다의 절경 등이다. 특히 휴휴암에서 바다와 바위들을 바라보노라면 해중관세음보살님께 거북 남순동자가 기도드리러 가는 모습이 비추어 진다. 마치 거북가족이 불법을 배우러 가는 듯한 느낌에 사로 잡혀, 이 곳이 부처님세계 구도의 도량이 아닌가 하는 환희심이 저절로 일어난다.

동해안 기도성지로써 중생의 업보, 세속의 번뇌 망상을 쉬는 곳 휴휴암. 절은 사람들을 쉬게 하는 곳이다. 탐욕으로부터, 성냄으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들을 쉬게 하는 것이다.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휴휴암, 관세음보살의 큰 원력으로 쉼터를 찾게 될 것이다.


◇매년 9월 관음재일전날 전국 각처 불자님들이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 기도를 드리고 있다.


◇동해안 바다 가운데에 있는 극락정토 법당인 자연 연화법당에서 매년 해맞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


## 선망부모와 유주무주 애혼고혼 축생 미물들까지도 극락세계로 천도하는 수륙영가 천도재 기도 봉행

관음성지 휴휴암은 몸도 마음도 모두 놓고 쉬고 쉽니다. 미워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시기와 질투 증오 갈등과 대립 기뻐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잘나거나 못나거나 팔만사천의 무진 번뇌를 너도 쉬고 나도 쉬고 또 쉬자는 뜻으로 사찰 이름을 휴휴암이라 하였더니 보타락가산 해안가 절벽에 항상 계신다는 관세음보살님께서도 얼마나 좋으면 같이 쉬자고 편안한 모습으로 누워 쉬고 계시는 신비한 도량 휴휴암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 백만독 천일 철야 주력 기도를 드린 지 일년 째 맞이하는 돌아오는 음력 9월 24일 관음재일 날에 부처님도 쉬고 계시는 푸른 동해바다 연화법당에서 집에서나 병원에서 산에서 물에서 길에서 바다에서 돌아가신 조상님들과 태중아기영가 집안에서 기르던 소 돼지 닭 고양이 강아지 많은 짐승들이 죽어서 슬프고 가슴 아프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혹은 약으로 먹고 음식으로 먹었던 모든 중음신들이 허공과 집안에 머물러 있고 분함과 억을함이 한이 되어 애욕소전을 끊지 못하고 사람을 따라 다니면 좋을 것이 없습니다.

뭇 생명들이 나로 인해 다치고 죽음을 슬퍼하고 참회하며 죄송한 마음과 자비한 마음으로 해탈기도 하시고 상세선망부모 유주무주 애혼 고혼 등 수륙영가들을 인도하는 천도재를 봉행하오니 우리집안과 나와 연관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미물이라도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 하고 좋은 몸 받기를 바라는 기도 축원을 드리면 집안도 밝아지고 몸도 가볍고 마음도 맑아져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풀릴 것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수륙영가 천도 용왕방생기도에 무릇 동참하시어 모든 업장 소멸 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길 발원합니다.

또하나의 관음성지 신비한도량 **휴 휴 암** 주지 홍법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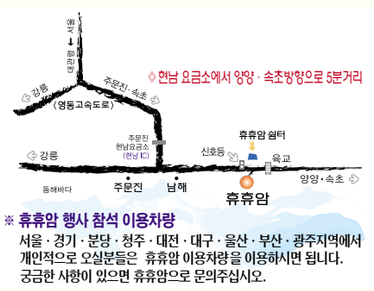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033)671-0093,0095 (종무소)

■ 수륙동참금 : 50,000원
■ 백 일 기 도 : 30,000원
■ 다라니 천일철야기도 : 100,000원
■ 2005학년도수능입시기도 : 100,000원
■ 법당 1년 연등 : 100,000원
■ 인등기도 온가족 1개월 : 10,000원

• 우체국 : 200675-02-015135 (예금주 : 신승섭) • 농 협 : 331025-52-047221 (예금주 : 신승섭)
• 인등계좌번호 : 331025-51-03974 1(예금주 : 신승섭)

■ 새해 해맞이 기도 안내 ■
12월 31일 금년에도 새해 해맞이 철야기도에 동참하실분은 휴휴암으로 문의 바랍니다.

■ 휴휴암 관음범종 불사 ■
휴휴암 3330관 관음범종불사에 가족이름 새기실 분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휴휴암 행사 참석 이용차량
서울 · 경기 · 분당 · 청주 · 대전 · 대구 · 울산 · 부산 · 광주지역에서 개인적으로 오실분들은 휴휴암 이용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휴휴암으로 문의주십시오.

# 신명나는 법당 온가족 모임터

**대형 도심사찰 성공비결**

1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2 구룡사
3 능인선원
4 부산 삼광사
5 안국선원
6 한마음선원

## 만불전 · 백고좌법회로 도심포교 새바람 주도

*통도사 서울 포교당 구룡사(주지 정우)는 여러 면에서 도심 포교당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한 사찰이다. 도심 속 불심을 일으키기 위해 도심 포교당 최초로 만불(萬佛)을 모셨으며, 신도들의 신심 고취와 수행 진작을 위해 백고좌법회를 처음 열었다. 사찰로는 유일하게 극단 '신시'를 창단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사찰 내 소극장 '신시씨어터'를 운영하는 등 새로운 문화포교의 지평을 열고 있는 곳이 바로 구룡사다. 이밖에도 어린이 포교를 위해 8곳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하고, 해외와 군법당 등 불교 사각지대 포교를 위해 월간지 〈붓다〉를 발간하고 있으며 도서출판 '일주문'도 운영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재가자들의 수행 및 휴식을 위한 '시민선방'과 '부처님 마을'을 건립할 예정이며 NGO단체 '붓다월드'를 출범시켜 네팔과 티베트 등 해외 빈민지역 구호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우 스님은 1985년 양재동의 천막법당과 가건물법당을 거쳐 일산 여래사 등 통도사 분원 7곳의 모태가 된 지금의 구룡사를 일궈냈다. 현재는 서울의 행정중심지 서초구에 건평 2,200평 지상 · 지하 9층 규모의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10만여명의 신도가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www.guryongsa.com (02)575-7766*



어린이들의 불교적 소양과 전통문화교육을 위해 운영되는 '어린이 예술단'.



신도들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상담과 수지침과 지압 등 봉사를 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구룡사가 운영하고 있는 '부다텔레비전' 편집실 모습.

### ●새싹불심 키워 밝은 미래 일군다

"씨 뿌리는 노력이 없이 열매의 달콤함을 기대하지 말라."

와글와글 왁자지껄. 구룡사는 늘 천진동자들의 재잘거림으로 활기가 넘친다.

구룡사는 '지혜로운 어린이, 베푸는 어린이, 건강한 어린이'라는 교육이념으로 구룡유치원과 선재어린이집 등 8곳의 어린이시설을 운영하며, 매년 수천명의 어린이 불자를 양성하고 있다. 단위사찰로는 가장 많은 수의 어린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구룡사가 이처럼 어린이 포교에 매진하는 이유는 '새싹 없는 미래는 없다'는 주지 정우 스님의 신념 때문이다. 스님은 '세살 버릇 여든간다'는 속담처럼 어려서 가진 종교정서와 이미지가 평생 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찰 1층을 유치원과 문화회관으로 꾸미고, 분당 연화사, 중동 서래사 등 구룡사 분원들은 필수적으로 어린이시설을 운영하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안심하고 맡길만한 '24시간 유아보육시설'을 별도로 운영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으로 아이는 물론 그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등 가족 구성원 모두를 사찰로 이끌고 있다.

구룡사의 교육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천막법당 시절부터 쉬지 않고 학생법회, 청년법회, 가족법회 등을 열며 신도들이 생활불교를 유도하고, 매주 화요일불교대학 불교교리 강의와 수요일 경전공부를 통해 보다 심화된 불교학습을 돕는다. 또한 신도들을 법회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반야심경이나 축원문을 한글로 낭독하고, 법회실황을 자체 운영중인 '부다텔레비전'을 통해 식당이나 사찰마당 등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직장인들과 청 · 장년층을 위한 청년법회와 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심전(心田)을 일굴 수 있는 가족법회 등은 매주 수천 가구의 신도들을 구룡사 법당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 ● 정형화 된 법회 형식 파괴…노래방 · 연극 접목

"신심은 강요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가까이 접하는 가운데서 생긴다."

구룡사를 찾는 이들을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지하 연습장에서 들려오는 '할렐루야~!'라는 외침소리부터 '쿵짝쿵짝' 신명나게 울려 퍼지는 트로트 메들리까지. 조용하기 그지없는 여느 사찰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구룡사는 300석 규모의 지하 소극장과 전문극단 '신시'를 후원하며 다양한 문화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찰이 신행공간뿐만이 아니라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도시 지역의 포교를 위해 일산 여래사 지하 1층에 220석 규모의 소극장 '신시씨어터'를 마련하고 '주민극장'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룡사 신도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사찰에서 치러지는 오디션을 통해 직접 연극에 참여하기도 하고, 스님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유수의 극단을 운영하는 사찰 신도라는 자긍심은 사찰 내부행사 등에서 극단 연출가 및 배우들과 함께 즐기며 흥을 낼 수 있는 자리로 이어지며, 보다 활발한 신행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도 1993년부터 매주 목요일 '노래방 법회'라는 새로운 형식의 법회를 진행, 즐겁고 신명나는 법회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으며, 전화상담기관인 '진리의 전화'와 '결혼상담실'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늘 함께하는 사찰로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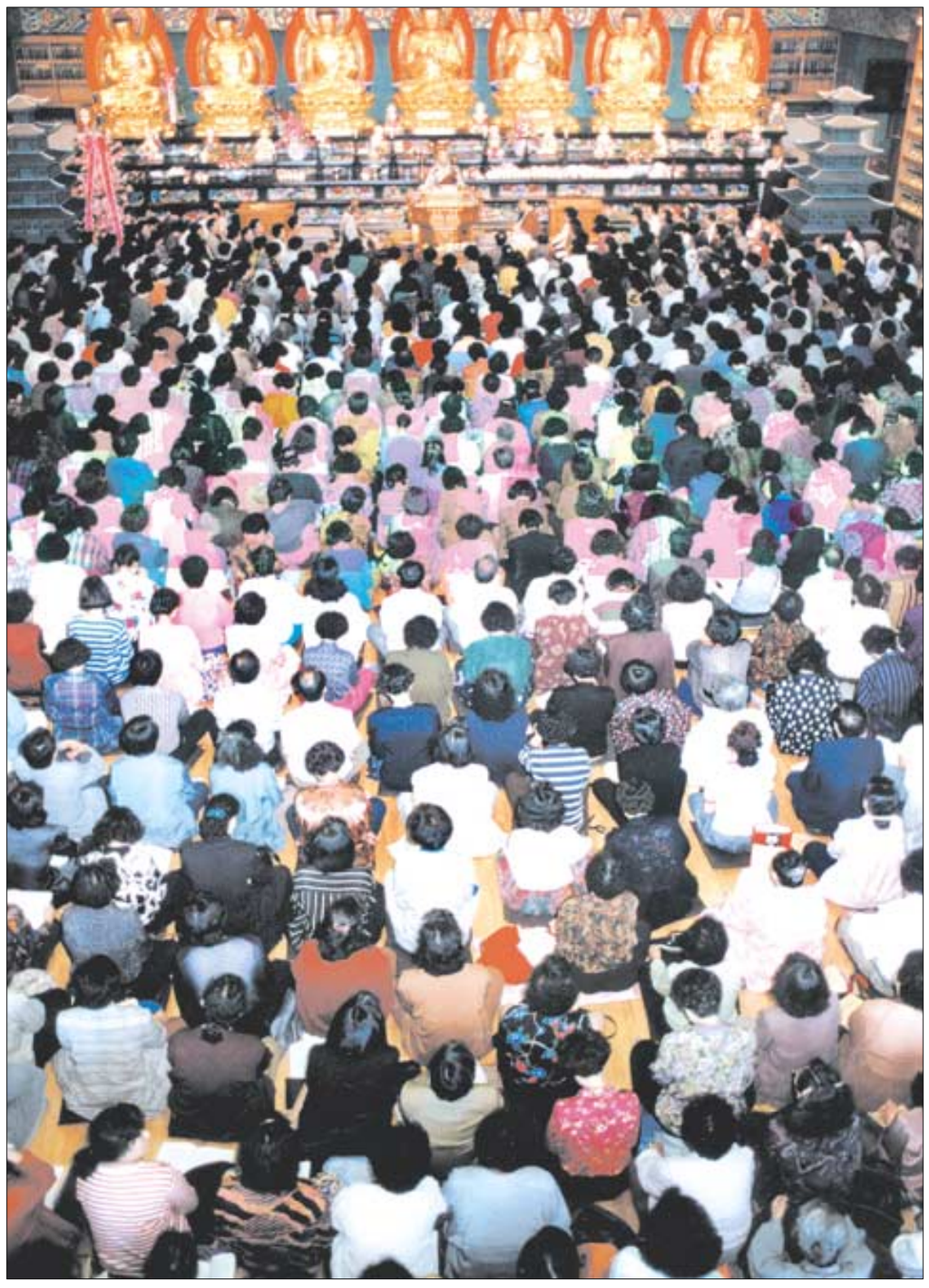
### ● 신도들 이구동성 "사찰 일이 내 일이다"

"스스로 내는 마음만큼,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없다."

구룡사에는 신도회가 없다. 편의상 상조회와 불교대학, 거사림회, 학생회, 청년회 등을 통틀어 신도회라 지칭하기도 하지만 '신도회'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재가자들의 모임은 없다. 하지만 자질구레한 사찰 일부터 봉축행사에 이르기까지 구룡사 신도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매일 백여명의 신도들이 자원봉사자를 자청하며 법당의 청소와 사찰안내, 식당의 잡일 등을 돕고, 사찰 큰 행사 때는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아도 수



재가불자들의 휴식 및 수행공간을 위해 충북 제천지역에 조성중인 수련장 '부처님 마을'.



만명의 신도들이 사찰을 찾아 제 할일을 찾아 나선다.

구룡사가 운영하는 전화상담기관 '진리의 전화'와 '결혼상담소'도 일정교육을 이수한 신도들의 자원봉사로 상시 운영되고, 월간지 '월간붓다'도 언론 쪽에서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신도들의 봉사활동으로 매호 발간되고 있다.

특히 1988년 창간된 월간지 '월간붓다'는 10월로 200호를 맞이하며, 해외 및 군법당 등 포교 소외지역에 전법을 전하는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 모 군법당의 군인들은 '월간붓다'가 오는 날이면, 법당 빗질에 더 힘이 가해진다고 말한다. 큰스님들의 법문부터 인생선배들이 말하는 어떻게 연애하고 학업을 진행해야 유익한지까지 모든 게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닌 신도들 스스로가 서로 협의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진행해 오고 있는 일들이다. 이는 비단 사찰의 일뿐만 아니라 재정관리에도 해당된다. 구룡사의 재정은 신도와 종무직원 등이 주축이 돼 몇 단계의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 ● 대중과 함께하는 열린 수행 · 문화 공간 지향

"귀를 기울여 중생의 외침을 들어라. 그것이 나갈 길이다."

구룡사는 요즘 사찰 내부공사에 한창이다. 재가불자들의 마음공부를 위해 5층 적별전을 6층으로 이전하고, 200여명의 재가자들이 입방해 참선을 할 수 있는 재가선방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재가자 사이에서 부는 수행열풍을 반영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선방이 완성되면, 막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가정불화 등으로 마음 둘 곳이 없는 직장인 불자들을 위한 특별 수행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주5일제 대비는 물론 재가자들의 휴식 및 수행공간을 위해 내년 중으로 충북 제천지역에 대지 7만평 규모의 '부처님 마을'을 건립한다. '부처님 마을'은 작은 토담집들과 논밭 등으로 구성돼, 도시생활에서 지친 이들의 심신정화는 물론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도들은 힘을 모아 '땅 한평 사기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으로 현재 부지 3만평이 매입된 상태이다.

이밖에도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시 · 구청과 논의 중이며, 양로원 등의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신도들의 사회봉사활동의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구룡사는 그동안 사찰단위로 조금씩 이뤄졌던 네팔과 티베트 등 해외 빈민지역 구호활동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 NGO단체 '붓다월드'를 출범시키고 티베트 등의 불교국가는 물론, 북한동포들과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이라크 등에 대규모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그동안 공식적인 단체 없이 사업을 진행하니, 관련 기관들과 연계활동을 벌이기도 어렵고, 사업규모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구룡사는 북인도 지역에 세계 불교도들의 만나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만남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만불보전에서 진행되는 가족법회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온가족이 함께 큰 스님의 법문을 듣는 구룡사의 대표적인 법회이다.

▌주목받는 문화포교사 극단 '신시'

## 1987년 창단 '맘마미아' 등 히트

1987년에 창단된 극단 '신시'는 '시카고' '렌트' '맘마미아' 등 굵직한 흥행작들을 내놓은 국내 유수의 뮤지컬 극단이다. 현재 구룡사의 후원에 따라 구룡사 지하 1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활발한 공연활동을 벌이고 있는 극단 '신시'는 예로부터 사찰에 상주하며 음악과 음악을 즐기던 건달바의 현대적 상징이다.

그러나 구룡사는 극단을 후원하는 데 있어 소재와 극의 형태 등 운영전반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불교소재와 관련 내용들만 고집하는 것은 '신도들을 위한 포교'일뿐 일반인들을 위한 포교가 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올해초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된 뮤지컬 '맘마미아'의 한장면.

이러한 구룡사의 노력으로 극단 '신시'는 얼마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맘마미아' 등 최고의 뮤지컬 작품을 선보이며, 종교기관이 벌일 수 있는 최고의 문화포교 선례가 되고 있다.

현재 극단 '신시'는 구룡사를 비롯해, 일산 여래사 등에 전문공연장을 가지고 활동하며, 보다 많은 이들의 발길을 사찰로 이끌고 있다.

#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 임법당: 60평
- 부지: 800평
- 가액: 3억5천

- 위치: 경북
- 임법당: 24평
- 부지: 100평(종중)
- 가액: 6,000만원
※ 문화재급 석불 有

- 위치: 경북
- 법당 및 지장전 : 100평
- 요사 : 100평
- 부지: 2,700평
- 가액: 7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7억5천(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 사찰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3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상담후 결정)

031)826-0376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3층 40평
- 삼존불, 신중탱화, 칠성탱화, 모두 갖춰져 있음. 집기일체포함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천만원, 월 30만원
스님급한사정으로 '급' 양도코저함

010-4422-5575
041)832-5575

##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평수 : 대지 48평
- 건물 : 법당 1동, 산신각 1동
- 요사채 1동
- 가액: 삼존불 포함6천만원

041)841-3090
017-337-4168

##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
- 부지: 1000평
- 법당: 15평
- 요사: 25평
- 가액: 7억

- 위치: 삼각산
- 국유지 임대
- 법당: 9평
- 건물: 15평
- 가액: 2억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사직동 3동
- 평수: 38평
- 전세 1000만원
월세 25만원
권리금 1000만원

051)503-0908
019-291-5558

## 사찰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신축 2층건물
- 대지: 105평 ● 법당: 28평
- 요사채: 45평
- 시설: 화장실 4, 심야보일러, 수도, 지하수, 창고, 상수도
- 가액: 3억1천만원(절충가능)
- 즉시법회가능

011-226-2880

##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대변리 동부산 관광지,버스에서 5분거리
- 평수 : 36평, 2층 법당
- 1층 방 2개, 법당 12평 요사채 15평
- 가액 : 7,250만원(절충가능)
- 시설비 일체 없음. 시설일체

016-819-0318
051)721-6735

##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임
- 대지: 159평
- 총건평: 25평(요사채 12평)
-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8천만원
(답사 후 절충可)

019-503-7959

## 토굴 및 전원주택

- 위치: 경북왜관 마을끝집
- 총평수: 260평
- 40평 주택 2채 상태양호
- 마당 잔디
- 가액: 1억2천5백만원

011-522-4896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내
- 부지 : 1.000평
- 법당 : 25평 (목재)
- 요사 : 40평
- 가액 : 3억 5천

- 위치 : 경북 고령시내
- 부지 : 550평
- 법당 : 20평 (목재)
- 요사 : 80평
- 산신각 : 5평
- 양도가 : 5억 5천(융자가능)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남원
- 부지 : 3천2백평
- 법당, 요사완비
- 가액 : 전세 3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011-9415-6831

## 포교당 안내

- 위치: 울산 중구 학성동 부근
- 평수 25평, 법당10평, 방1, 공양간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700만원
- 불사관계로 급 안내

016-9393-1377

## 사찰안내

- 위치: 전주시내,중심지역대지상가주택
- 1층상가 6개, 2층사찰 대지 110평 건평120평 자신있게 갖춘 도량임
- 가액 총 4억8천 준비금 2억 8천이며 개인사찰 등기이전 상가에서 매월 170만원나옴. 융자 80%가능
- 대지는 8×6미터, 코너젖
- 비구니스님, 비구스님, 법사님도량

010-3166-8483

## 사찰안내

- 위치 : 울진군 울진읍
- 평수 : 사찰도량 600평 텃밭 700평
- 전세가액 : 2천만원
- 스님불사 관계로 '급'

011-554-2044
051)257-2044

##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 110평(전통한옥, 등기필)
- 건물 2동(안채, 사랑채)
-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된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토굴이나 가족휴양처로 최적으로 장소
- 가액 : 9천만원(가격 절충)

041)753-3766

## 사 찰 안 내

〈사찰〉
- 위치: 웅촌
- 부지: 3천평
- 법당: 20평
- 요사채: 30평
- 가액: 4억
- 위치 교통양호

〈절터〉
- 위치: 서창
- 대지: 1,100평
- 가액: 2억5천
- 풍수만점(청룡 백호완벽)
- 부산 ↔ 울산 중간지점

〈전원주택(토굴)〉
- 위치: 범어사 부근
- 대지: 178평
- 건물: 35평(2층)
- 가액: 3억5천
- 암자로 안성마춤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5)383-0023 / 018-563-9575
동면공인중개사 홈페이지 dongmuen.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주택중심가
- 대지203평 현 거래시가 250만원정도
- 사정상 급 1평당 195만원 (3억8천5백만원)
- 법당 30평 요사채 25평 7층탑 5층탑
- 100년이상된 고목 2그루 포교 적합지
- 화장실 수세식 4칸
- 주차 7, 8여대 가능
- 주인직접

010-3133-0018

## 사찰안내

- 위치 : 포항 죽장 상하옥
- 대지 : 200평
- 전 500평, 구교지 300평
- 신축요사 법당
- 경치좋은곳
- 가액 : 1억 3천만원

054)262-6673

## 포교당안내

- 위치 : 성남 밀집 주택지역
- 법당, 거실 넓음
- 방1개, 주방, 화장실, 베란다
- 평수 : 45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
- 시설비 : 조절가능

011-678-0807

##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 중구 남산초등교 앞
- 2층건물 중 2층
- 건물: 40평(법당 20평)
- 시설: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2천2백만원에 월45만원 (보증금 포함)

053)255-6628

## 사찰안내

- 위치: 경남 남해 바닷가(한려수도)
- 평수 : 약 1,000평(대지 516평, 밭 400평) (법당20평, 삼성각10평, 지장단10평, 요사채20평, 기타 : 화장실, 창고)
- 특징 : 인근 골프장과 스포츠 파크 있음
- 가액 : 3억 (한려수도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어 경관이 수려함)

011-627-0290

## 고찰터안내

- 경남 함양군 법화산
- 독립된 청정계곡. 야생차밭
- 16필지 총 7527평
- 관리지역
임야 4808평 1만원
전답 2919평 3만원
1억 3천만원

011-9393-4965

## 포교당안내

- 위치: 경북 양산시 북부동 진해 10분거리
- 평수 30평, 방2, 주방, 샤워실
- 시설비 無
- 전,월세 상담 후 결정

055)386-2376
017-563-4602

##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물좋고 산세수려)
- 평수: 650평 (종교부지)
- 심야보일러, 임법당 25평, 방 5개, 주차장 창고 등
- 가액: 1억 4천 8백만원
- 꼭 하실분 연락바람

010-8419-8004

## 한마음 납골묘 납골당

사찰 경내에 본사의 비용(무상)으로
납골묘(석재)를 설치해 드립니다
사찰에서는 일체의 부담이 없음
한마음 석재 납골묘 납골당 고원 합장

011-348-0668 / 031)318-0616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 대지 : 1700평
- 법당 : 30평, 요사채 40평 (방5,주방1,거실,화장실)
- 삼존불 각단탱화
- 특징: 하천댐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쾌적한 공기
- 가액 : 3억 3천만원(답사후절충가능)

016-9771-2736

##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부근
- 대지 100평 및 사용평수 100평 건물 법당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8평, 11평
- 모든시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
- 가액 : 1억3천만원

043)733-8186
011-9405-8186

##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입구
- 법당 : 20평(3층건물의3층)
- 옥상 넓음
- 가액 : 2천만원에 월 40만원

031-323-2890
포교당 꼭 필요하신 스님만 연락바랍니다.

## 암자안내

- 위치: 경북 상주 산현리
- 대지 108평
- 법당 21평 요사채 20평
- 주방 욕실 난방완비
- 가액 : 6500만원

054)533-1477

## 암자안내

- 위치 : 서부 경남 (진주 30분거리)
- 면적: 임야 약 5000평중에 등기 900평
- 특징: 산세가 수려하고 물 좋은 20년된 암자
- 가액: 1억5천만원(절충가능)

055)674-7839

## 포교당안내

- 위치: 성남시 중원구 신흥전철역 옆
- 2층건물중 2층. 평수: 17평
- 임법당, 방1, 목욕탕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6백만원
- 용도: 철학, 불교미술 적당

011-806-4867

##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봉덕동
- 전통한옥 법당
- 평수 : 약 80평
- 가액 : 2억 3천만원

019-473-7600
(즉시법회가능)

##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 중구 반구동
- 평수 : 45평
- 2층 건물 중 2층
- 보증금 5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1천 2백만원

052)293-1237
017-856-3617

##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 12만원 집기 포함 시설비 1700만원

011-9238-9960

##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여상 버스정류장 옆 (연산동)
- 평수 1층 40평, 법당, 상담실, 방2, 주방
- 삼존불 탱화 일체 있음
- 가액: 1500만원에 월 23만원
시설비 1500만원

051)506-0377
011-567-2626

## 토굴암자안내

- 위치: 부산 기장읍 단독주택
- 법당, 방3개, 주방, 욕실
- 대지 120평, 건평 30평
- 기와집 앞은바다 뒤는산 공기 맑고 고요함 불심 좋은 곳
- 가액: 전세 2000만원(월세없음) 시설비 900만원

011-9281-5781

##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장산아래
- 평수: 법당 15평, 방4개
- 금액: 전세 3천에 월 100만원

055)386-3509
011-9585-1172

## 암자안내(작은)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70평, 건평: 40평(무허가)
- 가액: 7천 5백만원
- 즉시입주가능

051)643-4109
055)323-2858
011-9542-5726

## 사찰 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평동 공단 인근
- 대지: 207평
1층 요사채 25평
2층 법당(목조) 25평
- 삼존불, 지장보살, 신중
- 가액: 1억(전세 5천만원)

062)943-3330
011-9600-8002

## 도심의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시내
- 평수 600평, 법당 25평
- 전통목재단청 요사채 방 5개
- 지하수 및 주차장 완비
- 가액: 2억(가격절충)

011-9558-3339

##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 큰시장 입구 1층
- 구조: 법당(지장보살, 신중단, 영가단) 방2칸, 사무실(기름보일러)
- 조건: 보증금 없이 월세만 35만원 시설금 1500만원(절충가능)
- 여법한 구조, 사무용품, 불기 등 일체양도
- 시골 사찰에 불사를 위한 포교당 용도 좋음

0505-242-2404 / 011-502-8033
신축사찰에 근무할 종무원 구함
(인터넷 필수, 웹프로그래머 우대함)

## 토굴암자터안내

- 위치: 산청군 단성면 진주에서 20분 단성IC에서 5분거리
- 자연경관이 수려함
- 아담하고 조용한 정남향의 터 1030평
- 예상 가액: 평당 7만원

011-570-1317

##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남산동 부근 전철역 2분거리
- 평수: 빌라 2층 40평, 법당 25평, 방2, 주방1
- 가액: 시설비 포함 평당 250만원

051)512-0437
011-622-7466

## 불자전원주택

- 위치 : 경기도 양주 소재, 산중 사찰 내 신축건물
- 건평 32평 방4개 거실, 욕실 불심 깊은 노부부, 예술인 환영 (입주자 식사 및 편익 제공)
- 전세 입주금 6천만원

031)867-1801
016-703-6648

##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 평수: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3천5백

011-9391-8117

## 사찰 안내

- 위치 : 서부 경남 곤양 IC에서 10분 전주시내에서 20분
- 임야 7500평, 대지 1000평 대웅전 25평 목조단청필
- 삼성각 7평 목조, 주지실 15평, 요사채 50평
- 가액: 3억 5천만원

010-9343-9530

##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 4층중 2층
- 방3개, 부엌1, 화장실1
- 법당 30평(총 7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814-9010

##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9-571-1732

## 포교당(급)안내

- 위치: 부산여상 버스정류장 옆 (연산동)
- 평수 45평, 3층건물 2층
- 큰 법당 1칸, 방 2칸, 입식 부엌 및 화장실
- 법당에 삼존불 및 후불탱화 지장불 및 지장탱화, 신중탱화, 산신불 및 산신탱화, 용왕불 및 용왕탱화 영가단 설치
- 전세 5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모든집기 포함) 1500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함
- 타지역 이사 관계로 급히 연락바람

051)327-0477
019-556-6047

##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7천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55)323-2858
011-9542-5726

##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 대지: 200평(주차장 600평) 총 800평
- 공터: 400평
- 건축: 법당(고려시대 부처님상 아미타), 요사채, 방. 총 46평
- 가액: 3억 5천(답사후절충가능) (융자 6500만원포함)

011-9378-5637

## 사찰겸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기도부천 부천역 2분거리 시장유동인구 밀집지역
- 2층 30평 법당 1개 방2개 거실 욕실
- 대웅전 금불상 삼존불 법단2단 13자조각 완벽함
- 보증금 1천만원 월세5십5만원 시설비 1천 4백만원 포교요충지
- 스님개인사정상 급매.비구니스님, 비구스님,법사님,보살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주차는 80%. 주인직거래

032)667-8485

##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주문진읍
- 사용부지: 500평
- 년 20만원
- 건물, 임법당, 방 4개, 목욕탕 2개, 입식부엌
- 사용하기 편리함
- 가액: 6800만원

033)662-8713
011-806-4867

## 명당터 (암자 및 토굴로 최적)

- 위치: 경남 함양 (해발 650 고지 청정지역)
- 지리산 천왕봉 안대, 전망최고
- 부지 600평 (심야전기) 임야 1300평
- 가액: 1억 9천만원

010-4548-0499

## 사찰(급)안내

- 위치 :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일출봉에서 5분거리)
- 대지 : 1층 380평, 법당 23평, 목조단청, 칠층석탑, 입불석조약사여래불,산신당, 용왕당, 종각, 요사채 2동
- 1층과 같은 반지하 : 150평, 방7개, 20평법당. 사용가능 욕실, 공양실
- 특징 : 성산일출봉과 바다건너 우도섬이 보이고 도로에서 절이 보이며 마을이300m정도 떨어져 있음
- 가액 : 4억 8천만원

011-858-8892 / 064)702-9982

##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 4층중 2층
- 방3개, 부엌1, 화장실1
- 법당 30평(총 7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814-9010

##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9-571-1732



#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신적 귀의처 됐으면

인터뷰 미얀마 선원 법당 마련해 준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정신적 귀의처를 제공하기 위해 기도와 정진을 이어온 산디마 스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쁩니다."

미얀마선원 산디마 스님이 법당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본지 '나눔의 손잡기' 면 기사(487, 491, 493호 참조)를 보고 서울 안국동에 한옥 한 채를 마련해 준 부산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

"1년 6개월 전 상좌와 같은 선방에서 공부하던 산디마 스님이 미얀마 부처님을 모셔와 여여선원에 모셨습니다. 그 인연이 이어져 미얀마선원이 16~17일 서울 안국동으로 이사할 수있도록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스님은 인연의 지중함을 강조하며, 누구든 해야 할 일을 묵묵히 대신해온 산디마 스님의 노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이 어려웠던 때 외국에 파견돼 노동자로 일했던 힘든 시절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와있는 동남아 외국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정여 스님은 "미얀마선원이 한국과 미얀마불교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한 몫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님은 "임시 거처를 마련한 것뿐이니 종단이나 스님, 불자들 모두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도, 수행 공간이자 휴식처인 미얀마선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금정복지관장으로 사회복지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정여 스님은 미혼모를 위한 공간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천미희 기자

## 차이의 벽 넘어 우린 모두 부처님 친구랍니다

### 외국인 노동자 돕기 문화 공연 · 바자회, 24일 조계사

"국가 · 언어 · 피부색 ·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벽을 쌓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는 부처님 법안에서 친구입니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기금 조성 목적의 문화공연과 바자회가 10월 24일 12시 서울 조계사에서 조계종 외국인 상담 지원센터 주최로 펼쳐진다.

종교를 초월해 문화공연을 하는 '문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오후 3시 조계사 마당 특설무대에서 한판 신명나는 무대를 마련한다. 바이올린 주자 유진 박과 가수 정수라가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주며, 북춤 현대무용 아카펠라 공연 등 외국인 노동자도 쉽게 즐길 한마당도 진행된다.

바자회에서 거친 수익금은 전액 외국인 법회 후원, 한글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외국인상담지원센터 서유미 간사는 "이번 행사는 외국인들을 돕기 위한 작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02) 2011-1965

강유신 기자

## 안양불교대학 이웃사랑

### 20kg들이 나눔 쌀 93포대 보시

경기도 안양 지장선원이 운영하는 안양불교대학(학장 현호)이 나눔의 이웃 사랑을 실천해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안양불교대학 학인들은 이달 초 안양지역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등 1백여 가구에 20kg들이 '나눔의 쌀' 93포대를 보시했다. 수혜자는 안양시 31개 동사무소의 추천으로 선정했으며, 전달은 안양운전불자연합회 회원들이 맡아 진행했다.

안양불교대학 학장 현호 스님은 "메말라가는 요즘 세상에 '나눔으로써 행복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조그마한 정성을 모은 것"이라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큰 자비가 되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 법보시용 책 100여권 보내와

강원도 홍천 천지사 청산 스님이 책 1백여권을 법보시용으로 본지에 보내왔다. 보내온 책은 직접 쓴 글을 모아 '길을 걸으며 도를 묻는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발행한 에세이집이다.

청산 스님은 "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요즘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라며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등불이 되고 마음에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불서가 필요한 교도소 · 소년원 법당이나 군법당, 학교 도서관 등에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봉영 기자

## 교도소 피아노 봉사자 찾습니다

공주교도소 불교반 합창단은 피아노 봉사를 해줄 불자를 찾는다.

현재 재소자 2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공주교도소 합창단은 주1회 혹은 월 2회 1~2시간 정도 찬불가를 지도하며 반주도 해줄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02)722-4162

##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보시중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을수 있습니다.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시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 (02)737-0090
팩스 (02)737-0697

## "어린이 ·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 어떻게 참여하나
-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온라인구좌/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좋은벗 풍경소리 (02)723-9836

## 나눔의 성금

한마음선원 강릉지원 신도 일동 – 1백32만4천940원
하와이 호놀룰루 장지원 보살 – 200달러(21만원)
부산시 이제권 50,000
이현이 50,000

**총누적금액 25,492,950원**

## 알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 스티커 및 저금통 신청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옛날어씨네 저금통- 5개, 스티커- 50장

경남 밀양시 내2동 해인불교사 저금통- 5개, 스티커- 50장

## 나눠드립니다

###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십시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 스티커 나눠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문의 : TEL 02)732-1522
02)737-8881
FAX 02)737-0697
▷ 가격 : 1Box(4.4×4.4) 4만원



귀불사도움주실분
턱,목,어깨,척추 허리 통증
곡등 S등 골반 짝다리 탈골
초중생 성장부진 체형교정(육진법)
단전호흡(기+요가) 기체조 명상
각종행공 원리교육 기공치료
활성교정법 고급지도력
명리 작명 풍수 등
011-817-3387 무극스님

60대초반 나이로 술과 담배를 절대로 하지 않는 독신남자로 사찰에서 차량운전과 사찰에서 처사로 할수있는 일을 저렴한 보시로 일할곳을 찾습니다. 운전자격은 1종 대형면허이며 지방사찰도 좋습니다.
031)326-1152
011-9573-4152

공양주 구합니다
시골 조용한 기도처
가족처럼 지내실분
▷ 지역: 경남
나이: 45~60세
017-553-5200

기도스님 (비구스님) 모십니다
▷ 30~50세. 부산 개운사
051)542-4848
011-551-1719

공양주 구합니다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할 공양주)
▷ 강원도 강릉
033)661-5878

어린불자들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인도할 신심있는 불자선생님을 모십니다
매주 일요일 10~12까지 20만원
▷ 인천 남구 문학동 수미정사
017-244-8128

역학무료
수강료 없음
▷ 기초부터 개업까지 책임지도
02)3453-0001

행자 비구니 나이에 관계없이 출가하실분
운전 할줄알면 더욱 좋습니다
031)582-0635
보향스님

조계사에서 한시간 이내 거리 산세수려한 천년고찰
공양주 구합니다
031)948-7700~1

역학에 관심있는 기도스님 모십니다
역학 관심있는 스님 수강생 모집합니다.
051)731-7393
010-9399-744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해운대, 출퇴근가능)

가족을 모십니다
천안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인덕사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지낼 보살님을 찾습니다
041)578-3565
010-7770-3223

천일기도 하실 비구스님 모십니다
011-696-8500

포교당 운영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 위치 : 광주공원 노인 복지회관 옆
062)673-6556

행자 구합니다
▷ 45세미만
031)769-555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기도 고양시
010-7739-0916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0-4816-5060

부산지역 사찰에서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9994-4125

충남당진 비구니 처소에서 송자인 비구니스님을 부주지로 모시고 공양주 50세 이상을 모십니다
010-3174-3869
016-635-0618

보살님이 운영하여 어려운 사찰중 행사시 「염불」과 「철학」하는 스님이 꼭 필요한 사찰 전화주세요
〈함께 運營 하실분도 연락바람〉
경남북 · 대구사찰
054)433-631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보현사
02)408-1368
010-3088-3133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61)244-148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7-260-3310

# 한국불교 '정체성'을 말한다

##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동아시아 불교사 속 한국불교' 국제학술대회

### 10월 23~24일 금강대서

동아시아 불교사의 맥락 속에서 한국불교를 조망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국제불교학술대회가 10월 23~24일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권탄준) 주최로 금강대에서 열린다. 금강대(총장 김유혁)로서는 개교 이래 첫 불교학 국제학술대회. 랭카스터 교수(미국 서부대 총장), 박노자 교수(노르웨이 오슬로대)를 비롯해 9개국 24명의 한국불교학 권위자들이 발제 · 논평자로 대거 참가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아시아 불교사 속의 한국불교'라는 주제로 치러지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16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이 가운데 14편이 해외 연구자의 성과물로, 한국불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담고 있어 학계에 신선한 자극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한국불교의 정체성'이다. 이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으로 버스웰 교수의 '한국적 불교전통의 부상', 조겐센 교수의 '16~19세기 한국과 중국불교 비교상의 제문제', 조은수 서울대 교수의 '보편성과 특수성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불교의 특성', 그리고 김상현 동국대 교수의 기조강연 '동아시아 불교에서의 한국불교의 정체성'이 해당된다.

이들 논문은 공히 한국불교를 통불교 또는 호국불교로 규정하는 입장들에 대한 비판 내지는 반성으로부터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귀결점은 상이하다. 다음은 이들 논문의 요지.

### 독자적 담화 성숙 안돼

**로버트 버스웰 교수**

근대 이전 한국의 불교도들은 '한국' 불교도라 여기기보다는 법맥에 따른 문중의 일원으로 간주하거나 한국을 범아시아적 불교 속에 편입시키려는 경향이 강했다. 인도 아쇼카 왕의 8만4천 부도탑 가운데 일부가 한국에서 발견됐다는 등의 주장이 한 예다. 이는 한국불교만의 독자적인 담화(unique narrative)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한국의 불교도 사이에서 '민족' 감정은 조선후기의 불교개혁운동 때 처음 나타나며, 최남선의 통불교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는 당시 일본 불교학자들의 자민족 불교 예찬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한국민에 대한 정서적 호소를 위해 '설정된 개념'으로 봐야 한다.

### '특징' 무시한 일반화 위험

**존 조겐센 교수**

한국불교만의 독특한 특징에 대한 모색은 내재적인 차이를 모호하게 하는 민족주의적 시도다. 이는 한국불교를 중국불교의 복제품 정도로 간주하는 일본인과 서구인에 대한 반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동기들은 정작 전통 내에 있는 다양성을 볼 수 없게 해 몇몇 위대한 인물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민중불교와 대중신앙을 무시하게끔 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특징들은 지속적인 변화 과정의 한 부분이므로, 이를 무시한 일반화는 특징을 변질시키기 쉽다. 그 특징들은 다른 조건이 변함에 따라 다른 역할은 갖는 것으로서, 특정 시간과 특정장소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 시대 · 문화 역사적 연구 필요

**김상현 교수**

버스웰 교수와 조겐센 교수의 지적은 한국불교 연구자들이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민족주의적 시각에 대한 비판으로서 의미가 있다. 통불교론은 한국불교의 다양한 특징과 역사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하지만 이처럼 민족주의적 시각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해서 한국불교에 대한 개별연구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정 시대의 불교를 이상화하거나 특정 인물을 한국불교의 대표자로 논하기보다는 시대별 과제와 문화적 특징을 역사적으로 살피는 자세가 요구된다.

### 다양성 속 전통찾기 바람직

**조은수 교수**

한국불교 성격 부재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비판 대상은 한국불교 성격 존재론자들이 특성을 고정적으로 생각해서 문화간 교류와 습합의 역동적 과정을 간과하는 데서 비롯된 문화 에센셜리즘의 오류다. 이 같은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특성을 찾기에 앞서 한국불교의 다양한 측면을 알아내고, 역사상 구현된 구체적인 한국불교의 전통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불교의 공통적 특성을 찾으려다 보면 전통에 대한 의식의 총체로서의 한국불교 전통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 날짜 | 시각 | 발제 및 강연 | 주 제 | 논평자 |
|---|---|---|---|---|
| 10. 23 | 13:00~14:20 | 로버트 버스웰(미국 UCLA)<br>조은수(서울대) | 한국불교 전통의 출현<br>보편성과 특수성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불교의 특성 | 권기종(동국대)<br>루이스 랭카스터(미국 서부대) |
| | 14:30~15:50 | 요코우치 히로토(일본 토다이지 도서관) | 고려 속장경과 일본 중세불교 | 존 조겐센(호주 그리피스대) |
| | | 헨릭 소렌슨<br>(덴마크 코펜하겐 불교학세미나) | 동아시아전통에서 살펴 본 고려시대 밀교의 성격 | 서윤길(동국대) |
| | 16:00~17:20 | 세르게이 볼코프<br>(러시아 성 티혼 종교학연구소) | 초기 중세시기 동아시아에서의 국가와 불교 | 김상현(동국대) |
| | | 존 조겐센(호주 그리피스대) | 16~19세기 한국과 중국불교 비교상의 제문제 | 헨릭 소렌슨(덴마크 코펜하겐 불교학세미나) |
| 10. 24 | 9:30~12:00 | 요르그 플라센(독일 보쿰대) | 중현의 법문 : 중국불교사의 흐름 속에서 살펴 본 화쟁사상 | 남동신(덕성여대) |
| | | 김훈(중국 북경대) | 불교의 중국적 전개와 고대 한국불교 | 찰스 뮐러(일본 토요가쿠엔대) |
| | | 최기표(금강대) | 〈대승기신론〉 수행신심분 주석에 나타난 원효와 법장의 영향관계와 인용태도 | 이시이 코세이(일본 코미자와단기대) |
| | 13:00~15:30 | 판카즈 모한(호주 시드니대) | 신라 중고기의 사리신앙과 왕권의 정당화 | 최연식(금강대) |
| | | 이시이 코세이(일본 코미자와단기대) | 의상 계통에서의 화엄과 선의 통합 | 요르그 플라센(독일 보쿰) |
| | | 진화 첸(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대) | 소그드계 중국승려에 대한 한국에서의 전기 |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
| | 15:40~17:20 | 모로 시게키(일본 하나조노대학) | 현장의 유식비량과 신라불교 | 김성철(동국대) |
| | | 찰스 뮐러(일본 토요가쿠엔대학) | 열 가지 경전을 통해 본 이장(二障)의 본질 설명 | 안성두(금강대) |

인터뷰

## "세계화 앞당기는 담론의 자리될 것"

### 권탄준 연구소장



"해외 한국불교학 연구자들은 사상적 고향인 한국불교학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소장 권탄준 교수는 국제불교학술대회를 준비하며 느낀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다. 국내 한국불교학계를 이끌고 있는 노장으로서 해외 연구자들을 위한 역할을 소홀히 해왔다는 자성과 이번 대회의 의의를 읽을 수 있는 말이었다.

한국불교 정체성을 주요 이슈로 삼은 이유에 대해 권 교수는 "한국불교의 성격 규정은 지나간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한국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토대"라며 "따라서 한국불교 정체성은 연구자들에게 화두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외 연구자의 발표를 들어봄으로써 내부자 시각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불교를 조망하는 기회를 가져보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교수는 국제불교학술대회를 주최하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에 대해 "설립한지 1년 남짓돼 아직 틀이 잡히지 않았지만, 장차 불교학계를 이끄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욕심을 감추지 않았다.

권 교수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를 국내외 불교학 연구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연구성과를 나눌 수 있는 상시적인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우선 연구논집 발행, 한국불교워크숍 등을 자주 열고, 국제학술대회도 격년으로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희종 교수의

## 불교와 생명과학 <51>

### 환원적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연기적 관계

오늘날 생명과학의 연구방법은 모든 대상을 잘게 잘라내어 부분으로 만들고, 그 부분들을 알아냄으로써 전체 모습을 파악하려는 환원론적 방법이 주를 이룬다. 그동안 이러한 방법이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사람들의 소외현상이 두드러지고 생태파괴와 같은 현상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과학이 대상(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 방식인 환원론적 방법의 근본적인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대상을 잘게 자른 후(자른다는 것은 형성되어 있는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것과 같다) 그것을 종합하면 전체의 모습이 보인다는 과학적 가정은 치명적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사람을 과학적으로 잘게 잘라 들어갈 때 사람은 장기가 되고, 세포가 되고, 유전자가 되고, 핵산이 되고, 탄소와 수소가 되고, 원자와 전자가 되고, 양성자 등의 소립자가 되고, 드디어는 약하고 강한 힘으로까지 도달한다. 하지만 이 과정을 역으로부터 합성해 올라간다면 어디서부터 인간이라 할 것인가. 사실 결론 내리기가 애매한 것이다. 이러한 면이 어디서부터 생명체로 볼 것이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다.

이렇듯 역으로 올라갈 때 각 단계에서 밑의 구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다음 단계가 나타나는 현상을 창발(emergence)이라 한다. 기존 부분의 합이 단순히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10이나 100이 되는 현상으로서 단순한 물리화학적 재료로부터 생명체가 나타나는 예나 진화상 인간의 인지능력의 출현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창발현상에 대해서 환원론적인 현대과학은 전혀 접근 방법을 모르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현대 과학이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관계'라는 점이다. 특히 창발 현상이 두드러진 생명과학에서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연기적 관계를 해체해 부분으로 만든 경우 다시 원래의 관계를 알아내어야만 하는 데 연기적 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선형적 관계가 아니다. 예를 들어 생명현상이란 여러 관계들이 모여서 나타나지만,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수학적인 합의 관계도 아니다. 이러한 작은 관계들의 모임(蘊)이 서로 관계하여 뭉쳐서 또 다른 새로운 체계

### 해체와 결합, 연기론 입장서 이해
### 생명현상과 관계 다루는 바른 자세

를 만들고 이 새로운 체계는 다시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체계에 대하여 역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로운 체계와 그것을 이루고 있는 작은 체계조차 서로 영향을 주면서 계속 변화하여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현상이야 말로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는 연기적 세계이며, 지금의 환원적 과학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다.

생명과학도 부처님 말씀처럼 몸을 이루고 있는 관계를 제대로 알아 고통을 겪게 하지 말자는 것이기에 찾아낸 물질의 원래의 기능도 알 수 없는 연구에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들의 합성과 다양한 관계를 밝히는 과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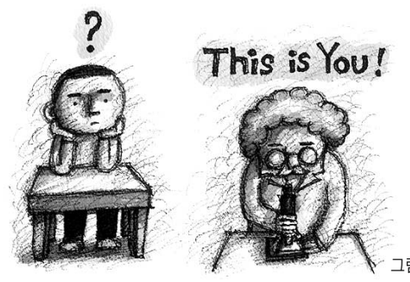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문의 : TEL 02)732-1522
02)737-8881
FAX 02)737-0697
▷ 가격 : 1Box(4.4×4.4) 4만원

천도재, 49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경면주사
(수비경면)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암사 055-882-3455
016-428-6665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명리주역 천도시식전문 상가영불 바라나비춤 용왕산신재 정안식 천도재49재 각종불공의식
각 행사 염불해 드림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범패의식
천도재 수륙재 산신재 점안식 바라춤 나비춤
행사에 염불해 드립니다
무진 051)468-7374
합장 018-523-7374

바구니스님이 만든 야생오미자차
高山에서 자생하는 오미자
기관지,천식,간장병,신장병
쉽게 피로하며 잘 붓는 사람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슈잔드린 함유
055)345-6667

역학개인지도
사주에 필요한 모든것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밝은미래를 여는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神 비법 강의
요즘 불사 어렵죠. 초종파 불문하고 무조건 찾아오세요. 이곳에 선지식 1분 계시니 속지 않을 겁니다. 우주법계가 자신속에 있지만 모르면 道 아니다.배우고 나면 누구나 훌륭한 道人이 되어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해용사 석담 법경 합장
● 강 의 : 매주 월 화 수 10시 30분부터~17시 30분 까지 5시간 강의
● 연락처 : 055-573-7832 / 010-3189-3525
● 농 협 : 801175-52-023491 예금주 - 김청수(법경)
● 주 소 : 경남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330번지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행자모집
신산유곡의 조계종 전통사찰 참선수행도량으로 출가할 뜻이 있는분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011-9221-129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011-9571-6479

명리 · 육효공개강좌
● 강의 듣고 수강신청 : 초보, 주야반
● 특수비법 : 영가찾는 법, 개운법, 신살암기법, 쉬운 오행비법, 초보자도 들으면 기억됨
백세 역리원(신사역 6번출구) ☎ 02)542-8404
011-9150-2284

이십팔숙 개인지도
● 사주와 이십팔숙의 특수비법 쉽게 통변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지도 : 대주스님
HP : 011-741-0867 ☎ 02)926-1259

21C는 불교로 간다! 전국 제 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감포도량, 뉴욕도량, 서울도량
▶신입생 주, 야간반 모집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일반신도교육, 조계종포교사배출기관
- 도심속7층대법당, 최첨단시설
▶행자(예비스님, 남녀) 모집
- 행자원있음(엘리트 스님양성 - 40세 이하, 고졸이상)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우학스님('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직접지도합니다.
문의 : 011-9852-0075
053-474-8228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운세 10초내에 맞추면 수강신청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똑같은 사주라도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일이 없습니다. 조상의 흐름을 찾으세요.
http://www.speedunse.com에서 핸드폰 · 카드결제됨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발명특허 (주)황토만세 웰빙황토
氣
● 사찰암자토굴법당제작 및 리모델링
● 황토방 팔각정 가정찜질방 원두막 흙집
※ 전국출장상담
〈주〉황토방주택사업부
전국시도 영업소 및 남녀 영업사원 모집 017-409-9599

## 일주문



### 청소년육성대상 추천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현성 스님은 최근 2004 대한민국청소년육성대상을 제정하고, 10월 20일까지 추천을 받는다.(02)2667-0471



### 직지사 천불부처님 개의불사

김천 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은 10월 28일 오전 9시 경내 천불전에서 천불부처님 개의불사 점안식과 관등법회를 봉행한다. (054)436-6174



### 광주신행단체장 간담회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혜향 스님은 10월 12일 사암련 불교회관에서 '광주신행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매월 한 차례 정례화하기로 했다.



### 자원봉사단 창립법회

경북 성주 선석사 주지 선문 스님은 10월 17일 이웃과 하나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단 창립법회와 산사음악회를 열었다.



### 광주종교인평화음악회

광주종교인평화회의 공동대표 광민 스님은 10월 19일 무각사 야외특설무대에서 '제5회 광주종교인 평화음악회'를 개최한다. (062)376-3233



### 자비의 일일찻집 개최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소중한 합창단장은 10월 19일 광주 연다원(무각사 內)에서 독거노인돕기 '차한잔에 자비 일일찻집'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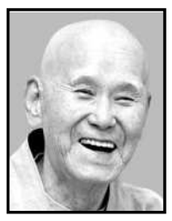


### 日서 관음도 주제 개인전

도예가 임남재 씨가 10월 22~24일 일본 청삼시 메주리 화랑에서 관음보살도 등 30여 작품을 선보이는 개인전을 갖는다. 011-337-1134

## 육주당 호명 스님 12일 입적

### 14일 통도사서 영결



10월 12일 통도사 시탑전에서 입적한 육주당 호명 스님(사진) 영결식이 영축총림 통도사 산중장으로 14일 시탑전에서 봉행됐다.

법랍 66세, 세수 90세로 입적한 호명 스님은 1938년 원통사에서 포응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87년 이후 재가불자들의 공부모임인 공심회를 지도하는 등 법문을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후학들을 이끌어왔다.

스님의 49재는 초재(18일) 통도사, 2재, 3재 조계암, 4재, 5재는 영명사, 6재, 7재는 통도사에서 열린다. **천미희 기자**

## 무비 스님, 정각 · 무애 스님에 전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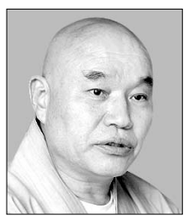
여천 무비 스님 전등강맥 전수법회가 10월 20일 오후 2시 범어사 보제루에서 열린다.

범어사에서 전강 법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법회를 통해 무애 스님과 정각 스님이 무비 스님의 강맥을 잇게 됐다. 월정사 탄허 대선사로부터 강맥을 이어받은 무비 스님이 전강법회를 연 것은 2년 전 송광사에 이어 두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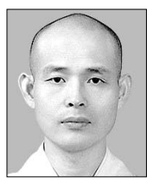
이날 강맥을 전수받게 된 전강제자 무애 스님은 86년 해인사에서 출가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대만 불학연구소에서 5년간 불학을 연찬,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학했다.

또한 정각 스님은 86년 송광사에서 출가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바라나시 힌두대학 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동국대 객원교수로 활동 중이다.

무비 스님은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대강백으로 능허, 현진, 용학 등 9명의 전강제자를 두고 있다. **천미희 기자**



무비 스님



정각 스님



무애 스님

## "한 · 일 두나라 상생 모색하는 자리"

### 국제 심포지엄 여는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홍윤식 소장



"상생은 서로를 정확히 보고 이해하는데서 시작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관계를 이뤄 나가야 합니다."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홍윤식 명예교수(사진)는 상(공)생을 통한 한국과 일본의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21세기 한 · 일 간의 상생(공생)을 위한 諸문제'를 주제로 제36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10월 30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홍 소장은 "상생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화두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아직도 지구 곳곳에서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 경제 · 종교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 일본 · 독일의 학자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진정한 상생의 의미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심포지엄은 한국 측에서 고영섭(동국대), 김도형(계명대), 김영필(아주대) 박사, 일본 측에서 이시가미 젠오 교수, 독일 루드비히 막시밀리안대학 롤란드 피취 교수 등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우리는 일본에 고대문화를 전수해 줬다는 의식이 강하고, 일본은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는 오만함이 있다.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서로의 편파적인 모습을 지양하고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2260-3512

**조용수 기자**

## 고국 스님 초청법회 자주 열터

### 홍콩 한일불교협회 서병길 회장



"외국에서 불자로서 신행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말 신심이 있지 않으면 대부분 개종을 하는 상황이지요."

전국체전에 참석하기 위해 홍콩 선수단을 이끌고 10월 8일 한국에 온 서병길 前 홍콩 한인불교협회회장(47, 전국체전 홍콩선수단 단장 · 사진)은 홍콩 불교계 교민들의 사정을 이렇게 전했다.

서 회장은 "현재 홍콩 교민은 약 6천여 명인데 이중 불교인은 300명 정도며 그러나 불자들의 신행활동은 매우 미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콩한인불교협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운영위원회 조직을 갖추고, 한국에서 스님을 모셔와 법회를 보고 있다. 법회는 초하루 보름 법회, 수요일 거사님을 위한 법회, 월 1회 어린이 법회가 진행된다. 또 지난달부터는 홍콩 중심가 아파트를 개조해 마련한 홍법원 개보수 공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배지선 기자**

## 컴퓨터그래픽 사용 기법 세련

### 제20회 불미전 대상 어수경 씨



"지난해 미국에서 공부를 끝마치고 돌아와 조계사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본 사찰의 느낌을 텍스타일 공예기법으로 구성한 것이 바로 이번 작품 '반야심경'입니다."

10월 11일 제 20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어수경 씨(35 · 사진)는 자신의 작품 제작 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김병호 서체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디자인한 어씨의 '반야심경'은 넓은 천에 경전 글자를 촘촘히 새겨 넣었다. 이번 불교미술대전에서 다소 열세에 있는 공예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도 바로 어씨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기법 때문이다.

어수경 씨는 서울여대 공예과를 졸업한 뒤 2000년에는 하버드대학 도시계획과 디자인과정, 2003년에는 메사츄세츠 칼리지 오브 아트 섬유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어씨는 조선대 미술과에서 공예를 강의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 법흥왕에서 월산 스님까지 추모

## 불국사 신라불교문화 영산대재 성황




경주 불국사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32회 신라불교문화 영산대재를 봉행하는 모습.

불교를 국교로 승인한 신라 법흥왕, 불국사 초대주지 표훈대사, 전생부모와 현세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창건한 김대성재상, 불국사 복원에 나선 박정희 전대통령, 선원 강원을 세워 명실상부한 수행처로 격상시킨 월산 스님.

이들 다섯 분의 추모재가 호국영령 및 선망영가를 위한 천도의식, 그리고 예술제와 함께 봉행돼 돌아가신 조상과 살아있는 후손들의 축제 한마당으로 10월9일 불국사(주지 종상) 범영루 광장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불국사와 경주시(시장 백상승)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 32회 신라 불교문화 영산대재(이하 영산대재) 개막 법요의식은 풍성한 공양물 앞에 다섯 분의 커다란 진영을 모시고,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 중앙종회 부의장 법조 스님과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과 말사 주지스님들, 경북도부지사, 경주시장 등 기관장과 신도 등 2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장엄하게 진행됐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법어에서 "이러한 대자비의 원력이 지구촌 곳곳에 퍼지고 심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기원하고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주지 종상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처님의 영산회상을 재현하는 오늘 우리들은 불국정토를 이루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 부산불교련, 사명대사 394주기 추모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는 10월 9일 초읍 어린이대공원 사명대사 동상 앞에서 홍제존자 사명큰스님 제 394주기 열반일을 맞아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대성스님, 부산불교연합회 부회장 혜총 스님 등 사부대중 3백여 명이 동참했다.

# 마애불 천년미소 한자리서 감상

### 고영배 기자 '…경주 남산展'

### 11월 13일까지 강화 전등사



본지 고영배 기자(사진 왼쪽)가 전시회에 선보인 작품들을 설명하고 있다.

골마다 세워진 수많은 불상과 불탑들로 지상의 불국토라 불리는 경주 남산. 그 남산의 불상을 소재로 한 고영배 기자(본지 사진기자)의 '부처님의 숨결, 경주 남산 사진展' 개막식이 10월 9일 강화 전등사(주지 계성)에서 열렸다.

'칠불암 마애삼존불' '신선암 마애관음보살상' '미륵골 마애여래좌상' 등 경주 남산에 산재한 불상 20여 위의 사진을 선보인 이번 전시회는 주말 가을 산사를 찾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히 '남산미륵곡석불좌상(보물136호)'의 사진은 자비로운 미소를 고스란히 담아내 경탄을 자아내게 하고, '신선암마애보살반가상(보물199호)'의 사진은 보는 이로 하여금 구름 위에 올라 있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전시회는 11월 13일까지 계속된다. (032)937-0125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목조건축물
(보수. 복원. 보존)



목조 건축물의 문제점
특히 곰팡이, 해충, 가루나무좀벌레, 흰개미
목재부식, 기와방수 이 모든것을 해결합니다.
저희 동화특수산업(주)은 목조 건축물을
과학적으로 보존에 임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
- 흰개미 방제 시스템
- 가루나무, 좀벌래살충
- 목재 복원 시스템
- 목재, 석재, 기와발수제
- 곰팡이 이끼 제거제
- 목재 전용(부식)방부제
- 기타 공사
- 목재 방염 공사

www.dongwhaind.co.kr
동화특수산업(주)
본사/공장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27-1
TEL. 031)451-6232 (代) FAX. 031)451-6238
HP. 011-747-2111

부처님이 광명으로 나투시어 감로법비가 내리고 있는곳
동해사



감로법비의 신비스러움을 지금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법비기간 : 양력 10월 12일 ~ 11월 2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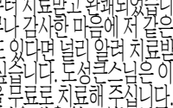


세가지 소원중 한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는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감로법비도 맞으시고
기도로써 소원이루어 보세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동 해 사 주지 혜명 합장
033-672-2900
▶ 동해사에서 낙산사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 바닷가 방생지 5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궁중비법 사주명리 학인모집
(구, 성수철학원)
본 학회는 궁중비법 사주명리 연구로 전국 최대의 회원 양성 기관이며 현재 각지 200여곳에서 회원님들이 성황리 활동중이며 특히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육기관으로써 처음 배우실분, 해도해도 안되는 분을 위하여 1개월(주간)/3개월(야간,주2회)수강하시면 완벽한 비법으로 눈치볼 필요없이 100% 책임보장. 개업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본학회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시행
합격자에게는 자격증을 수여함
안 내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기간 :
◆ 1개월 완성반(주간, 월 ~ 금)
◆ 3개월 완성반(주, 2회)
Ⓐ 월 · 화반 Ⓑ 수 · 목반 (시간 : 오후 7~9시)
● 지도교수 · 강사 : 백운 성수(본학회 회장)
대각 스님(금강불심원) 백궁, 봉계, 도영
● 교육장소 : 본 학회 2층 강의실(최고시설완비)
※ 무료특강 10월 5일(화) 저녁 6시 30분
※ 금강불심원(본 학회 직할) 대각스님(053-425-7875)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문의 : TEL 02)732-1522
02)737-8881
FAX 02)737-0697
▷ 가격 : 1Box(4.4×4.4) 4만원



저는 조계종의 혜담스님 입니다. 23년간 수행하였습니다. 기도 중 신병을 얻어 병원에 반년 간 입원하며 거의 2년간 고생하다가 우연히 경기도 안성의 도성사 도성큰스님으로부터 치료받고 완쾌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다면 널리 알려 치료받게 하고 싶습니다. 도성큰스님은 이런 신병을 무료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안내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016-562-3533

불사 도움주실분
턱, 목, 어깨, 척추, 허리
골반, 통증, 짝다리
기공 조정, 활법(육진법)
무극스님
011-817-3387

조계종스님 설립 도시교통 중심지 90평 포교원을 투명하게 평생동안 관리 운영할 비구, 비구니 스님이나 아니면 은사스님을 섬기며 운영 관리할신의있는 비구 건당 상좌를 원함.
그리고 40~50대 공양주 구함.
부산설법원으로 연락.
051)441-1430
054)653-1180
지장보궁 내원암

천일기도 스님이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43세 비구
017-515-7527

기도스님 모심
조계종 도심포교원에서 기도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0505-200-2233



불자 세상보기

황 진 수

한성대 행정대학원장

# 21세기 교육 모델

독일의 교육제도는 우리와 상당히 다르다. 국민학교(Volksschule)가 4년 과정이고 이 과정이 끝나면 인문학교인 김나지움(Gymnasium)과 직업학교인 레알슐레(Realschule), 하우프트슐레(Hauptsschule)로 나뉜다. 인문학교에서는 학문연구나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기초부터 배우고, 대개 법대, 의대, 상대, 기초과학관련 대학으로 진학한다. 또 직업학교에서는 페인트칠, 자동차 수리, 목공 등 실제로 생활에 필요한 분야의 기초와 실기를 배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인문학교에 진학하는 사람이 21% 내외라는 것이다. 인문학교와 직업학교에 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국민학교 4학년 담임교사에게 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하여 중2, 고2 때 학교를 바꾸는 제도로 보완하고 있다. 직업학교의 학생이 인문학교로 바꿀 때는 한 학년 내려서 손님학생(Gastschuler)로 간다.

독일의 교육제도가 갖는 특징은 정부가 학생이 어릴 때부터 직업선택과정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으로, 직업에 필요한 학교교육은 중장기적 입장에서 인력수급을 조절한다는 측면이 고려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인문과학 분야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의 인력자원을 조절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직업학교를 나온 사람도 마이스터(Meister)가 되면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인정되고 수입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의 대학이 전국의 고등학교를 내부적으로 등급제 형식으로 차등화하고, 이 기준을 가지고 수시입학성적에 반영하였다 하여 시끄럽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학들이 음성적으로 등급을 나눔으로써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대학간 경쟁체제에 돌입해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학생 선발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국가의 우수인력 수급차원에서 다시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어느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는가이다. 극단적 자본주의적 시각인 소셜다위니즘(Social Darwinism)적 시각에서 최우수의 두뇌를 선별하고 이를 잘 교육해서 이 나라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두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적 평등의 개념에서 모든 학교를 평준화하고 평준화된 지식과 기술의 바탕위에서 전 국민을 잘 살게 할 것인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도 함정은 있다. 첫 번째의 우수한 두뇌는 만들어진다 또는 부풀려진 내신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는 가설이 그 하나이고, 전 국민의 평준화는 전 국민의 하향평준화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가장 많이 바뀐 것이 교육정책이고,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전 국민이 전문가 수준에 와있기 때문에 다들 한 마디 할 수 있는 입장이다.

그런데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관하여 정부의 간섭이 너무 많다.

정부당국의 교육현장에 대한 간섭은 일제 식민지 때 총독부에서 학교 간섭하던 때보다 더 심하다 볼 수 있다. 대학 신입생 선발과정, 학과신설과정, 학과증원과정, 편입생을 뽑는 과정 등에 교육당국이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한다.

이제 국민소득 1만불 시대, OECD에 가입한 나라답게 교육현장은 대학당국에 맡겨줘라. 정부는 중·장기적 인력수급정책에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대학 스스로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21세기의 교육모델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2001년 처음으로 시행된 조계종 3급 승가고시가 올해로 4회를 맞았다. 그동안 승가고시에 합격하여 고시산림을 마치고 중(정)덕 법계를 품서한 스님들은 1000명에 달한다.

처음 승가고시를 시작할 당시의 우려와는 달리 대부분의 스님들이 수희동참하여 고시산림이 원만히 시행되고 있다. 이는 종단의 구성원들은 물론 신도들과 사회 일반에서까지도 종단의 미래에 희망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일이라 할 만하다.

승가고시산림이 실시된 이후 통과의례적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으나 회를 거듭하면서 평가방법이 강화되고 산림의 체계도 보완되면서 탈락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종단과 고시위원회가 엄격하게 수행질서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증거다.

올해도 지난 번 고시산림을 보완·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가장 주의가 집중되는 고시과목인 조계종의 소의경전 <금강경>을 공통과목으로 하고, 나머지 선택과목을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이번 고시산림에는 새로이 갈마 단계에서 수행평가, 산림평가 등도 평가 점수화 되는 것도 눈에 띈다.

### 3급 승가고시 강화 의미

3급 승가고시의 응시자격은 승납 10년 이상인 비구(니)다. 이를 통과하면 비구는 중덕, 비구니는 정덕법계를 품서하고, 말사주지와 본사 칠직과 상좌를 둘 수 있는 스승의 자격이 주어진다. 실질적으로 교계 지도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는 대단한 책임과 엄정한 위의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당연히 초발심의 굳은 뜻을 되새겨야 한다. 따라서 3급 승가고시는 출가할때의 초발심을 다시 돌이켜 보는 기회도 될 것이다.

고려시대 보조·태고·나옹 등과 조선시대 서산·사명·기허 등 한국불교의 중추를 이뤄 왔던 스님들이 모두가 승가고시를 통하여 수행가풍을 진작시켰던 역사를 이어가자. 이번 고시산림을 통해 눈 밝은 청풍납자들이 배출되어 불교의 미래를 더욱 빛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아울러 종단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3급 승가고시 뿐만 아니라 4급·5급 승가고시도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하며, 교육 강화를 위한 심도 깊은 연구활동의 지원과 안정적인 시행 방안들이 채택돼야 할 것이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

## 이렇게 들었다 역사 모르는 고교생들

범부들은 소견이 잘못된 까닭에 사견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직 어리석은 짓만을 생각해 무익한 일을 구한다.
〈점수일체지덕경〉

우리나라 고교생 3명 가운데 1명은 '한민족의 첫 국가는 고구려'로 꼽고, 4명 중 1명은 '한국이 사용한 문자는 한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이 전국 고교생 1052명과 재일교포 고교생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확인된 결과다.

고구려사와 발해사에 대한 이해도도 극히 낮게 나왔다. 173명(16.4%)은 9세기에 고구려에 버금가는 영토와 문화를 이룬 '해동성국' 발해를 당나라의 속국으로 답했고, 15.1%(159명)는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잘 모른다'거나 '확실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재일교포 고교생들의 한국사에 대한 왜곡된 이해도 단적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2명은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10명 가운데 3명은 동해의 영어 표기가 'Sea of Japan(일본해)'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이 결과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을만하다. 충격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역사를 배우는 것마저 개인의 선택에 맡겨버리는 무책임한 교육풍토에서 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우리 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역사는 흔히 '뿌리'로 통한다. 오늘의 바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자명하다. 역사의 소중함을 깨달아 제대로 된 교육을 하면 될 일이다.

■박봉영(취재부 기자)

##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 창간 10주년을 축하하며

'현대불교'를 구독한 지는 9개월여에 불과하지만, 조계종 기관지라 할 BK신문과 또 다른 BB신문 등과 비교하다보니 현대불교신문의 참신성과 발랄함이 거의 독보적으로 느껴진다. 특히 생활불교, 실천불교, 현장불교, 젊은불교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불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통한 활발한 포교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다른 신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활발한 의견 개진이 거의 없거나 극히 소수에 불과한 반면, '현대불교'의 홈페이지는 그야말로 온라인 법석이 시끌한 것을 보면서 살아있는 불교 언론매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그동안 타종교에 비해 대중매체에서 너무 뒤지고 있다는 불만이 항상 뇌리를 감싸고 있었던 중 뿌듯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붓다뉴스>를 보면, 기사란을 비롯해 '단소리 쓴소리' '자유게시판' '이 기사는 논쟁중' 그리고 '기자 커뮤니티'를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기자 커뮤니티에는 총 4천여건의 글이 올라 온갖 온라인 법석을 펴고 있는 것 같은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는 하나의 글의 클릭수를 150여회로 잡아도 62만명의 방문자가 거쳤다는 추리가 가능해 엄청난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붓다뉴스>의 이렇게 활발한 모습은 정체되고 침체된 불교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바꾸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한가지만을 놓고 보더라도 '현대불교' 창간 10주년이 가져다준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현대불교'가 한국불교의 오랜 과제인 어린이, 중·고교생, 대학생 등 젊은 불자 양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으면 한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생생한 소식을 전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한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특히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과 병폐를 과감히 들춰내어 보다 투명한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현대불교'가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

도원(붓다뉴스)

### "불필요한 것 많이도 지녔구나"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자신을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입산 때의 무거운 짐은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산을 내려왔다.

처음 일주문을 들어서면서 숙제가 풀어질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면서도 이 문을 다시 넘을 때는 무거운 짐이나마 풀 수 있을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가졌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과연 지금 이 일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과 결과를 지레짐작하기도 했다. 특히 담당스님들의 어색한 진행과 피교육자들의 의사가 무시되는 환경에서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을 듯 했다.

몇 번의 환속(?) 고비를 넘기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절박감과 주변 분들의 애정덕분에 마지막 과정까지 마칠 수 있었다.

돌이켜 보건대, 가장 큰 공부는 대중생활과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 감정이었다. 각기 다른 남행자 26명, 여행자 26명이 사회의 습관대로 목소리를 내니, 웃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정들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것을 참 많이 지니고 있었음을 알았다.

불필요한 생각,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행동들. 멈추어야 한다 하면서도 막상 왜 그리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말하기 전에 대신 못했는지….

단순한 생활 속에서 단순한 나를 만드는 것도 공부였다. 지난 세월의 간판들이 눈멀게 했고 목소리만 높이는 모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잔잔함은 평온함을 주었다. 이 평온함은 고개를 숙이게 했다. 바쁜 일상에서 잃었던 내면의 즐거움을 주었다. 모난 언행으로 조심스럽게 살아도 힘든 세상을 만들었던 내 자신을 돌아봤다. 모난 것을 갈아 둥글게 살아야 한다는 것, 하루를 살건 백년을 살건 즐겁게 살아야 겠다는 다짐을 해보았다. 한 스님은 이것을 탁마(琢磨)라 했다.

새삼 '부처님 가르침이 귀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준 월정사에 감사 드린다.

우성(평창 월정사 단기출가자)

## '현대'만평 심 민 섭





##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 禪 카이로프락틱, 제3기 교육생 모집

**1. 설립취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구제와 더불어, 주며 베푸는 떳떳한 스님을 양성키 위해 실력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는" 유능한 카이로프락터로서의 정통교육에 힘쓰고자 설립함.



**2. 교 과 목 :** 1) 카이로프락틱(허리, 어깨, 골반, 경추등 척추교정술) 이론 및 실기
2) 해부학, 근육학, 운동처방학
3) 경락, 스포츠 맛사지
※ 미국 팔머대학의 교재로 확실히 강의함

**3. 교육기간 :** 1) 2급과정 2개월(총 108시간)
2) 1급과정 1개월(총 54시간)

**4. 지원자격 :** 학력 경력 제한없음

**5. 입학일시 : 2004년 11월 11일(목) 13:00**

본 원에서 1, 2기생을 모집, 교육을 하면서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신 스님과 불자님들의 열성적인 반응 때문이기도 했고, 각자의 절절한 사정들을 접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다소의 애로는 있지만... 미력하나마, 본 연수원 나름대로 꾸준히 노력하고 誠心誠意를 다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6. 원서교부 및 접수 : 본원 교학과 042)635-8186, 8187**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41-14 호산빌딩 內

사단법인 정토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Btn 불교TV

10월 25일!

불교TV가 확 바뀝니다.

불교TV 가을개편

신행/교양

- 휴먼디큐 아름다운 사람들
- 구본일의 명상태교 명상육아
- 특선 다큐멘터리
- 절로 가는 길
- 명상음악산책
- 우리시대의 장인
- 한국의 명찰
- 역사드라마 제왕의 길

포 교

- 산중대담 선지식을 찾아서
- 영어법문 디스커버링 부디즘
- 심야특선 다시 듣고 싶은 법문
- 부처님 경전이야기

강좌/교육

- 왜 지금 붓다와 노자인가?
- 혜정정사의 밀교수행강좌
- 체험! 붓다의 수행법 위빠사나
- 왕초보도 따라하는 불교예절, 불교상식
- 손경락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건 강

- 佛家秘傳修行 선무도
- 불교TV 메디컬 건강이 최고

www.btn.co.kr



'공동체를 생각하는 남해사람들' 회원(가운데가 대표인 효천 스님)들이 남해읍 동천계곡에서 천연 염색한 천들을 널고 있다. 이 천들로 복지원 노인들의 옷을 만들 예정이다.

# '新 율도국'의 꿈 남해에서 엽니다

## '공동체를 생각하는 남해사람들'

너무나 푸르러 쏟아질듯 높디높은 남해 화방사(주지 효천)의 가을 하늘. 졸졸졸 흐르는 맑은 시냇가. 개울가 주변엔 두 개의 가마솥에 물이 펄펄 끓고 열 명 남짓한 아낙네와 남정네들은 분주히 뭔가를 하고 있다.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등성을 누빈 효천 스님의 승복도 땀에 흠뻑 젖었다. "보소 마! 수련회라도 열렸는교?" 그 길목을 지나는 시골 아낙의 사투리 섞인 질문이 정겹기 만한 가을날의 여유다. 반나절이 지났을까? 황토 · 감 · 숯 · 토란 등으로 천연 염색된 형형색색의 옷감들이 김이 펄펄 나는 가마솥에서 국수가락 뽑아지듯 쏟아져 나온다.

"스님예, 요번엔 숯 염색이 참 잘 돼서 스님 승복하고 복지원 할머니들 조끼좀 지어 드릴까 합니더"라는 한 아낙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두들 "그라입시더"라며 웃음 짓는다.

10월 3일 '공동체를 생각하는 남해사람들(이하 공생남사모)'의 월례모임 풍경이다. 공생남사모는 지난 1997년 열 명의 남해사람들이 '다양성과 상생.' 그리고 '인간과 자연, 생명문화'라는 공통의 화두를 들고 모인 단체다. 이들에게 종교와 사회적 지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지역사회 발전과 참다운 공동체 문화를 뿌리내기 위해 뭉쳤다. 지금 그들은 남해에 '공동체 마을 만들기'라는 원대한 꿈을 일구고 있다. 청소년 · 노인복지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효천 스님을 대표로 16명의 회원이 일심동체가 돼 지역문화운동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보헤미안 스타일(자유분방한 인간형)을 지향하는 '공생남사모' 회원들의 장기는 그야말로 다양하다. 정주한(42 · 공생남사모 사무국장) 씨는 전직 교사로 모임의 핵심 브레인역할을 맡고 있다. 문찬일(42 · 미담한정식 대표) 씨는 6년 전 호기심으로 장승깎기를 배웠지만 실력은 수준급. 독실한 불교신자인 하향례(51 · 화방복지원 과장) 씨는 독학으로 천연염색을 배워 직접 천에 물을 들이고 옷도 손수 지어 입는다.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박소은(소은 피아노학원장) 씨는 소아마비 환자지만 현재 피아노학원을 운영. 또 남해신문 기자로 활동했던 김상명(42) 씨는 일명 '바닷바람 맞은 녹차밭' 가꾸기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또한 소수정예로 활동하고 있는 공생남사모의 회원모집방법은 신라의 화백회의에서 가져왔다. 열심히 일할 준비된 자세는 물론 이타심을 겸비한 사람으로 가입시 회원모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선출한다. 이

*종교·지위 떠나 상생의 문화 위해 한마음*
*일·놀이, 노동·예술 어우러진 공동체 구현*
*천연염색 ·녹차밭 가꾸며 무주상보시 펼쳐*

때문에 이름만 적을 두고 유명무실하게 활동하는 사람은 아예 입회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공생남사모는 철저히 실천에 주력한다.

이처럼 직업과 종교도 제각기 다른 이들이 남해군에 농업, 환경, 생태, 문화의 씨앗을 뿌려 이 지역을 일과 놀이, 노동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전통 두레정신을 꽃피울 '신(新) 율도국' 건설이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쪽빛 남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남해읍 망운산 자락에 향후 10년 안에 '신 장경각'을 건립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신 장경각 사업'이란 남해에서도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는 설을 근거로 '제2의 장경각'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세미나 '팔만대장경 그 흔적을 찾아서'를 개최, 역사를 고증하고자 하는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공동체 마을의 전초기지로서 문화관광기지, 유기농 농사를 짓는 생태마을, 민속마을, 녹색산업기지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 마을'을 세우겠다는 이들의 원대한 꿈이다.

효천 스님은 "불교의 무주상보시 이념으로 노인복지에 앞장설 것이며 생태유기농업과 녹색산업(차밭 조성, 화훼농장 등)을 기반으로 재정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노인복지의 르네상스를 활짝 꽃 피우겠다"며 공동체 마을이 그 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스님은 친환경개발을 원칙으로 공동체 마을이 조성될 망운산 일대의 자연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의 활약상은 그 지역 중 · 고등학교에서 실감할 수 있다. 공생남사모의 '유기농사 · 천연염색 · 짚풀공예 체험 교실'은 학생들에게 먹거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그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것은 단연 천연염색 물들이기란다.

공생남사모의 활동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앵강만 지역의 '생태보존 지킴이'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한려수도의 마지막 청정지역인 앵강만을 지키기 위한 '앵강만 살리기 운동'이 바로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일반인과 청소년 ·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동체여름학교(산사생활체험, 산악등반 극기 훈련, 명상)도 운영하고 있다. '산사문화를 이해하고 명상을 통해 자기를 바로 보는 시간을 가져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자는 계기가 됐다'는 남해군민들의 평도 호의적이다. 화방사 채진루에서 매년 개최되는 '숲속생명사랑 산사음악회'의 반응도 매우 좋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 군민과 관광객이 더불어 추억거리를 만드는 장(場)인 이 음악회가 이제는 기다려지기까지 한단다.

이처럼 공생남사모는 남해군을 넘어 우리나라 전역으로 에코(환경)와 디지털이 결합되는 녹색 환경과 '상생 공동체 이념'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공생남사모는 10년 후 그들이 꿈꾸는 '공동체 마을'의 청사진을 그려가며 매일 아침 남해 앞바다에 신 율도국으로 가는 돛단배를 띄우고 있다.

남해=노병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천연 염색된 옷감을 가마솥에 삶고 있다.



공생남사모 주최로 지난해 화방사에서 열린 산사음악회.




청소년 대상 여름학교도 열어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요 일 | 시 간 | 법 회 명 | 강의내용 |
|---|---|---|---|
| 매주일요일 | 10-14시 | 일요가족법회 | 자경문강의 |
| 매주수요일 | 10-15시 | 목련사랑법회 | 화엄경강의 |
| 〃 | 10-15시 | 수능자녀기도 | 〃 |
| 〃 | 10-15시 | 지장경독송회 | 〃 |
| 매주목요일 | 10-15시 | 대비주기도회 | 예참문강의 |
| 셋째화요일 | 14-17시 | 부산 · 동선회 | 주제별특강 |

◆ 특별기도

2005학년도 수능특별기도 :
2004년8월 8일-11월 17일(만101일간)
기도성취도량 우리절에서 마음에 뜻하신 바 반드시 이루십시오.

금주의 발원 [然後願]

원하옵고 원하옵고 다시한번 원하오니 위가없는 바른깨침 한꺼번에 이루옵고
항하사수 모든법계 한량없는 불자들이 법계내의 모든중생 두루제도 하옵시며
연꽃으로 꾸며놓은 진리바다 배띄우고 부처님의 크신은혜 남김없이 갚사옵고
깨달음의 대도량에 산책하게 하옵시며 불자로서 그사명을 이행하게 하옵소서
화엄회상 불보살님 언제든지 만나뵙고 몸을바꿔 태어나는 세세생생 모든시간
부처님의 크신광명 언제든지 받사오며 언제든지 보살도를 닦아가게 하옵시고
한량없는 중죄장은 한꺼번에 소멸되고 마침내는 일체종지 살바야를 이루어서
한량없는 큰지혜를 모두얻게 하옵소서 마하반야 바라밀로 회향하게 하옵소서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정목 스님이 말하는
## '원효의 염불선' <12>



### 칭명·관상 통해 얻는 염불삼매

염불삼매는 칭명과 관상을 통해 얻는 삼매를 통틀어 말합니다. 대개 관상염불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을 관불삼매(觀佛三昧), 칭명염불에서 아미타불의 자비광명에 대해 진실한 믿음을 성취하는 것을 염불삼매(念佛三昧)라고 합니다. 염불삼매는 일심칭명 하는 염불로써 자신이 바로 무량한 자비광명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끊이지 않는 심적 상태입니다. 믿음이 깊은 염불삼매를 얻으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염불 소리가 자연히 나옵니다. 믿음 깊은 염불삼매를 통해 자비광명에 대한 결정신심(決定信心)을 성취합니다.

염불삼매로 인해 자비광명은 수승한 연(緣)이 되어 감응(感應)이 일어납니다. 중생이 행을 일으켜 입으로 항상 부처님을 부르면 부처님이 곧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몸으로 항상 부처님께 예경하면 부처님이 곧 그 행을 보십니다. 마음으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이 곧 그 마음을 아십니다. 중생이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 역시 중생을 생각하십니다. 염불인과 부처님의 삼업이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친연(親緣)이라 이름 합니다. 중생이 부처님을 뵙기를 원하면 부처님이 곧 생각에 응하여 눈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근연(近緣)이라 이름 합니다. 중생이 부르고 생각하면 곧 여러 겁의 죄가 소멸되어 목숨이 다하는 때에 부처님이 성중과 더불어 자연히 오시어 영접해 주시니, 여러 삿된 업에 묶여 있으나 장애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상연(增上緣)이라 이름 합니다.

염불삼매를 얻기 때문에 오로지 우러러 향하는 신앙의 빛이 자비광명에 섭수됨으로써 죄업이 소멸되어 영원히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안심(安心)을 얻습니다. 안심을 얻기 때문에 인과법을 믿고 공덕을 쌓습니다. 염불삼매는 결정신심을 성취하고 안심을 얻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게 하는 최상의 방편입니다. 염불삼매는 염불인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며, 생사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염불삼매가 곧 생사해탈입니다. 염불삼매를 얻으면 그 가운데서 응신(應身)이나 화신(化身)의 감응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것은 진실한 믿음에 자비광명이 감응하는 삼매의 작용이므로 너무 집착할 것은 없습니다. 칭명염불은 믿음을 일으키고, 결정신심을 성취하여 물러서지 않도록 하는 방편이며, 안심을 얻는 안심법입니다. 염불하는 마음으로써 삼매를 얻고 믿음을 성취하며 안심을 얻기 때문에 염불하는 마음이 곧 안심법입니다.

염불인은 자신이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광명 안에서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삶에 임해야 합니다. 자비광명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일으켜서 염불삼매를 얻으면 설령 죄악이 깊다 하여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므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비광명 안에서 호흡하고 있음을 진실로 믿고 일체의 경계가 광명의 물결임을 깊이 신해(信解)하면,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압니다.

**믿음 깊으면 염불 절로 나오고**
**자비광명에 대한 결정신심 성취**

일체 인연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이것이 염불수행으로 얻는 지혜입니다. 무량한 자비광명이 일체를 비추고 있음을 믿고 신앙의 빛으로 관하면, 삶 전체가 신앙이니, 날마다 일체 생명이 부처님의 화신이요, 처처가 정토 아님이 없는 세계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비로소 자비광명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고 해탈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양산 정토원 원장
cafe.daum.net/amitapa

# 있는 그대로 보면 조화로운 삶 열려

인터뷰 위빠사나 국제화의 리더 고엔카 법사

세계적인 불교 명상붐의 중심에 자리한 위빠사나 수행법. 이는 인도, 미국, 한국을 비롯한 세계 130여 곳의 센터를 통해 위빠사나의 국제화에 힘써온 고엔카(80 · S. N. Goenka)라는 지도자의 공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불교' 창간 10주년을 맞아 불교명상법의 세계화와 이에 따른 올바른 수행법 선택에 대한 지혜를 고엔카 법사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들어본다.



전세계 130여 센터에서 800여명의 제자를 통해 위빠사나를 전하고 있는 고엔카 법사.

▲위빠사나를 보다 쉽게 정의한다면?

–위빠사나는 가장 오래된 고대의 인도 명상법 중 하나로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재발견해 45년 동안 가르친 수행법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을 의미하는 위빠사나는 간단한 원리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행복한 삶을 이끌어 줍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위빠사나를 손쉽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그것의 특징 때문입니다.

▲많은 불교수행법 중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수행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명상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위빠사나를 만나기 전, 나 역시 여러 가지 수행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불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수행법을 선택하십시오.

▲여러 불교수행법들의 공통점은?

–얼핏 보기에 불교 수행법은 그 갈래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이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들 모두가 팔정도와 연기법, 사성제 등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빠사나 뿐 아니라 모든 수행법을 통해 부처님이 강조하신 도덕적 가치, 마음챙김, 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빠사나와 선(禪)의 차이점은?

–위빠사나와 선을 포함한 모든 수행법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송은 언어화된 수행이며 마음관찰은 시각화된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두가 주어지는 선과 달리 위빠사나의 기초단계는 자연스러운 호흡만을 강조합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야 관찰을 통해 마음을 한곳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간화선을 수행해 본 적이 있는지?

–다른 수행법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수행법과 매우 유사한 고대 인도 명상법은 여러차례 수행했습니다.

▲위빠사나 전통은 어떻게 이어져왔는지요?

–부처님의 열반 후 5세기 동안 인도에서는 위빠사나가 승계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미얀마에서는 2천년 동안 많은 지도자들을 거쳐 위빠사나의 원시 정통성을 이어왔지요. 이는 레디 사야도(Ledi Sayadaw) 스님, 사야 테트지(Saya Thetgyi), 우 바 킨(U Ba Khin)으로 계승됐습니다. 나는 우 바 킨으로부터 위빠사나를 전수받았습니다. 기원지인 인도에서부터 위빠사나가 세계 인류에게 퍼져나가기를 바란 스승의 뜻을 이어 1969년 인도에 최초로 위빠사나 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이후 10년이 지나면서 외국에서도 위빠사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800여명의 위빠사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직접 체험해보고 본인에 맞는 수행법 선택을**
**어떤 수행하든 부처님가르침 경험할 수 있어**

▲급격히 숫자가 늘고 있는 한국 위빠사나 수행자들에게 조언한다면?

–아침에 일어난 직후,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단 몇 분만이라도 좋으니 매일 명상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다른 위빠사나 수행자들과 단체명상을 하세요. 매년 한번 이상 10일 정진코스에 참여하십시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정진은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고엔카 위빠사나 협회의 목적은 위빠사나의 기본 정신을 보다 많은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교, 국적, 지역, 환경이 다른 많은 이들이 위빠사나의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특성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보존된 위빠사나는 이제 인도를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들에게 삶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삶의 지혜인 위빠사나를 배우는 기회를 늘리고자 합니다. 또한 위빠사나 연구기관을 통해 빨리어로 된 경전 등을 발행, 불법을 홍포할 예정입니다.

▲'현대불교'와 한국불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대사회는 내면의 평화와 조화보다 물질적인 번영만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정신적 웰빙에 대한 욕구는 날로 커져갑니다. 범종파적인 불법홍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본래 보편적이고 실용적이며 평화적으로 만물을 이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와 같은 평화적인 방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감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발전해 자성성불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 세계의 평화와 행복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 호흡관 후 감각 관찰에 집중

### ▌고엔카 위빠사나는?

남방 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인 위빠사나는 일종의 관법(觀法)으로 수행자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집중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번뇌에서 벗어나는 수행방식이다. 위빠사나 수행의 소의경전인 <대념처경>은 몸(身), 느낌(受), 마음(心), 법(法)의 사념처(四念處)를 관찰의 기본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대념처경>은 사념처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닦아가야 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각 수행자의 근기와 성향에 맞춰 사념처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해서 닦으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얀마의 레디 사야도(1846~1923) 계통의 수행법을 전승한 인도의 고엔카 법사는 사념처 중에서 두 번째인 수념처를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호흡을 관찰하는 입출식념(入出息念)을 수행하며, 이에 의거해서 마음의 집중을 얻은 후에 감각(vedan)을 관찰하도록 한다. 즉 신, 수, 심, 법 사념처를 다 닦지 않고, 신념처의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入出息念)'을 준비수행으로 닦은 뒤, '감각에 대한 관찰(受念處)'을 본수행으로 닦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각을 관찰하여 고(苦)의 원인인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고를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게 목표다.

1924년 인도에서 태어나 사업가로 성공했던 고엔카는 1956년, 명상을 통해 편두통을 치료하기 위해 미얀마의 우바킨(Sayagyi U B Khin) 법사로부터 위빠사나를 배웠다. 이후 인도에 명상센터를 세운 그는 1979년부터 해외 전법을 시작했다. 이로부터 800여 지도법사들이 130여 개국에서 '10일 집중수행'을 무료로 지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www.sgsb.ac.kr) 황용식 교수(명상치료학)와 '한국 비파사나센터 준비위원회(cafe.daum.net/dhammakorea)'가 정기 집중수행을 실시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 세상에 이런 일이....

천일선원에서는 놀랍고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현대의학에서 포기한 원인모를 병으로 고생하다가 굿이나 천도재등 좋다는 것은 다해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 효과를 못본 환자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양보살(원장)님을 만나 氣치료를 받고 나서 새삶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양보살님을 만나면 병의원인, 빙의상태, 전생업의 실마리를 풀어서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하고 있다. 병으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담을 해주고 있다 전화주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린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Tel. 054)638-2224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연속에 보금자리 기도처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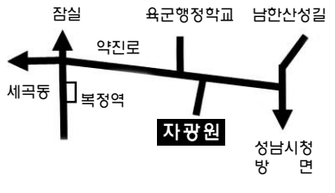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제 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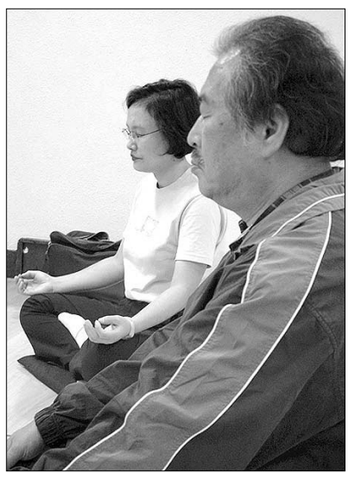
氣가막힌 복이틀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황금어리 복덩어리 황금어리 복덩어리

##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 지금 이 순간 고통 싸~악

탐방 / 전현수 원장의 '명상과 자기치유' 프로그램





전현수 원장의 지도하에 '명상과 자기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

10월 12일 저녁 7시 잠실 불광사. '명상과 자기치유' 8주 프로그램에 참석한 회원 7명의 '소리없는 관찰'이 예사롭지 않다. 눕거나 뒤로 기대는 등 명상에 임하는 자세는 제각각이지만, '지금-이 순간' 내 몸의 감각을 살피는 무형의 움직임은 쉼없이 이어진다. 날아다니는 먼지의 촉감에도 감각이 활활 살아날 즈음, 프로그램 지도자 전현수(전현수 신경정신과의원 · 48) 원장이 적막을 깨고 살짝 입을 열었다.

### 전세계 200여 병원서 시행

"코를 통해 드나드는 숨의 흐름에 집중해 봅시다. 그러다 생각이 엄습하면 그것을 그대로 지켜봅니다. 그리곤 다시 '호흡의 관찰'로 되돌아옵니다. 몸과 마음의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다보면 모든 것이 일어남과 사라짐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즐거움과 괴로움 역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감정의 하나다. 자신의 몸을 직접 관찰하면서 그 같은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과거 경험에 집중하던 생각의 습관을 깨고 늘 온전한 '현재'에 깨어있을 수 있다. 십여 년 간 불교와 치유의 공통분모를 찾아온 전 원장이 '명상과 자기치유' 프로그램을 주목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명상과 자기치유' 8주 프로그램은 미국 메사추세츠 의과대학 부속병원 존 카밧진 교수가 10년 이상 5000명이 넘는 환자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고안한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이완 프로그램'.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200여개 이상의 병원에 널리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현수 원장은 7~8월 불교상담개발원의 상담 전문가 집단에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후, 10월 5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전문가 15명 가운데 3명이 명상을 생활화하고 5명은 명상을 틈틈이 활용할 정도로 시범 운영의 결과가 성공적이었기에, 프로그램은 곧 일반에 공개됐다.

그렇기에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된 회원들의 기대도 컸다. 회원들의 심리상태를 점검하는 개별 설문조사로 프로그램을 시작한 전 원장은 호흡에 집중하는 맛보기 명상을 거쳐 본격적인 '바디 스캔(Body Scan ; 몸 훑기)' 지도에 돌입했다.

### 발끝서 머리끝까지 순간 집중

"바디 스캔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주의를 이동시키면서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호흡과 신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신체의 긴장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온 몸을 훑는 과정의 끝은 정수리다. 고래가 물을 뿜어내는 분수구와 같은 숨구멍이 정수리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곳을 통해 호흡한다고 상상한다. 온 몸에 두루 주의를 이동시키다 특정 부위에서 긴장이나 통증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정수리로 끌고 가 신체 밖으로 배출한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과정 때문에 바디스캔은 신체 정화과정으로도 주목받는다.

### 바디스캔은 신체 정화과정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 감각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의식만 살아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했건만, 명상을 처음 접한 이들에겐 쉬운 일이 아니다. 신경증 때문에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 모 주부는 "한 부위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예기치 않게 다른 부위에 반응이 와서 불안했다"고 고백했고, 취업 스트레스의 탈출구를 찾아 강좌에 참여한 김 모 군은 "발끝에서 시작한 알아차림이 무릎을 채 통과하지 못했는데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려서 허무했다"고 털어놨다.

당일 프로그램은 두 시간으로 마무리됐지만 8주간의 농도 짙은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회원들은 매일 바디스캔 명상을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사이트 수행일지에 게재함으로써 개별 점검을 받게 된다.

앞으로 6주간 진행될 강좌에서는 바디스캔의 심화과정을 비롯해 정좌명상, 요가명상 등도 이어질 예정이다. 전현수신경정신과의원= (02)400-2911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편안히 누운 채로 바디 스캔에 몰입하고 있는 한 학생.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heegyunwiz@hanmail.net

인터뷰

## 불교-정신치료 접점 찾기 24시간 혼신

전현수 원장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큰 그림의 '조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조각을 모으는 작업을 이어가다 보니 그림의 윤곽이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명상과 자기치유' 8주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전현수(전현수 신경정신과의원) 원장은 '불교와 정신치료'가 만나는 지점의 그림을 구현해 내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이다. 낮에는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불교 명상을 통한 치유 방책을 제시하고, 밤에는 전문가들과 모임을 갖고 불교 정신치료와 관련된 이론을 연구한다.

특히 그는 지산 · 미산 스님 등 남방불교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스님을 비롯해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 등이 두루 참여하는 '불교와 정신치료 연구회'를 꾸리며 연구의 폭을 넓혀왔다.

"작년 미얀마에서 1달간 출가수행을 거친 후 불교-정신치료 통합 연구의 길을 굳히게 됐습니다. 고익진 선생님이 이끄는 일승보살회에 동참하면서 꾸준히 이어온 불교공부도 물론 도움이 됐죠."

그는 불교와 정신의학이 둘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불교명상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 계발을 비롯, 불법을 정신의학 체계로 정리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신재 기자




선의 세계 62

## 돈오(頓悟)-5

돈오라고 하면 말 그대로는 단박에 깨친다는 뜻이지만, 그 개념을 시간의 틀 속에서 이해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본각이라는 초시간적인 진상을 바탕으로 해서 성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한 개인이 수행을 하고 그 어떤 깨달음의 체험을 하는, 그런 사건들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본각의 자리에서 보면 그런 건 다 짐짓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그래서인가, 우리는 존경하는 고승대덕(高僧大德)에게 당신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깨쳤느냐, 깨쳐서 당신은 이제 부처님인가 하고 감히 대놓고 여쭈어보지 못한다. 옛 조사(祖師)들의 어록을 비롯한 온갖 선서(禪書)의 주제가 온통 깨달음이건만, 정작 지금 살아있는 대덕들에게 마주 대고 당신의 깨달음 체험에 대해 우리의 관심사를 여쭈어보지 못한다. 그런 것은 아예 여쭈어볼 주제가 못된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 '고요하다' 함은 분별심 없는 상태
### 이미 깨달음 자리에 서 있음 뜻해

그게 왜 아예 거론할 만한 주제가 못되는 것일까? 우리로서는 아주 궁금한데…. 개념과 이론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입장이 아니라 수행과 깨달음의 세계에 삶을 바치고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논하려면 개념과 이론이 아니라 궁극적인 깨달음을 준거로 해서 논해야 하는 것이고 깨달음의 궁극적인 뜻인 본각을 준거로 한다면 그런 세간적인 관심사는 거론할 주제가 못된다.

전의 글에서 이철수 씨가 '좌탈'이라는 제목의 판화에 적어 넣은 글을 소개했었다. 스님이 바야흐로 앉은 채 입적하려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 옆에다가 쓴 글인데, 뒷부분까지 다 넣어 다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깨달음이 내 손님으로 오실 때에야 피해가지 못하지만 나가서 불러들일 일이야 아니지. 내 생애가 적적하기만 하여 손님 받을 겨를이 없었다. 이제 되었으니 그만 나가서 문 닫아 걸어라." 첫 대목은 깨달음을 억지로 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이니 대오(待悟)를 부인하는 선의 입장을 보여준다고 풀이했었다.

그 다음 "내 생애가 적적하기만 하여 손님 받을 겨를이 없었다"고 한 대목은 무슨 뜻인가? 평생 고요하게 지내다보니 깨달음이라는 손님이 오더라도 받아들일 겨를이 없었다는 말이니, 깨달음을 구하지도 않았고 맞아들이려고 애쓰지도 않았으며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나의 세계에 들어올 틈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이다. 납자(衲子)의 본분에 전혀 충실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다. 깨달음을 구하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그러니 수행도 안 하고 조용히 빈둥거리며 지냈고, 심지어 깨달음이 저절로 오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깨달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보냈다는 식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적(寂寂)이라는 대목의 뜻이다. 그야말로 고요하다는 말인데, 여기에서 고요하다는 것은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히,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의 분별이 이미 없으니 깨달음을 구할 일도 없었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여 깨달음을 이루려 할 일도 없었다는 뜻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미 깨달음의 자리에서 살아왔다는 뜻이다. 그러니 깨달음이라는 개념이 오거나 말거나 그걸 맞아들이거나 말거나 할 일도 없었다.

그런 분이야말로 깨친 분이라고, 실제 인물이냐고, 누군지 알고 싶다는 궁금증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만약 그런 이들을 실제로 만나 과연 어떻게 수행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런 깨달음 자리에 들었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아마도,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않을 것이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으므로….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파동명상을 통한 「빙의 전문 치유사」 마스터 과정

◈ 「빙의 전문 치유사」마스터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빙의령을 찾아내어 타인의 영적문제(빙의현상)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빙의 전문 치유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빙의령과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빙의령을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매주 (화 ~ 금) ◈ 강의장소 : 서울 · 부산
◈ 수련과정 ( 1대 1 개인지도 可, 전화문의 바람)
① 빙의전문 치유 마스터반 : 빙의 전문 치유사 마스터과정으로 4일간 수련후, 수료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방송출연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4년 7월 SBS 세상발견 유레카 출연

저서 :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 빙의「그 영혼의 노숙자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2)996-6156 · 051) 806-8500, 817-6156

열린 해인사! 함께 하는 해인총림!

-해인사의 종풍(宗風)진작과 한국불교발전을 위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해인사는 한국불교 종합수도원(총림)으로 지정되어 사시사철 250여명의 스님들이 수행정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행도량이며, 또한 민족의 자랑이자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법보(法寶)종찰입니다.

조계종 출범이후에는 스님들의 교육을 담당함으로서 인재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고, 선종(禪宗)의 가풍을 진작함으로서 모든 수좌, 선객들의 정신적 고향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 받아 해인사가 교단과 한국사회, 나아가 세계 속에서 더욱 훌륭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인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고견을 아래와 같이 부탁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의견접수기간 : 불기2548(2004)년 10월 5일~12월 말일까지
▌의 견 내 용 : 1. 해인총림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
2. 해인사 교구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
3. 총림 및 교구발전에 필요한 수행·교육·포교·문화·사회분야 및 각종불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해인사에 도움되는 각종 의견
▌의 견 접 수 : 1. 우편접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해인편집실 055-934-3111
2. 팩스 : 055-934-3112
3. Email : haein3111@hanmail.net
4. 홈페이지 : haeinsa.or.kr

※보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11월부터 수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불기2548(2004)년 10월 7일

해인총림 및 교구 발전 위원회

• 증 명 : 방장 법전 대종사
• 고 문 : 도견스님, 지관스님, 정원스님, 송월스님, 원융스님
• 지 도 위 원 : 종성스님, 도선스님, 중천스님, 원각스님, 효광스님, 관후스님
• 상임공동위원장 : 원택스님
• 공 동 위 원 장 : 종림스님, 여연스님, 향적스님, 혜능스님, 종묵스님, 도각스님, 선각스님
• 실 무 위 원 장 : 능도스님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 강의(16) 삼계유심(三界唯心), 만법유식(萬法唯識)

# "생사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는 왜 사바세계가 이렇게 곤경과 비참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말합니다. 그것이 집(集)입니다. 이때 집(集)을 대개는 집착(執着)으로 번역하지만 이 번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집(集)이란 '모였다'는 뜻입니다. 사바의 곤경과 비참은 '여러 계기가 모여서', 즉 연기(緣起)하여 '일어난' 사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 일어난 것은 소멸될 수 있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곤경과 고(苦)의 현실이 필연적 사태가 아니라, '우연적인 것'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일어난 것'이라면, '그것은 소멸될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만들어진' 어떤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부술 수 있습니다. 연기법에 대한 오래된 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게 된다. 이것이 생기기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멈추면, 저것도 멈춘다."

그럼 대체 무엇이 모여, 사바의 곤경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저번 강의의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어느날 우루벨라의 해질 무렵, 붓다는 불을 섬기던 카샤파 형제들을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저녁노을로 불타는 하늘을 보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산상수훈에 비견되는 유명한 법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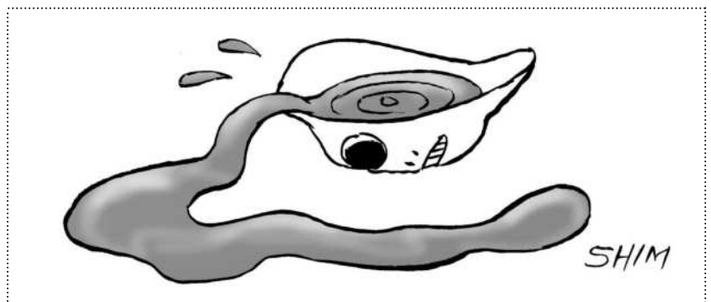
"비구들이여, 사람도 저와 같이 불타고 있다. 사람의 무엇이 불타고 있는가. 1) 눈이 타고 있고, 눈이 보는 물질이 타고 있다. 귀가 타고 있고, 귀가 듣는 소리가 타고 있다. 코가 타고 있고, 코가 맡는 냄새가 타고 있다. 혀가 타고 있고, 혀가 느끼는 맛이 타고 있다. 몸이 타고 있고, 몸이 접촉하는 감촉이 타고 있다. 의식이 타고 있고, 의식이 소비하는 대상인 생각이 타고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타고 있는가. 2) 다름 아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에 불타는 것이다. 그로 인해 3)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불타고 있고, 또한 근심과 슬픔과 번뇌와 괴로움(愁悲惱苦)이 불타고 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이 모든 불타는 것과 그 원인에 대해 싫어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일체에 대해 싫어하는 생각을 가질 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꽃이 꺼지고, 그때 근심과 슬픔과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된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붓다는 감각기관과 그 대상이 '모여' 불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타는 고통과 곤경의 바다는, 다름 아니라 인간 내부의 세 가지 독소인 탐진치(貪瞋痴)가 촉발하고 추동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난 것'이기에 '사라질 수' 있고, '만들어진' 것이기에 '부술 수' 있습니다. 비록, 한 바가지 두레박 물로는 어림도 없지만, 어쨌거나 이 불을 끌 수 있다니, 용기를 냅시다. 해탈과 열반은 바로 그렇게 '불을 꺼서', 마침내 '이 곤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 불교는 관념론인가

지난해 저는 어느 스님으로부터 느닷없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굵은 톤의 목소리가 다짜고짜 물어왔습니다. "생사(生死)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지금도 절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화두 가운데 하나가 이거지요. 여러분들은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당신이 알겠지!"하고 불퉁스레 전화를 끊었는데,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생들이란 본시 쥐꼬리만큼 아는 것 가지고 잘난 척을 하다가도,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괜히 신경질을 내는 좁쌀들이니까요.

붓다는 우루벨라의 산정에서,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인간 조건과 그 곤경 또한, 바로 탐진치가 '모여, 일으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붓다는 그럼 생로병사(生老病死)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들은 원래 없었던 것인데, 인간 내부의 독소들과 감각기관들, 그리고 그 대상들이 있음으로 하여 '비로소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아무래도 생물학적 상식을 무시하는 엉터리없는 소리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붓다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리고 깊이, 불교가 설파하는 전혀 다른 시각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생물학적 진실을 무시하는 이 억지(?) 같은 이치는 하루아침에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어렵습니다. 이 이치를 만나기 위해서는 생활태도를 바꾸고 마음의 움직임을 제어하며, 세계와 인간을 보는 전혀 다른 시각을 연마해야 합니다. 즉, 불도(佛道)를 닦아야 생사 없는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겁만 주면 좀 무책임하지요. 이 특이한 발상을 힘닿는 대로 설명해 보일까 합니다.

### 인간에 의해 '구성된' 세계

어디 생로병사뿐이겠습니까. 불교는 아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전부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이한 말씀을 여러분들은 귀가 따갑게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삼계유심(三界唯心)! 만법유식(萬法唯識)! <대승기신론>도 이를 따라 "마음이 일어나면 수많은 세계가 생겨나고, 마음이 꺼지면 수많은 세계가 사라진다(心生則種種法生, 心滅則種種法滅)"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원효 스님은 당시 중국에서 신역(新譯)의 새 지평을 열고 있던 현장의 자은사 문중을 흠모하여, 의상과 함께 당시 금지되어 있던 유학을 시도했습니다. 첫번째는 압록강 근처 고구려국경에서 잡히는 바람에 실패하고, 두번째 시도를 하던 중, 어느 흙굴에서 밤을 지새게 되는데, 거기서 세계와 인간 정신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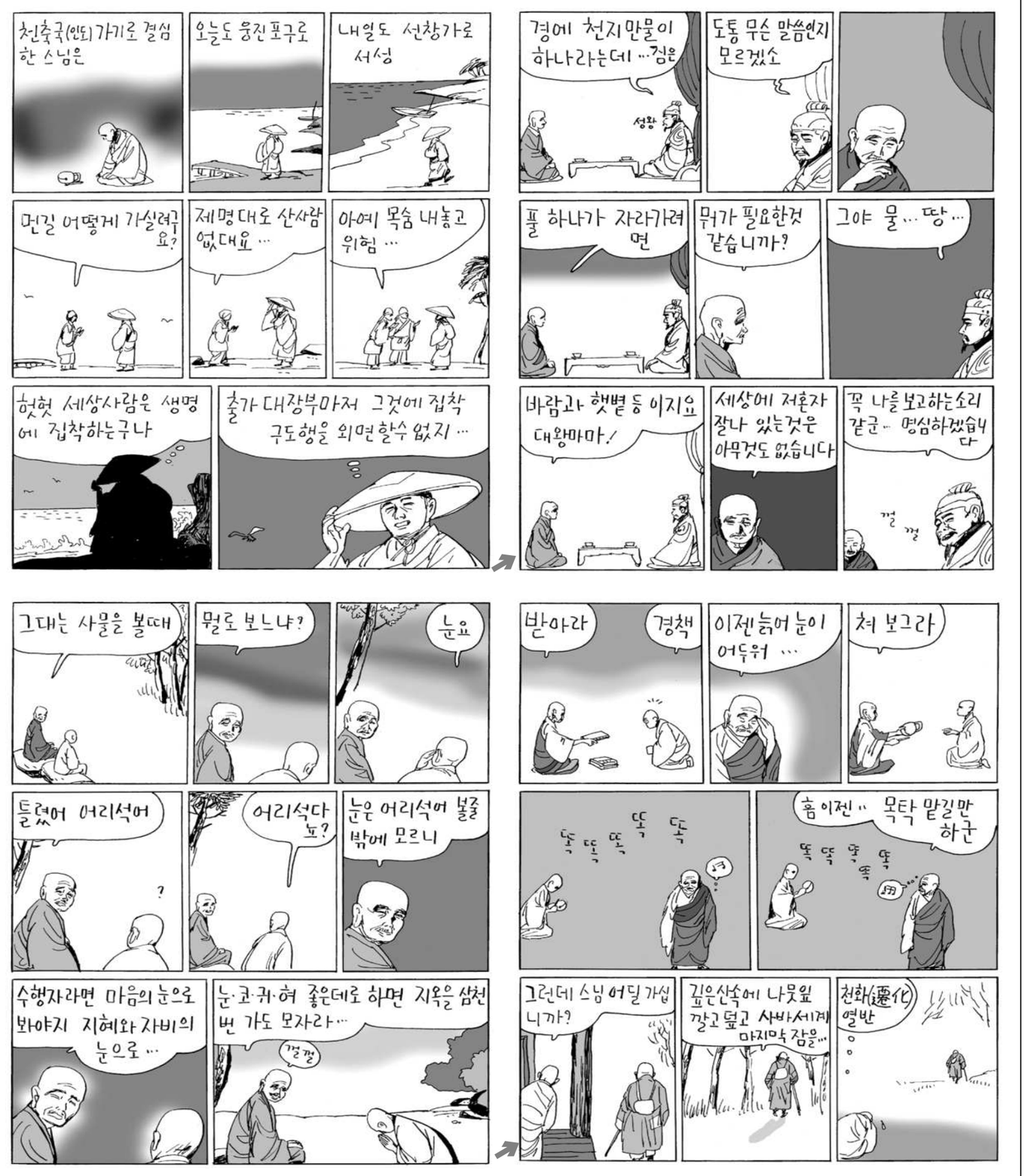
"어젯밤 잠자리는 흙굴이어서 편안했는데, 오늘밤 잠자리는 무덤 속이라 매우 뒤숭숭하구나. 알겠도다. 마음이 생겨나므로 수많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므로 흙굴과 무덤이 둘이 아니구나. 또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만법은 오직 의식일 뿐이니, 마음 밖에 법이 없는데 어찌 따로 구하겠는가(則知! 心生故 種種法生, 心滅故 龕墳不二. 又, 三界唯心, 萬法唯識, 心外無法, 胡用別求)." (송고승전 '의상전')

세계가 마음과는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실재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과연 세계는 인간이 의식하기 이전에도, 혹은 의식하거나 말거나 존재하는 것일까요. 불교는 관념론의 입장에 섭니다. 그러나 그것은 독특한 관념론입니다. 불교는 서구의 극단적 관념론처럼 "객관적 실재는 없고,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일 뿐"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세계의 객관적 실재에 대해서는 유보적입니다. 아니, 어느 편이냐 하면, 불교는 세계의 실재를 에누리 없이 긍정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역력하게 실제(實際)합니다(이 말에 오해가 없어야 하는데…). 불교가 문제 삼는 것은, 객관적 실제(實際)가 아니라 '그 실제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인간의 시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가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 '구성된' 세계라는 말입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주장자따라… ㊴ 겸익 스님의 '마지막 잠'

조태호




**겸익**(생몰연대미상): 백제후기의 스님. 인도구법승으로 백제에 율종을 전했다. 인도에서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고 '아비담장'과 '오부율문'을 가지고 귀국해 번역했다.

## 네티즌 교리문답

### 현성공안(現成公案)이란?

**문** 간화선의 공안(화두)과 달리 묵조선에는 현성공안이란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공안과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가르침 기다립니다. (ID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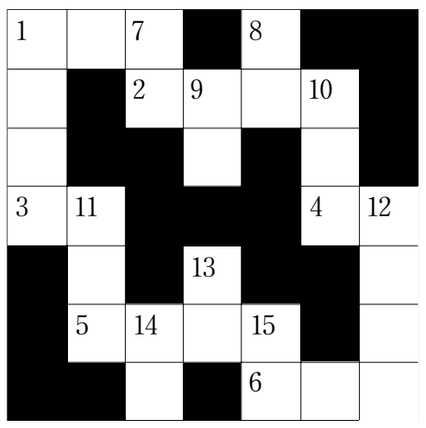
**답1** : 자각(自覺)이란 애초에 완성되어 있는 진리에다 자신의 의지가 가미되는 행위, 곧 자각은 자신의 자(自)와 진리의 각(覺)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 구현되는 행태입니다. 그것을 진리가 구현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현성공안(現成公案)이라 합니다. 이 현성공안은 공안 곧 진리가 나타나는 것인데, 바꾸어 말하면 자신이 진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와 같은 행위를 인식하는 행위 곧 자각과 함께 그렇게끔 등장하는 공안 곧 진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증(本證)과 자각(自覺)이라는 의미에서 본증자각(本證自覺)이라 합니다. ('독자')

**답2**: '현성(現成)'이란 말은 현실화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안(公案)'은 본래 관공서의 조서(詔書)를 뜻하는 것이지만 선(禪)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좌선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제종(臨濟宗)은 좌선을 하면서 이 근원적인 문제를 묵묵히 고찰하지만 조동종(曹洞宗)은 이른바 지관타좌(只管打座)라고 해서 보통 공안 같은 것을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일념(一念)으로 앉아 있습니다.

요컨대 고기와 고기의 대상 세계인 물, 새와 새의 환경인 허공은 그 어느 쪽도 경계선이 없는 하나의 전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벗어나 버리면 전체와의 일체감은 상실되고 맙니다. 대상에 대한 연구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합일(合一)할 때 의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존재방식만 이해한다면 그것이 곧 현성공안입니다. 즉 시 · 공을 초월해서 자기가 존재하고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현성공안이며, 고기가 있으니 물이 있고 새가 있으니 허공이 있다는 것이 바로 현성공안입니다. ('김현성')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 상식퍼즐



**가로** 1. 살아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말라 죽은 가지 2.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는 말, 임제 스님 어록에 나옴, '○○○○ 立處皆眞' 3. 가사와 바리때, 선종에서 전법(傳法)의 상징이 되기도 함, ○○을 전하다 4.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냄 5. 목을 쳐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라는 뜻, 관포지교와 비슷한 말 6. 프로야구 원년에 삼미 슈퍼스타스에서 1승 15패1세이브라는 기록을 남긴 투수로, 최근 개봉된 영화 '슈퍼스타 ○○○'의 실존 모델.

정답은 26면에

**세로** 1. 스님이 되기 위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는 것 7. 해당 학과를 순서대로 공부하여 마침 8. 술잔을 주고받음 9. 아내의 친정집 10. 자동차 따위에 기름을 넣는 곳 11. 세운 원을 적은 글 12. 하나의 역사를 두 나라가 공유한다는 의미로, 중국이 고구려사를 자국의 것이라 주장하는 근거 논리 13. 집게손가락 14. 조선 말 스님이며 근대 선종의 중흥조로 참선곡을 지었음, ○○ 성우 스님 15. 같은 종류의 여러 책을 비교하여 차이 나는 것들을 바로잡음.




그림= 위즈덤하우스 제공

# 진실이라 믿었던 '성공법칙' 뒤집기

## 클린턴 등 세계 정상에 오른 100인의 상식을 깨뜨리는 27가지 성공비결

**평범했던 그 친구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토마스 A. 슈웨이크 지음
서현정 옮김 | 위즈덤하우스 | 1만원

이따금씩 동문회에 가보면 참석자들을 놀라게 하는 친구가 있다. 학창시절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게 조용하던 친구가, 혹은 뛰어나게 공부를 잘 하지도 별다른 재주가 있지도 않던 친구가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위의 시선을 끈다. 지금은 대성한 영화배우 설경구도 평소 내성적인 성격탓에 대학시절에는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크게 될 놈은 어릴 때부터 싹수가 보인다'는 말은 현실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듯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공 법칙에는 오해가 많다. 변호사이자 성공학 이론가인 토마스 슈웨이크는 자신의 저서인 <평범했던 그 친구는 어떻게 성공했을까>에 상식을 뒤집는 27가지 성공비결을 담았다.

설문과 통계자료를 통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CEO 짐 파커, 빌 클린턴 前 미국 대통령, 그래미 상 수상 가수 쉐릴 크로 등 세계 정상에 오른 100인의 경력과 이미지 · 조직 관리 비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그래서 막연한 성공 욕구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책에 소개된 구체적인 성공 원칙과 노하우, 관리 비결 등 실현 가능한 대책들은 독자들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성공의 가장 큰 오해는 처음부터 뚜렷한 목표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속설이다. 하지만 이 책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 100명 중 처음부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사람은 5%에 불과하다고 한다. 목표에 집착하는 것이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 성공이 저절로 찾아온 경우가 많았다.

- 목표에 대한 집착이 가장 큰 장애물
- 인맥 · 카리스마 No!…약한 모습 보여줘라
- '융통성' '외모'는 필수, 운도 무시 못한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성공한다는 것도 오해다. 대부분 특출난 리더들은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진정한 리더가 되기 힘들다. 즉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로 승부하라는 것이다.

인맥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부분 의사결정권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냉정해진다. 자신과 가깝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자신과 별 관계는 없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게 되는 것이다. 카리스마 역시 성공비결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는 카리스마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학력을 성공의 필수요소로 꼽는 사람 역시 25%에 불과했다. 그 대신 '융통성'과 '외모'를 성공의 필수요소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응답자의 각각 96%와 100%가 융통성과 외모를 성공의 필수요소라고 응답했다.

성공을 위해서는 운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적인 드럼연주자인 지나 쇼크는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지랄(?) 맞게 운이 좋았다'라고 솔직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물론 여기서의 운이란 기회를 말하는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97% 정도의 사람이 그냥 지나친다고 그들은 말했다.

저자는 또 성공에 마이너스가 될 요소를 플러스 요소로 만드는 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미지 관리 비결이라고 주장한다. 그 예로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것이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과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대다수 사람이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도 성공한 사람은 오히려 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10분 정도 화를 낸다음 생산적인 해결책을 찾거나 차분한 목소리로 화가 난 이유를 이야기해서 상대를 설득 하는 등, 화를 내는 데도 전략적인 스타일이 필요하다는 그들만의 노하우는 깊이 새길만하다.

성공한 사람들의 조직 관리 비결 중 가장 인상적이며,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으로 저자는 회의 운영에 대한 비법을 꼽는다.

"회의는 평균 이상으로 하는데 매출은 평균 이하인 기업들이 너무 많다"는 CEO 톰 오닐의 말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회의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며 진행한다는데 85% 정도의 사람들이 동의했다. 또한 1시간 이상이 넘는 회의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회의때마다 지각을 철저히 금하게 하고 안건과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게 회의 시간과 횟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성공한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이외에도 성공하기 위해 자기 PR은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PR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기업의 창업자나 설립자이며 자신보다 '우리'를 내세우는 게 더 적합한 홍보 방법임을 강조한다. 이렇듯 이 책은 오랫동안 진실로 믿어온 성공의 속설들을 보기 좋게 뒤집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

전문가 서평



**자전거 여행 · 2** 글 김훈 | 사진 이강빈 | 생각의 나무 | 1만원

소설가 김훈이 풍경을 몸에 담아 거울에 비추듯 세상을 마음에 새겼다. 그의 애마 '풍륜'과 함께 우리의 산하를 달린 두 번째 여행을 마치고 <자전거 여행 · 2>를 들고 온 것이다. 첫 번째 여행이 전국 일주였다면 이번에 다녀온 곳들은 경기도 일대다. 북한의 개풍군과 김포평야를 가르며 흐르는 조강을 출발해 일산을 거쳐 중부전선과 남양만에서 가평, 여주, 양수리를 돌아 수원과 안성으로 그의 여정은 이어지고 있다.

다가오는 시간과 사라지는 시간이 체인의 마디에서 헤어지면서 구르는 풍륜의 바퀴 위에 몸을 얹은 채 우리의 강과 산을 거스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내주고 호흡하는 일이다. 그래서 김훈과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은 단지 여행지를 돌아보는 일만은 아니다.

"자전거를 저어서 나아갈 때 풍경이 흘러와 마음에 스민다. 스미는 풍경은 머무르지 않고 닥치고 스쳐서 불려가는데, 그때 풍경을 받아내는 것이 몸인지 마음인지 구별되지 않는다."

## '풍륜'에 몸 싣고 풍경속으로

### 김훈 따라 경기도 일대 누비며 자연에게 말걸기

김훈은 여행지들에서 그 특유의 문장으로 풍경과 사물, 사람에게 말을 걸고 그것들을 자신의 몸 안으로 끌고 들어온다. 그것은 마치 자전거의 바퀴가 길의 감촉을 페달을 통해 허벅지의 뻐근함을 통해 느끼는 것과 같다. 김훈의 여행기에서 만나는 것은 현실로 존재하는 풍경과 사물과 사람이면서 그의 몸 안에서 문장에 의해 새롭게 재구성된 그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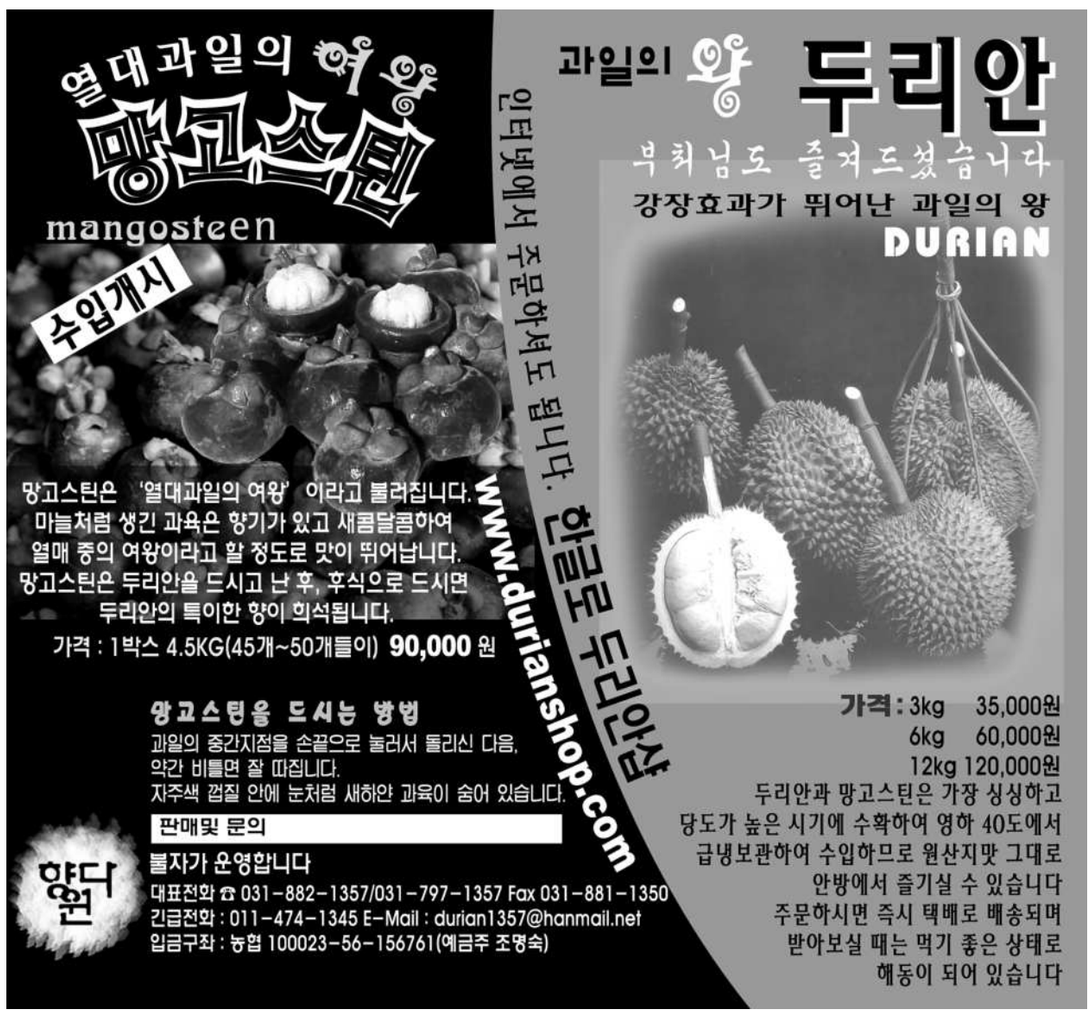
그러나 그가 이번에 보여준 여행산문은 그의 수사가 단순한 추상적인 비유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김훈의 문장은 풍부한 인문학적 지식이 풍경 혹은 사물을 만났을 때 빚어지는 사유의 집합체다. 우리는 그 사유에 종종 매혹되고 그 사유 안에서 종종 길을 잃는다. 그러나 김훈의 매혹이 사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에서 김훈의 문장은 더욱더 현실로 넓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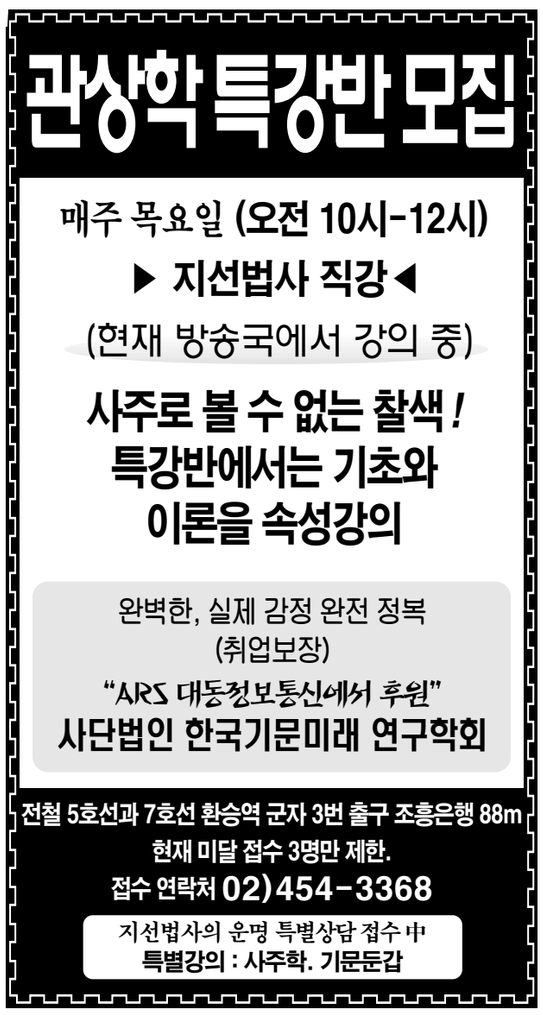
그의 현실 묘사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그의 묘사는 그 현실이 드러내고자 하는 자연과 사람, 혹은 사물의 숨겨진 말들을 팽팽한 긴장을 통해 드러내놓는다. 여행을 통해 그가 풍경에 다가가는 것은 수줍은 '짝사랑'이다.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는 말은 광막해서 그 권역과 넓이와 가장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의 말처럼 광막해 말을 걸 수 없는 자연에 겨우 말을 거는 모양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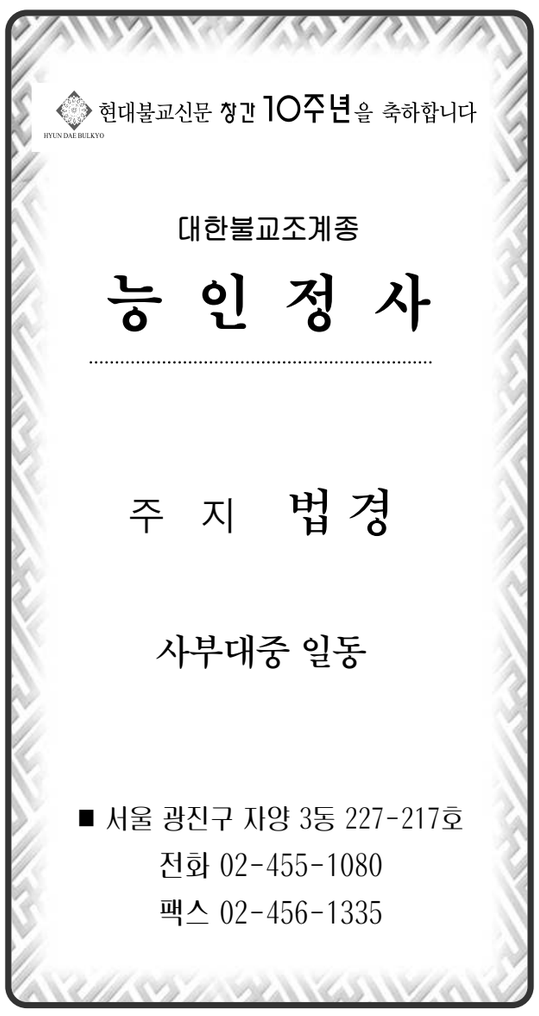
"풍경이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지만" 그는 풍경을 향해 수줍게 끝없이 말을 걸고 있다.

김훈의 <자전거 여행 · 2>에서 사유와 현실 묘사는 자전거의 두 바퀴가 연거푸 길을 지나듯 어우러져 굴러간다. 사실 우리를 여행으로 이끄는 것도 그 두 가지 매혹이 아니겠는가. 가을엔 두 바퀴로 굴러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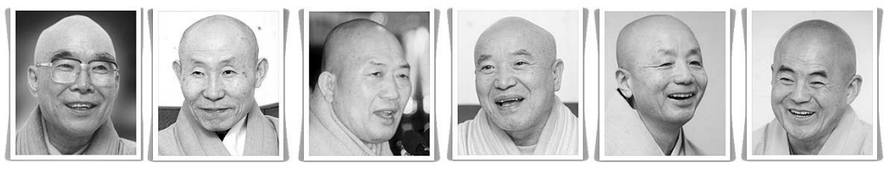
■유철상 (프라이데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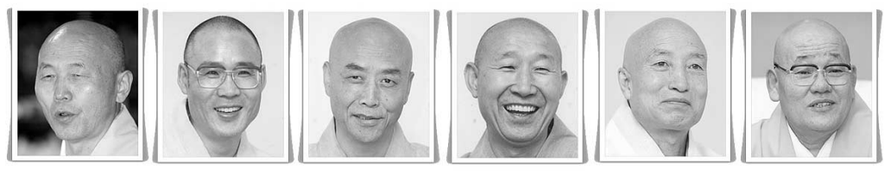



# 도심에 울려퍼진 선사들의 사자후



고우 스님 무여 스님 대원 스님 함주 스님 현산 스님 혜국 스님



지환 스님 영진 스님 현웅 스님 도현 스님 설정 스님 법장 스님

## 선수행 바람 몰고 온 전국 선원장 초청 법회 법문·즉문즉답 실어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 여시아문 | 9천원

도심에 '선 수행' 바람을 불러일으킨 선두주자인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에서 펼쳐졌던 감로법문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지난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이 법회는 산중에서 30~50년간 수행 정진해온 선지식들이 도심에서 잇달아 법문을 펼친, 한국 불교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될 만 하다.

<禪 너는 누구냐>에서는 고우 스님(각화사 선덕)을 비롯해 무여(축서사 주지) 혜국(석종사 선원장) 대원(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함주(법주사 총지선원장) 현산(화엄사 선등선원장) 현웅(육조사 선원장) 스님 등 선원장 스님 11명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설법 현장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미처 법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법문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선사들의 법문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똑같은 법문이라도 듣는 이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그 감동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의 본질과 의미' '화두 드는 법' '선 수행의 요체' '선과 깨달음' 등을 주제로 '간화선 위기론'의 해법을 제시하고, 재가 신도들의 수행을 고취해 수행의 대중화를 유도하기 위한 스님들의 고뇌와 열정이 '살아있는 법문'을 통해 생생히 느껴진다.

선방에서 직접 수좌들과 함께 실참실수하며 선 지도에 앞장서고 있는 선원장 스님들이, 간화선 수행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해야 제대로 하는 것인가를 자상하게 풀어준 이 책을 통해 참선에 대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불성(佛性)이 내 몸의 일부에 잡철 속의 금덩어리같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듣고 보는 마음과 몸뚱이도 다 부처입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여서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부처님과 같은 효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입니다. 왜냐! 내가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우 스님 법문 中)

"옛 선사들의 말씀에 '발심 있는 곳에 화두 있고, 화두 있는 곳에 발심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발심을 하면 화두 안되는 것을 한탄하고 괴로워할 것이 없습니다." (무여 스님 법문 中)

법문 후에 이루어진 즉문즉답(卽問卽答)도 고스란히 지면에 옮겨졌다. '윤회하는 주체는 무엇인가' '참 의심은 어떻게 내는가' 등의 질문에 선사들이 던지는 '할(喝)'을 찾아보는 것도 이 책의 묘미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美 사막 한가운데서 10년째 절 짓기

#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왜 사는가**
무량 스님 지음 | 열림원
전 2권 | 각 권 9천5백원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 한복판에 한국식 사찰 '태고사(영문명 Mountain Spirit Center)'를 짓고 있는 미국인 무량 스님이 수행기 <왜 사는가>를 펴냈다.

책 출간을 위해 10월 11일 입국한 스님은 "스승님인 숭산 스님의 가르침대로 '오직 할 뿐'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10년 째 절을 짓고 있다"며 "언제 절이 완성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짓는 과정, 즉 노동 수행의 의미가 더 중한만큼 그저 '오직 할 뿐'이다"고 말했다.

예일대 지질학과를 다니던 청년 에릭(Erik)은 숭산 스님을 만나 불교의 가르침을 접하게 됐고, 1983년 '무량'이란 법명을 받아 한국 불교로 출가를 했다. 이후 그는 '걷기 만행'으로 유명한 원공 스님과 함께 전국을 만행하고, 대둔산 태고사에서 불사를 돕는 울력(노동)을 하기도 하며 불교의 가르침에 젖어들었다.

만행을 마친 후 미국으로 돌아간 스님은 1993년 지금의 태고사 터를 발견하고 절을 짓기 시작했다. 물도 전기도 없는 사막에서 스님은 포클레인과 트레일러 등의 중장비를 구입해 본격적인 사찰 건립에 착수했다.

스님이 '울력 수행'을 하며 태고사를 짓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국적을 초월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는 것. 이를 통해 정신적 스승인 숭산 스님의 가르침과 한국의 불교문화를 미국인에게 소개하자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는 환경친화적인 삶의 양식을 시험해 보는 것이다. 태고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양열과 풍력을 주로 이용했고 빗물을 사용하기 위해 지붕에 물받이를 만들어 두기도 했다. "건물을 짓는 것은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게 스님의 지론이다.

첫 건물인 요사채가 지어진 2000년부터 태고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최근에는 일요법회 때 마다 2000여 명의 사람이 모여들만큼 유명해졌다. 스님은 얼마 전 전세계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평화의 종'을 주조하기도 했다.

"나는 특별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닌 단지 수행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책을 통해 지난 세간에 부풀려진 이야기를 바로잡아 평범한 수행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너와 나, 주체와 객체가 따로 없는 '오직 모를 뿐'의 물음을 참구해 나갑시다." **여수령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세워진 태고사 전경.

## 故 조태일 시인 추모 시선집



**나는 노래가 되었다**
신경림 엮음
창비 | 8천5백원

故 조태일(1941~1999) 시인의 5주기를 맞아 시인의 시세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시선집 <나는 노래가 되었다>가 출간됐다. 신경림 시인이 선자(選者)로 나서 450여 편의 시 중에서 115편을 직접 가려 뽑았다.

이번 시집의 특징은 기존의 시선집과 달리 시집 출간의 역순으로 시를 배열했다는 점이다. 신경림 시인은 "그의 시는 (발행 시기가)뒤로 오면서 더 아름답고 날렵해진다"고 밝혔다. '어머니를 찾아서'와 '태안사 가는 길' '노을' 등을 비롯해 1980년대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국토' 연작, 초기시인 '아침 선박' 등을 볼 수 있다.

전남 곡성의 태안사에서 태어난 조태일 시인은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아침선박'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집으로는 <아침 선박> <식칼론> <국토> <자유가 시인더러> 등이 있으며 편운문학상(19991)과 만해문학상(1995)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시인이 태어난 전남 곡성군 태안사 경내에 '조태일 기념관'이 건립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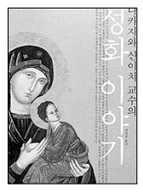
## 새로나온 책



■ **<만해 한용운>**(신종철 글/만화, 세상모든책, 9천원)=만해 스님의 서거 60주년을 맞아 만화가 신종철 씨가 만해 스님 전기를 펴냈다. 책은 만공 스님이 만해 스님의 아들 보국에게 스님의 일대기를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꾸며져 있다. 한자어 풀이와 3.1운동 관련 자료도 참고가 될만하다. 신 씨는 "누구나 줄줄 외는 '님의 침묵'의 만해 스님이 아닌 '교과서 밖의 한용운'을 그리려 했다"고 말한다.



■ **<불교만화이야기11>**(불교만화연구소 펴냄, 3천원)=불교만화연구소가 전하는 11번째 이야기. 이번 호에서는 성철 스님의 법문과 지장재일 · 우란분절의 유래와 의미를 만화로 볼 수 있다. '부처님의 생애로 배우는 영어회화' '백유경 이야기' 등의 코너도 눈에 띈다. 한편 불교만화연구소는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4회 전국불교만화공모전'을 개최한다. (02)3392-0334



■ **<성화 이야기>**(나카자와 신이치 지음, 양억관 옮김, 교양인)=
"만다라는 인간의 의식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탐사도구다." 일본의 신화인류학자 나카자와 신이치는 종교적 의미의 도상(圖像)인 '이콘(Icon)'을 인류학적, 종교적 상징으로 새롭게 풀이한다. 불교의 만다라부터 기독교 성화, 아메리카 원주민의 성화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의 이콘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낸다.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 순위 | 도서명 | 저·편자 | 출판사 |
|---|---|---|---|
| 1 | 오체투지 | 한경혜 | 반디미디어 |
| 2 |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 우룡 스님 | 효림 |
| 3 |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 도법 스님 | 아름다운인연 |
| 4 |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 청화 스님 | 이른아침 |
| 5 | 홀로 사는 즐거움 | 법정 스님 | 샘터 |
| 6 | 용서 | 달라이 라마 | 오래된미래 |
| 7 | 선방 가는 길 | 정찬주 | 열림원 |
| 8 | 선사들이 띄우는 깨달음의 편지 | 정념 스님 | 장승 |
| 9 |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 김성철 | 불교시대사 |
| 10 | 천문학자가 풀어낸 금강경 | 이시우 | 도피안사 |

도서 안내 : (02)737-0695




바로보인 환단고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파헤치다!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와 과학도 밝히지 못하는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놓은 환단고기.
전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문재현 선사님께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바로보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HYUN DAE BULKYO

한국불교태고종
달 마 선 원
사단법인 참나찾기지도자회
부설 한국선심리치료명상원
마음의전화
원효무애춤전승보존회
조 실 윤혜암 대선사
고 문
이사장 청광 도각
원 장
신도회·이수자·임직원 일동
■ 서울시 마포구 아현3동 614-23
TEL 02)738-1275
핸드폰 016-301-4080

대 각 정 사
주 지 해 각
사부대중일동
■ 대각불교대학 무료강의
(1, 3주 일요일)
■ 서울 강서구 화곡2동 835-3
TEL 02-2699-6384

승복 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쪼끼 60,000 두루막 170,000
3. 면 솜없이 누비(한국산 숯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쪼끼 60,000 두루막 160,000
4.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쪼끼 70,000 두루막 200,000
5. 모직 특수솜 누비(물세탁)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쪼끼 80,000 두루막 23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제일모직 250,000
실크 · 금낭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T, 니트모자, 마후라, 가방, 신도용 쪼끼, 바지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토굴(心자 도량)안내
가야산(1,430m)과 단지봉(1,327m)이 천을(天乙), 태을(太乙)로 받쳐주어 일체 흉액을 멸하는 곳 1,000m 준봉 7개가 둘러싸고, 봉우리 5개가 마음 심(心)자를 그려내는 해발 650m 고지의 30리 포천 계곡의 최상부 절옆 10m폭 계곡은 비경중의 비경 숨겨진 가야산 수행터임, 3km 절 뒤 임도는 청정 무공해 산책길
● 전기, 전화, 진입로 포장
● 대지포함 500평
● 위치 : 성주군 가천면 포천계곡내
● 가액 : 답사후 상의
문의 011-9366-8929



아함 혜장 스님의 '일한사탑 · 무진여화(一閒四榻 · 無塵如畵)'(동예헌 소장).

# 획마다 선(禪)이 넘치네

## 고승유묵展(2005년 5월 22일 까지)

### 역대 고승 작품 98점 일반인에 공개
### 한국 서예 1천 5백여년의 숨결 조명



서산 대사 휴정 스님의 '정선사가록'(대흥사 소장).

획획마다 서려있는 깨달음의 글씨. 바로 선필(禪筆)이다. 그것은 작자는 물론 보는 사람도 상(相)으로부터 얽매이지 않을 때 그 맛이 그대로 드러난다. 즉 선필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흔히 '글씨는 그 사람이다'고 말하듯이 선승 만큼이나 다양한 필체와 특징을 띠고 있다. 어떤 것은 들쑥 날쑥 제 멋대로 휘갈려 내려가 잘 쓴 것인지 못 쓴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선승의 글씨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통일신라시대부터 근 ·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대 고승들의 서예 작품 98점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서울 예술의 전당, 국립청주박물관,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회는 '고승유묵(高僧遺墨)-경계를 넘는 바람'이라는 주제로 10월 8일부터 2005년 5월 22일까지 세 곳을 돌며 전시회를 연다. 처음 공개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좀처럼 외부에서 접하기 힘든 작품들인지라 시작 한지 얼마 안됐지만 전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순회전은 국립청주박물관(10.8~11.30)을 시작으로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2005.1.11~2. 27)을 거쳐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부처님오신날 기념전(2005.3.23~5.22)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1천5백여년에 이르는 한국 서예의 역사를 선필을 통해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필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서예의 주류를 형성했으며, 격조와 개성의 필체로 새로운 기조를 이뤘다는 평가 받고 있기 때문.

400여 년 전 쓰여진 서산대사(1520~1604)의 글씨 '정선사가록(精選四家錄)'은 깨달음의 경지가 엿보인다. 원래 '정선사가록'은 중국 선문(禪門)의 대표적 4가(家)의 법문을 초록한 책. 핵심 요지는 자심(自心)이 곧 부처임을 알아 심외(心外)에서 따로 부처를 구하지 말고, 망상을 떨치고 무심(無心)의 상태에서 해탈 수행하며 어리석음을 버릴 때 부처와 하나가 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사명대사(1544~1610)의 행간에는 엄정함이 서려있다. 특히 짧은 생을 살았음에도 모든 서체를 두루 구사했던 혜장 스님(1772~1811)의 '용호첩(龍虎帖)' '약봉첩(躍鳳帖)' '임지첩(臨池帖)' 등은 당시까지 소화한 다양한 서풍과 서체를 종합적으로 구사한 작품으로 글씨에 대한 관심사와 그 폭을 짐작케 한다. 만해 스님(1879~1944)이 자신의 시를 적어뒀던 '만해필첩(卍海筆帖)'의 글씨를 보면 생사를 초월한 듯한 파격미가 느껴진다. 이외에도 초의선사와 추사 김정희, 지리산 일대의 선승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던 다산 정약용의 글씨도 전시회에 나온다. 또 김생(711~?), 탄연(1070~1159)의 필적이 실린 석각 탁본 '해동명적(海東名跡) 3책'도 선보인다.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02)580-1513, 통도사 성보박물관 (055)382-1001, 국립청주박물관 (043)252-0710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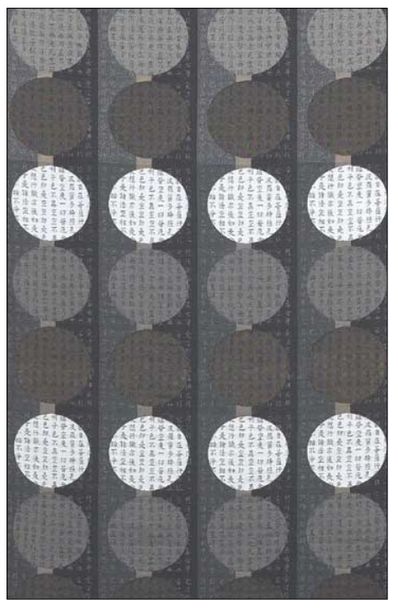
■제 20회 불교미술대전 수상자 발표

## 대상에 어수경씨의 '반야심경'

### - 컴퓨터 서체로 경전 글귀 직조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11일 '제 20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대상에는 공예부문에 출품한 어수경씨(35 · 인터뷰 14면)의 '반야심경'(사진)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통해 서체를 디자인 한 것. 배경의 원은 염주를 상징하며 자신의 신행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전인 <반야심경>이 일상생활속에서 계속된다는 의미로 경전 내용을 연속되는 원형 무늬속에 표현했다. 특히 어씨의 이번 작품은 불경 글씨를 검정, 회색, 흰색 등으로 배색해 직조한 섬유작품으로서 배색 효과가 뛰어나고 직조의 기술역량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최우수상 조각부문에 윤부철 씨의 '연화관음'과 회화부문에 김상용 씨의 '알 수 없는 영역'이 각각 뽑혔다. 또 우수상 회화부문에는 함보경 씨의 '수월관음도', 조각부문에 주매희 씨의 '불심', 공예부문에 문창대씨의 '관세음보살'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번 불미전에는 회화 108점, 조각 30점, 공예 17점 등 총 155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대상수



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천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시상식은 11월 3일 열리며, 수상작들은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전시된다.

총무원 문화부는 '한국불교미술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10월 3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기념관 1층 로비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주일 기자

■제 8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16일 개막



지난해 열린 대한민국 종교예술제중 미술제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사진 왼쪽)이 행사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관음보살도'를 감상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 미술 · 영화 · 음악 통한 종교 화합의 場 펼쳐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종교간 상호 이해와 화합을 위해 '제 8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술제, 영화제, 음악제 등 3개 행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10월 16~24일 9일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에서 열리는 '미술제'에는 서양화 41점, 한국화 24점, 조각 17점, 공예 9점, 서예 28점, 설치 2점, 판화 2점 등 총 123점을 선보인다. 불교계에서는 고영을 씨의 '극락을 방문하는 성모님', 이호신 씨의 '금강송과 반가사유상', 이점원 동국대 교수의 '육바라밀' 등 19점이 출품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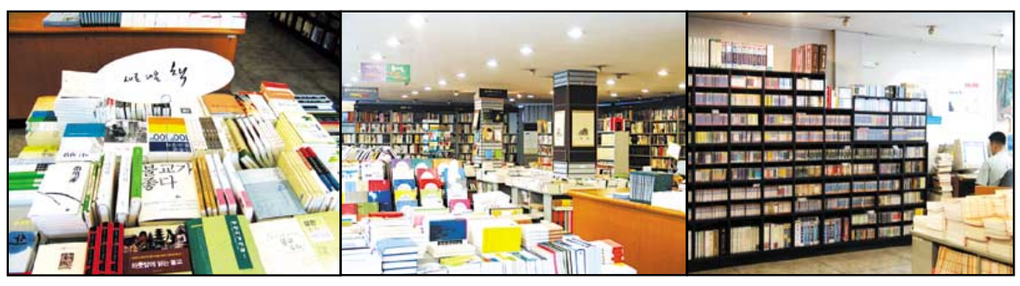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매일 2회씩(1회-19:00, 2회 21:00) 진행되는 '영화제'는 '신부수업'을 개막작으로 시작해 '달마야 놀자', '패션오브크라이스트', '터미널'과 폐막작으로 '축제'를 상영한다.

행사 마지막날 대미를 장식할 '음악제'는 10월 26일 저녁 7시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연주회는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시작으로 하유 스님의 '대고 연주', 국악인 오정해씨의 판소리 연주, 삼선승가대의 수화노래, 임마누엘 성가대의 합창, 'The Solist'의 아카펠라 합창, 소프라노 김영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독창 순으로 진행된다. (02)720-8776


불교서적의 요람으로 불자들과 함께한 10년!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Hot!

국내 모든 불서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주문으로
빠르게 받아본다!



불교의 기초부터, 선지식 이야기까지!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여시아문'과 만나십시오

1. 신비의 호흡요법
스와미라마 지음, 길연 옮김
신국판 / 240쪽/값 10,000원
관음출판사

2. 한국의 마애불
이태호, 이경화 글, 사진 유남해 외
신국 양장판 / 496쪽 / 값 45,000원
다른세상

3. 멍텅구리 부처님
불영자광(임붕준) 지음
신국판 / 338쪽 / 값 9,500원
도피안사

4. 365일 부처님 말씀
윤청화 엮음
4×6판 / 287쪽 / 값 7,500원
동승동

5. 금강경 강의
남회근 지음, 신원봉 옮김
신국판 양장 / 604면 / 값 20,000원
문예출판사

6. 김교수가 들려주는 불교이야기
김용덕 엮음 / 전 2권
각권 값 8,000원
도서출판 부름이

7. 바로보인 환단고기1,2,3
문재현 역저 / 신국판
값 1권12,000원 2권15,000원, 3권15,000원
바로보인

8. 그 곳에 스님이 있었네
임효림 지음
신국판 / 296쪽 / 값 10,000원
바보새

9. 도애 팔상록
오고산, 이종익, 심재열 편역
신국양장판 / 541쪽 / 값 15,000원
보련각

10.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혜능 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 / 1067쪽 / 값 30,000원
부다가야

11. 법화경 上 · 下
무비 옮김, 박상근 펴냄 / 신국판
상 282쪽 · 하 320쪽 / 값 각권 8,000원
불광출판부

12. 국내 최초 큰스님들의 일대기 집대성
한국 현대 고승 대전집
삼각형프레스

13. 워빠싸나 수행의 길
거해 스님 엮음
신국판 / 343쪽 / 값 12,000원
샘이깊은물

14.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지음
양장판 / 값 9,800원
샘터

15. 마음의 눈
문윤정 지음
신국판 / 296쪽 / 값 10,000원
솔과학

16. 선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여시아문

17.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방경일 글, 김장열 그림
국배판 변형 / 257쪽 / 값 10,000원
도서출판 솔바람

18.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말씀
신국판 / 컬러 도판 20컷 / 269면 / 9,000원
시공사

19.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도법 지음
신국판 / 382쪽 / 값 11,000원
아름다운 인연

20. 노스님의 젊음
지묵스님
신국판 / 336쪽 / 값 10,000원
우리출판사

21. 고려불화 실크로드를 품다
김영재 지음
신국변형판 / 384쪽 / 값 20,000원
운주사

22. 수도자에게 주는 글 해탈의 길
성철스님 지음
신국판 / 248쪽 / 값8,500원
도서출판 장경각

23. 선사들이 띄우는 깨달음의 편지
정념 엮음
신국판 / 292쪽/ 값10,000원
장 승

24.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슈리 담마난다 지음, 홍종욱 옮김
신국판 / 240쪽 / 값 8,900원
지혜의 나무

25. <21세기 자연건강시리즈> 지 압
폴 랜드버그 저 / 이의영 역
46배판 변형 / 192쪽 / 값15,000원
하남출판사

26. 명상수행의 바다
전재성 역
신국판 / 635쪽 /값30,000원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7. 행복하게 사는법 아름답게 죽는법
정재 지음
신국판 / 240쪽 / 값8,000원
행복한세상

28. 아! 청담
김광식 지음 / 신국판
352쪽 / 값 12,000원
화 남

29.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 1, 2
정민외 3인 지음 / 국배판 변형
282쪽 / 각권 값 15,000원
휴머니스트

30. 천문학자가 풀어 낸 금강경의 비밀
이시우 지음 / 신국판
348쪽 / 값 13,000원
도피안사

31. 바가반과 함께 한 나날
데바라자 무달라이아르 기록, 대성 옮김
신국판 / 384쪽 /값 13,000원
탐구사

32. 선어삼백칙(禪語三百則)
차차석 역해
신국판 / 420쪽 / 값 10,000원
여시아문

★ 본 연합광고 서적은 책방 여시아문에서 11월 30일 까지 특설코너를 마련하여 판매 할 예정 입니다 ★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책방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yosiamun.com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법공양 상담합니다>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3>



## 천사를 만나셨습니까

○○데이, ○○날이 젊은이들 사이에는 항상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그날 모든 방송에서 아나운서들이 일제히 '천사데이'라고들 하더군요.

내 원 참, 대체 이건 또 무슨 말이람….

부덜거리다가 달력을 보니 그날은 10월 4일이었습니다. 1004이니까 '천사'라는 말이지요.

주위에 눈을 돌려 나보다 딱한 사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천사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이벤트성 날들보다는 한결 그 취지가 건강하게 느껴집니다. 천사(天使)는 말 그대로 하늘의 심부름꾼입니다. 타종교에서는 착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는데 착한 천사는 신을 찬미하고 신에게 봉사하며 사람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사람이 선행을 하도록 권하고 악을 피하게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천사는 사탄이지요.

부처님도 천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천사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건 누구의 심부름꾼도 아니요, 당사자인 인간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착하고 악하다는 그런 구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염라대왕의 심문은 이어집니다.

"너는 세상 남자와 여자들이 나이 들어 머리가 희고 이가 빠지며 등이 굽어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겨우 거동할 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가? 그것이 두 번째 천사였다. 그리고 너는 세상의 남자나 여자들이 큰 병이 나서 앉아도 힘들고 일어서도 괴로웠으며, 죽을 날이 가까워 두려움이 그를 옥죄어 오지만 병을 고쳐줄 의사를 만나지 못해 고통 받는 것을 본 적이 없었는가? 그것이 세 번째 천사였다.

너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사람이 죽으면 살이 허물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한 줄기 연기와 함께 재로 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가? 그 죽음이 바로 네 번째 천사였다. 너는 세상을 살면서 나쁜 짓을 저지른 죄인이 끔찍한 형벌을 받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천사였다. 너는 네 자신도 그처럼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며 중죄를 지으면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상상을 해보지 못하였단 말인가? 그렇지 않고서 어찌 그리도 착한 일을 하려는 마음을 내지 않고 방심하고 쾌락에 빠져 일생을 보낼 수 있었던가?"(중아함 '천사경')

이런 부처님 말씀을 접하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 과연 세상에는 천사로 가득합니다. 태어남이라는 천사, 늙음이라는 천사, 병이라는 천사, 죽음이라는 천사, 형벌이라는 천사…. 아마 이런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일 것입니다. 왕위도 가족도 버리고 황황히 출가를 하셨으니까요.

## 세상의 덧없음은 내 몸에서 벌어지는 법칙
## 생로병사와 무관한 생명체 어디에 있을까

생로병사라는 천사와 무관한 생명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가까운 친척에서부터 이웃들, 그리고 저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사람들 하나하나에, 심지어는 내 몸에조차 이 천사는 깃들어 있습니다. 세상이 참 덧없고, 그 덧없음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도 틀림없이 벌어지는 법칙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토록 악다구니를 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천사의 모습을 보고도 느끼는 것이 없어서 날마다 악업만을 일삼는다면 나중에 쓰디쓴 과보가 돌아올 때 그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오직 제 스스로 그것을 받아야 한다고 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65일 중 어제 10월 4일 단 하루만 천사의 날이라 하겠습니까? 태어나서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천사의 날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 지혜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자

지상 백고좌

## 정광 스님

(문경 봉암사 태고선원장)



정광 스님은 늘 불자들에게 "마음공부와 함께 보현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처님께서 처음 인도 마갈타국에서 성도하시고 21일 동안 이 법을 생각할 때 "제법의 모든 모습은 적멸의 모습이라 말로서 이야기 할 수 없거늘 나는 설법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열반에 들겠다"고 생각하다가 방편력으로 5비구를 위해 설법해서 49년간 일대시교를 펼쳤습니다.

적멸상 그대로의 모습에 조금도 입을 열 것이 없는 것이지만 부처님이 방편설로 설하지 아니하였다면 세상에는 부처님의 불도(佛道)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고 원오 스님이 <벽암록> 중에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성문과 교문 일체를 통틀어서 부처님이 입 열기 이전의 적멸상을 깨달아야만 부처님이 말씀하기 이전의 본래의 모습과 뜻을 알 수 있고, 그래야만 훌륭한 스님, 본분종사, 본분납자, 바르게 수행하는 수행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시비분별 떠난자리 '본래 면목'

그렇다면 성문에서 이야기한 일구(一句)란 어떤 말씀입니까?

설두 스님은 "위로는 부처님이 있다고 보지 않고, 아래로는 중생이 있음을 보지 않고, 밖으로는 산하대지가 있음을 보지 않고, 안으로는 견문각지(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일상생활 가운데 육근육식으로 사유하고 느낄 수 있는 것)가 있음을 보지 아니한다.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처음 살아남과 같이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다는 사고를 전부 한덩어리로 똘똘 뭉쳐 이것을 잡아와서 하나하나 쓰더라도 한덩어리가 되어 다른 이견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일체 모든 일상생활에 응용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는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야 부처님이 말하지 않고 그대로 열반에 들겠다는 대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일체 삼라만상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난 본래의 심체의 모습(마음법, 본래면목)은 깨달은 사람만이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으로, 깨닫지 못한 경우에는 일체 시비와 분별상에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알려고 했는데 지금 깨닫고 보니 마치 훨훨 타는 용광로 불꽃 속에 녹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하나의 얼음덩어리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근본의 자성자리를 설명한 것으로 마치 일체의 모든 잡물을 다 거친 하나의 진황금 덩어리와 같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전 곳곳에 '부처님의 광명이 두루 비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에게 빛과 광명을 내려주신 부처님의 법문 중에 "일체 중생을 보니 여래의 지혜 덕상을 그대로 갖춰 있건만 망상 분별 집착으로 모든 중생들이 증득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부처님의 49년 설법 가운데 맨 마지막 하루동안 설하신 <열반경>에 '일체중생은 누구나 불성이 있다'는 가장 골수가 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인류의 평등과 자유 그리고 완전한 인격을 갖춘 인격상을 알 수 있는 첫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이후 일체중생이 누구나 수행해서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부처님의 원만한 광명을 현실에서 실천해 생활화할 수 있다고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실로 부처님의 법을 믿고 번뇌 망상을 쉴 것 같으면 틀림없이 부처님의 불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좋지 못한 습관에 짓눌려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생각과 업을 쉬지 못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걸 알고 부처님 법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 번뇌 망상 쉬면 드러나는 불성

육조 스님은 수행은 정(定)과 혜(慧)를 근본으로 삼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정과 혜는 두 가지로 분리되느냐? 정혜는 일체이며 둘이 아닙니다. 정 속에 혜가 있고 혜 속에 정이 갖춰져 있어요. 정이 부족하면 망상심에 요동하는 마음이 많으니 정을 앞세워 망상심을 쉬는 데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고, 지혜가 생기지 않아 근원적 판단 능력이 없으면 망상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혜를 먼저 이야기해서 우둔한 생각을 지워주는 쪽으로


역학 전문 포털 사이트



사주박사

www.drsaju.com

전문 역학인을 양성하기 위한 온라인 아카데미 프로 사주박사가 문을 활짝 열고 역학 고수를 꿈꾸는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프로 사주박사 (www.drsaju.com) 는...
* 프로 사주박사는 일반인들이 사주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 프로 사주박사는 역학에 대해 수준 높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각 분야의 권위있는 선생님들이 체계적인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역학 전문 포털 사이트 입니다.

2. 프로 사주박사가 회원님들께 드리는 파격적인 특전 - '사주박사 6.0' 사용
* 프로 사주박사의 회원(월 회비 36,000원)이 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전문 역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역학 전문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리게 됩니다.
* 역학 전문가용 최신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은 현재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역학 프로그램 중 오류를 완벽하게 수정, 보완한 최신 프로그램으로 개별 구입 시 가격이 150만원이나 하는 고가 프로그램입니다.
* 프로 사주박사 회원은 '사주박사 6.0' 프로그램이 수시 업그레이드 될 때도 제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회원님의 개인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 관리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역학에 자신이 붙으면 개인 홈페이지 하나쯤 갖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프로 사주박사 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는 회원님을 위해 저렴한비용 (초기개설비 6만원)으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정성껏 관리해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빌딩 3층 선도텔레콤 주식회사
Tel. 02)742-3025~8 Fax. 02)742-3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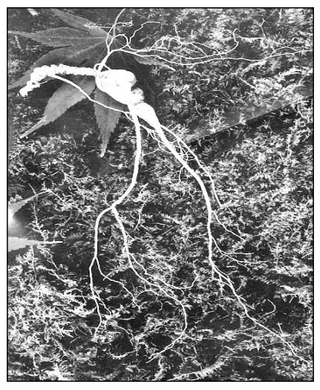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정광 스님은 성성적적(혜)하면서도 적적성성(정)한 정혜쌍수를 강조한다. 10월2일 동화사 당선대법회에서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는 사부대중.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이는 부처님의 정과 혜를 온전히 일체 중생들에게 갖춰주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에 기준하고 하나에 중심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대적광삼매 속에서 항상 지혜덕상이 갖춰진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지(止)는 항상 적멸한 것, 관(觀)은 적멸한 가운데 항상 비추는 것으로 지와 관이 둘 아닌 것을 법성이라고 합니다. 지와 관, 정과 혜, 적(寂)과 조(照), 적광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지혜덕상이 갖춰지지 않고 불성이 열리지 않습니다.

## 정에 혜가 있고 혜에 정이 있네

그래서 수행하는데는 정과 혜를 갖추고 지와 관이 둘 아닌 공부를 해서 일체 모든 번뇌와 시비심을 소멸해버리고 그런 문제에 끄달리지 않는 적광삼매를 수행하지 않게 되면 온 대지와 유정, 무정이 전부 뭉쳐 그대로 순수한 금덩어리가 되지 못하고 두 가지 이견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제자가 수행하여 경지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이런 사실을 수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치우치지 말고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를 우리가 실참수행해서 깨달아야만이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격외(格外) 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말도 이해하기 어렵고 이심전심한 부처님의 선법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에 따라가고 또 환경에 따라가면서 자기의 이견과 남의 이견에 따라서 이것저것을 주장하는 시비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선을 참구할 수 있고, 바른 종교인으로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선의 이야기는 옛날과 달라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고 선을 닦게 되면 닦는 사람이 스스로 잘못 이해하게 되고 바른 길로 공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간화선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옛 스님들이 공부하면서 깨달으시게 된 내용을 통해 간화선 성립까지의 선사상과 수행을 살펴봐야 합니다.

육조 스님이 처음 깨달은 내용을 확실히 안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을 기준으로 어디에 지침을 두고 수행해서 실질적으로 깨닫느냐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후대 스님들이 육조 스님으로부터 어떤 법을 깨달아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도 똑같은 경로를 밟는다면 수행에 있어 어그러짐이 없이 바른 수행으로 귀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난과 황금만능시대의 인간성 상실로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는 요즘, 불자들은 더욱 참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소박하고 담박한 마음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화두를 들고 수행한다면 그 순간부터 나의 사고와 지금까지 지녔던 결단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고, 미래 세계는 즐겁고 용기있는 세계로 전향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리=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 매일 14시간 가행정진 산문밖 출입 않기로 유명

**정광 스님은** 조계종 종립선원답게 봄, 가을 반결제까지 한 철도 쉬지 않는 사시사철 안거의 가풍을 이어오고 있는 봉암사 태고선원에서 정광 스님은 환갑이 넘은 세수에도 20~30대의 젊은 수좌들과 하루 14시간 가행정진하며 구참수좌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스님은 젊은 수좌들 사이에서 일상생활에 항상 솔선수범하는 분으로 정평이 나있다. 울력이 있는 날이면 항상 가장 먼저 나와 팔을 걷어붙이고, 정진시간도 철저히 엄수하는 스님은 '순수 그자체'라는 말로 대변되고 있다.

그동안 스님은 좀처럼 산문 바깥 출입을 않기로 유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스님은 특별한 외출을 했다. 10월 2일 열린 동화사 당선대법회에 논주로 나선 것이다. 스님은 "간화선을 제대로 알려 모든 이들이 생활선을 닦도록 한다는 당선대법회의 취지가 고맙고, 간화선이 일상 생활속의 선으로 탈바꿈되도록 제방선원에서 정진하는 모든 분들이 나오는 특별한 자리여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에 스님이 준비한 발제문은 간화선 수행을 하는 이들에게 의지처가 될 교재모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정성히 가득 담겨있다.

정광 스님은 요즘 유행하는 웰빙, 요가, 명상이라는 용어에 대해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하게 되면 거기에 온갖 만법과 묘용이 다 갖춰지니까 부질없이 깨닫는 것에 애쓸 필요가 없이 청정한 경계만 늘 지니고 수용하면 그대로가 부처님 경지라고 하는 내용의 선 공부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런 수행은 삼계를 벗어나 해탈도를 얻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간화선을 대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또 동참하겠느냐는 질문에 흔쾌히 "물론입니다. 누구든지 나서야합니다. 이 세상엔 동체대비 보현행원이 가득 차야 하는 것이지요"라며 미소를 지었다.

1942년 경남 창원에서 출생한 정광 스님은 20대에 <금강경>과 <임제록>을 읽고 출가를 결심했다. 61년 쌍계사에서 대월 스님을 은사로 득도, 이후 약 40년간 제방선원에서 정진해 왔으며 선학을 겸비한 선승으로 알려져 있다.

정광 스님이 봉암사를 오가며 정진한 것은 30여년전. 본격적으로 주석하게 된 것은 20여년전부터다. 스님은 해병대 제대이후 3년동안 잠 안자고 공부하기 시작한 후 <임제록>의 활발발한 무위진인의 경계에 대해 점차 확신을 얻기 시작했으며, 어느 순간 확연히 그 경지를 알게 되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보물 제138호)' 등 선종사 관련 비문들을 번역하며, 한국 선맥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남모르게 진행하기도 했다.



법현 스님의
## 스님이야기
원법 스님 (下)

원법 스님이 대전 보은정사를 창건할 때의 일이다. 보은정사는 처음에 보문산 중턱에 자리했는데 1970년대 말 박정희 대통령이 무허가 암자를 일제 정리할 때 자진 철거했다. 명분이야 여러가지를 내걸었지만 시국사건 연루자 등이 숨을 공간을 없애자는 속셈이어서 엉뚱하게도 암자를 운영하는 스님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원법 스님은 적법하게 지었기에 문제가 없었고 당시 공무원들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스스로 의심의 티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철거한 것이다. 사제들과 신도들이 소식을 듣고 걱정을 많이 하여 눈물까지 흘리며 철거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철거를 막고, 주지스님은 나서서 그들을 막는 차마 보기 힘든 일이 한동안 일어났다. 신도들이 스님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사찰을 수호하려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림 · 문병성

원법 스님이 해인사에서 출가하여 혜성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정진할 때 사찰은 어려웠지만 공부에 대한 스님들 열의는 대단했다.

하루 세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해서 물을 마시고 견디며, 봄이면 산에 물이 오르기를 기다려 송기를 벗겨 먹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부처님 정법을 얻기까지는 한시도 게으를 수 없다는 각오로 아침저녁으로는 참선을, 낮에는 염불 정진을 하였다.

그러던 해인사 시절을 마감하고 도심포교를 하기 위해 대전으로 와서 보은정사를 창건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시작됐다. 창건불사비용이 전혀 없었던 데다가 처음으로 와본 도시이기에 신도 조직도 하나 없었다. 그러나 말뚝신심 하나로 목탁을 들고 탁발을 나갔다. 해인사에서 낮에는 염불 정진하던 그 모습 그대로 관세음보살님을 지성으로 부르며 집집마다 찾아다녔다. 하루종일 걸어 다니다가 지치면 아무 곳에나 바랑을 풀어놓고 나물먹고 물마시고 잠을 청했다. 날이 새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예불을 모시고 또 탁발행각을 나섰다. 당시는 탁발승을 사이비라고 이상하게 보는 때여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렇게 3년 동안을 탁발해서 마련한 불사금으로 겨우 도량을 이룩했는데, 이제 막 자리를 잡아서 법회할만 하니까 철거한다고 하니 신도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신도들은 탁발까지 하는 스님의 정성에 감동해서 하나 둘 오기 시작한 그야말로 개미떼같은 불자들이었다. 그러나 원법 스님의 결의는 단호했다. 소크라테스가 약법에 의해 독배를 마시고 갔듯이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산 위 도량을 철거하고 나니 더 이상 산에서는 힘들겠다 싶어서 산 밑으로 내려와 천막을 치고 법당을 꾸렸다. 어려운 시절인데다 어려운 사찰이니 신도들이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도 않고 우리나라 불교가 자꾸 늙어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에서 청소년법회부터 시작했다.

원법 스님은 법당을 세우고 나서도 법회와 불공을 하는 나머지 시간에는 탁발을 했다. 탁발을 하면 당시는 쌀 한 두 됫박이 시줏물의 전부였는데 가끔 사탕이나 과자를 받게되면 돈보다도 더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일요일에 절에 오는 학생들에게 나눠주면 그 어떤 것보다도 호소력이 있는 법문이 바로 과자요 사탕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과자 먹고 사탕 먹고 자라난 신도들과 그들의 부모가 오늘의 보은정사를 있게한 원력보살들이다.

## 탁발해 도량 세우고 청소년 법회 열어 포교

신도들도 원법 스님을 닮아서인지 교도소법회나 소년원법회를 할라치면 주위에 알려서 법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권선하곤 한다. 참여자들은 보시의 공덕을 얻게 하고 법회를 듣는 원생들에게는 진리와 함께하는 물질의 기쁨도 함께 해 준다. 보은정사에 서예반과 다도반까지 결성해 열심히 전법하는데 대전이나 충남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봉사활동을 요청하면 뿌리치는 법이 없다.

스님은 명필이라 큰 사찰과 공공기관 현판 등에서 스님글씨를 가끔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괴산 다보수련원과 철원에 있는 월정리OP 석등이다. 다보수련원은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수련원을 필요로 하는 불교계의 소망을 이룩하기 위해 지은 대형 수련원으로 서돈각 이사장의 청으로 원법 스님이 상량문을 썼다. 월정리OP에는 석등을 세우면서 주관처에서 '남북통일석등'이라고 써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법 스님은 언젠가 통일이 올 텐데 굳이 남북을 갈라놓아야 겠느냐면서 '평화통일석등'이라야 글씨를 쓰겠다고 우겨서 지금도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 쓰인 간판 옆에 하나된 조국을 상징하는 모습으로서 있다. ■관악산 자운암 상임법사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인도, 네팔 성지순례(20일간)에 동참하실 스님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만을 위한 성지순례를 최상의 조건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인도 불교 8대성지와 산치대탑,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 카주라호, 포카라 등 인도와 네팔의 성지 및 주요 유적지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유롭게 순례하는 최상의 일정입니다.

■ 출발일 : 12월 25일 동참금 297만원
※ 20명 한정 (현재 8분) 안내 : 이상일 이사 (60여회 인도순례)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카주라호-아그라-상카시아-코삼비-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투만나

■ 인도, 네팔 성지순례 15일 (출발일 : 1월 13일) ..... 257만원
사부대중 누구나 동참 가능한 인도 성지순례 15일은 인도와 네팔의 주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정통적인 순례 일정입니다.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

■ 인도 성지순례 10일 (출발일 : 12월 28일, 1월 14일) ..... 198만원
성지순례 10일은 부처님의 자취가 어린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 일 정 : 델리-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라-바이샬리-파트나-라즈기르(영취산)-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

■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12월 9일) ..... 138만원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순례합니다.
● 일 정 : 인천-양곤-바간-만달레이-양곤-인천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 용, 인도에 사는 용 종족들이 숭배하는 신화의 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 하였습니다.
용의 배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대의 용이 탄생하였습니다.

◆ 이곳방생지 - 칠포해수욕장. 보경사는 15분거리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 봉안 낙성 준공식 및 용왕대재 : 2004년 10월 23일(음 9월 10일)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전망은 푸른바다와 들판, 뒤로 수렴한 명산이 병풍처럼 둘러 싸인 곳.
이곳이 바로 성지순례의 공덕, 길지라 하옵니다.... (용꿈꾸세요)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제141호 한불총02-44호 등재

대한불교 (禪)선종 총 본산 칠포 대원사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 바람 따라 은빛 물결 속으로

## 전국 억새명소 9곳



서울 상암 월드컵 공원 내 하늘공원 억새밭을 찾은 시민들이 억새의 멋에 흠뻑 빠져있다. 사진제공= 상암 월드컵공원

10월, 인근 들녘을 찾으면 하얀 파도가 일렁이는 듯한 억새바다를 만날 수 있다. 바람따라 눕고 일어날망정 절대 꺾이지 않는 억새. 산을 울긋불긋 물들이는 단풍처럼 화려한 멋은 없지만,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강인함과 은빛 은은함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드는 억새를 찾아 떠나보자. 억새축제가 열리는 서울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부터 국내 최대 억새 군락지를 자랑하는 취서산까지 전국 유명 억새명소들을 소개한다.

**● 도심에서 즐기는 억새 - 서울 상암 월드컵 공원**

'하늘공원 억새축제'로 더욱 유명한 서울 상암 월드컵 공원에는 대규모 억새밭이 조성되어 있다. 시민들이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인공 조성된 곳이지만, 이제는 자연의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많은 이들의 주말 나들이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매년 10월 중순경에는 억새축제와 함께 디지털 카메라 사진대회와 억새 추억담 공모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02)300-5539

**● 삼각봉 능선따라 은빛물결 넘실 - 포천 명성산**

경기도 포천시에 자리 잡은 명성산은 남한지역에서 억새가 가장 빨리 피는 곳이다. 삼각봉 안덕재에서 내려오는 화전민터 분지의 억새풀밭은 장관을 이룬다. 또한 남북으로 이어진 능선에는 암봉과 절벽, 초원이 교차해 독특한 경관을 연출한다. (031)530-8067

**● 화왕산성 주변 분지 군락 - 창녕 화왕산**

경남 창영의 화왕산은 진흥왕 순수비와 함께 억새로 유명한 곳이다. 정상 부근에 있는 화왕산성을 둘러싼 분지는 억새 군락이 형성돼 가을 정취를 맛보기에 일품이다. 매년 10월 중순에 억새제가 열리며, 창녕시내 쪽에서 오르는 자곡 코스가 일반인이 오르기에 좋다. (055)530-2000

**● 국내 최고의 산행코스 - 울산 취서산, 신불산**

울산 취서산에서 신불산으로 이어지는 산행코스는 억새를 만끽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산행코스이다. 특히 영남알프스의 대표적인 산중 하나인 이곳의 사자평고원 억새 평원은 150여만평의 국내 최대의 억새 평원을 자랑한다. 허리춤에 잘만큼 낮은 키와 짧고 뭉툭한 억새꽃으로도 유명하다. 사자평고원으로 오르는 길은 표충사에서부터 시작한다. (061)690-2225

**● 기암괴석 절묘한 조화 압권 - 광주 무등산**

광주 무등산은 장엄한 산세에 설경과 억새로 유명한 곳이다. 무등산장을 거쳐 꼬막재에 이르면 하얀 물결치는 억새 바다를 만날 수 있는데, 큰 바위로 병풍을 두른 듯한 천왕봉 일대의 서석대, 입석대 등과 함께 절경을 이룬다. (062)265-0761

**● 억새의 아름다움이 물씬 - 지리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에 조성된 억새는 남한 최고 억새 군락지 중 하나로 손꼽힌다. 고리봉에서 만복대, 정령치로 이어지는 등산로와 성삼재 주차장에서 만복대로 이어지는 능선 길은 억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에 충분하다. (063)625-8911

**● 다도해 속 억새춤 장관 - 장흥 천관산**

장흥에 위치한 천관산은 억새와 다도해, 기암괴석의 절묘한 조화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주봉인 연대봉에서 환희대까지 오르는 길에는 40만평에 걸쳐 펼쳐진 억새들의 넘실거리는 춤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매년 10월 중순경에 억새축제인 억새재가 열린다. (061)863-7071

**● 서해 낙조와 어울린 억새 일품 - 보령 오서산**

보령 오서산은 정상까지 오르는 완만한 주 능선의 억새가 환상적이다. 천수만을 지나는 고깃배들이 산위 억새밭을 보고 방향을 잡았다고 해서 일명 '서해 등대'로 불리는 이곳의 억새밭은 붉은 서해 낙조와 어울려 장관을 이룬다. (041)936-5465

**● 도로를 하얗게 수놓는 제주 억새 - 제주도**

제주도는 시내만 조금 벗어나면 도로를 따라 억새밭이 빼곡히 펼쳐져있다. 특히 석양 무렵 성산 일출봉에서 민속마을로 빠지는 1119번 지방도로의 '억새오름길'은 이국적인 정취가 물씬 배어나는 곳으로 데이트 코스로 적격이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억새 군락지는 북제주군 조천읍 '산굼부리'와 1118번, 1112번 지방도로의 교차점 등이 있다. (064)783-9900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 불교TV · 대구불교방송 가을개편

불교TV 휴먼다큐 · 교양프로 강화

대구 BBS 명상음악 · 문화저널 등 신설



불교TV가 가을개편으로 첫 선을 보인 '명상음악산책'.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음악들을 선별해 방영한다.

불교TV와 BBS 대구불교방송이 휴먼다큐멘터리와 교양프로그램을 앞세워 시청자 눈길 사로잡기에 나섰다.

불교TV는 개국 10주년을 맞아 불교TV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가을 개편 프로그램을 10월 25일부터 선보인다.

'휴먼다큐 아름다운 사람들'(목 09:20)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선행을 하는 불자들을 소개하는 코너. 28일 첫 방송에서는 80년대 초 드라마 '사모곡'의 주제곡을 불렀던 가수 이경미 씨의 행적을 쫓는다.

인도 티베트 유럽의 명상음악과 뉴에이지 음악을 소개하기 위해 신설된 '명상음악산책'(월~토 07:50/21:30)은 독일의 명상음악가 도이터의 'Buddha Nature'로 첫 시간을 연다. '절로 가는 길'(금 08:20/13:10/19:30)은 사찰의 역사에서부터 교통정보 주변 먹거리 등 통합관광정보를 제공한다. 스님과 불자들이 겪는 법률문제는 '손경락 변호사의 법률이야기'(화 09:20/20:30)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밖에도 불교문화를 묵묵히 이어가는 장인들을 찾아가는 '우리시대의 장인'(금 12:00/22:10), 큰스님의 출가 수행 근황 등을 대담형식으로 푼 '산중대담 선지식을 찾아서'(목 12:00/22:10) 등 교양정보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됐다.

또 '불가비전수행 선무도'(토 09:20/20:30), '체험! 붓다의 수행법 위빠사나'(월 09:20/20:30) 등 불교수행법으로 본 건강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BBS 대구불교방송도 가을 정기 프로그램 개편으로 지역불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불교방송은 매일 아침에 방송하던 '아침저널 2부'를 없애고 매일 오후 2시 40분에 '뉴스 매거진 전진수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매일 오전 10시 55분에 방송되던 '오늘의 독경'을 '우학 스님의 우리말 반야심경 독송'으로 바꿨다.

그리고 매일 9시 5분부터 '서연스님의 음악이 있는 명상'을 통해 음악과 함께 부처님의 말씀과 경구를 들려주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5분부터 '이병배의 주간문화저널'을 통해 한주간의 지역 문화가 소식 등을 전한다.

## 일산 장안사, 탱화 점안식

## 중국 청도 · 태산 등 참배

중국 청도지역에 분원을 개원하는 등 중국포교활동에 진력하고 있는 일산 장안사(회주 병진)가 탱화 점안식을 11월 1일 개최한다.

또 탱화 조성을 축하하고 성근 공덕을 쌓기를 원하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중국 참배행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참배행사는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7박 8일간 진행되며, 청도와 태산, 곡부, 추박, 제남 등지의 중국 문화유적지를 돌아본다. 대표적인 문화유적지로는 장보고의 활동상이 남아있는 석도 적산법화원과 중국사찰 영암사, 중국 3개 건축물로 손꼽히는 공묘와 천황전, 순마갱, 제도고성 등이다. (031)901-1954

## 전시

### 세상에서 가장 큰 책

**화봉 책박물관 개관 기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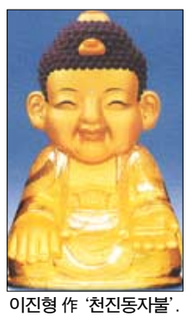
화봉책박물관에 전시된 '세상에서 제일 큰 책' <BHUTAN>.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문을 연 화봉책박물관(관장 여승구)이 개관 기념전 '세상에서 제일 큰 책 · 세상에서 제일 작은 책'을 10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개최한다.

전시회에서는 세계 기네스협회가 인증한 세상에서 제일 큰 책인 <BHUTAN>과 제일 작은 책인 <OLD KING COLE>을 비롯해 30개 국 900여권의 책이 선보일 예정이다. <BHUTAN>은 부탄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담은 사진집으로 책을 펼쳤을 때 가로 213.36㎝, 세로 152.4㎝고, <OLD KING COLE>은 가로 세로 각각 1mm로 스코틀랜드의 자장가를 소개하는 책이다. (02)735-5401

### 돌과 나무에 새긴 불심

**문화재기능인작품전 31일까지**



이진형 作 '천진동자불'.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회장 최기영)가 덕수궁 내 궁중유물전시관에서 10월 14~31일까지 '제7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을 연다. 이번 작품 전시회에는 문화재 보수 · 복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문화재기능인의 우수한 창작품 151점을 전시한다. 출품되는 작품들은 송광사국사전 모형도를 포함한 목공14점, 반야심경병풍 외 화공17점, 동자상 등 목조각 43점 외 석조각과 칠공예품 등.

특히 부처님을 천진스런 동자의 모습으로 표현한 '천진동자불'은 이 전시회의 마스코트. 또 우리나라 고대도금법인 수은(아말감) 도금법으로 재현한 '수은도금금동여래불입상'도 눈길을 끈다. (02)3672-8803

### 고즈넉한 산사 화폭에

**홍성오 개인전 20일부터 26일까지**



홍성오 作 '통도사 일주문'.

사찰의 단아하고 고즈넉한 모습이 한지 위에 수묵담채로 펼쳐진다.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공평아트센터 2층에서 열리는 수묵화가 홍성오 씨의 '사찰 그림전'이 바로 그것.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월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통도사 일주문', 선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선운사 도솔암', 저녁 노을이 진 산사의 모습을 옅은 농담으로 처리한 '남산 보리사' 등 30여점이 벽에 걸린다.

현재 동국대 대학원에서 미술학을 전공하고 있는 홍씨는 전시회 후 전국 20여 사찰의 사계를 화폭에 옮길 계획이다. (02)733-9512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기능성 숯단주

고강도 비장탄을 깎아 만든 숯단주. 숯의 탄소덩어리들이 팔목의 19경혈을 자극해 기와 혈의 순환을 돕고, 몸의 어혈을 풀어주는 동시 기도와 참선 시 집중력을 높여준다. 재질: 비장탄(숯) 8mm, 수정 8mm, 음양석 10mm. 가격 : 4만 5천원. (02)732-1520



### 창간 10주년기념 퍼즐 정답

| | | | | | |
|---|---|---|---|---|---|
| 현 | 대 | 화 | | 가 | |
| 대 | | 부 | 다 | 피 | 아 |
| 불 | | | 문 | | 승 |
| 교 | 양 | | | | 기 여 |
| | 모 | | 용 | | 시 |
| | 붓 | 다 | 뉴 | 스 | 아 |
| | | 비 | | 승 | 문 |

### 496호 20면 상식 퍼즐 정답

| | | | | | |
|---|---|---|---|---|---|
| 삭 | 정 | 이 | | 수 | |
| 발 | | 수 | 처 | 작 | 주 |
| 염 | | | 가 | | 유 |
| 의 | 발 | | | 소 | 일 |
| | 원 | | 검 | | 사 |
| | 문 | 경 | 지 | 교 | 양 |
| | | 허 | | 감 | 사 용 |

※경품 당첨자는 다음호에 발표합니다

## 게시판

### 함께 해요

**불교문화 유적지답사** 광주불교문화대학이 1월 31일 '제67차 불교문화 유적답사'를 떠난다. '지리산 구산선문의 유적지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뤄지는 이번 답사는 실상사, 벽송사, 백장암 등을 찾아보는 사찰탐방 형식으로 진행된다. 상시접수. 참가비 성인 2만 5천원, 어린이 1만원. (062)228-9098

**레크리에이션 교육**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가 10월 20일, 27일 수요 레크리에이션 교육을 진행한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교육은 20일 실내놀이 배우기, 27일 마술배우기 등 법회 진행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기법을 배우는 자리이다. (02)738-7860

**전통문화체험교실** 국립중앙박물관(museum.go.kr)이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2004 주말가족 전통문화체험교실'을 연다. 문화체험교실은 10월 23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도자기 만들기 및 선사시대 불피우기 체험, 왕관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참가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차 14일부터, 2차 21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 (02)2077-9227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 서울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이 지역청소년들의 숨은 끼와 능력을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를 10월 31일 수련관 지하1층 소극장에서 진행한다. 참가신청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10월 23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02)838-1318

**제물포예술축제** 인천예총이 10월 23~24일 남구 숭의동 수봉문화회관에서 '제22회 제물포예술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는 길놀이, 댄스스포츠, 인천바로알기 퀴즈, 연극, 코믹매직쇼, 자장면 먹기대회, 시민노래자랑 등으로 꾸며진다. (032)873-5174

**단축 마라톤대회** 경기도가 '제5회 경기도지사기 단축 마라톤대회'를 10월 24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다. 경기코스는 5km와 10km이며 단체전은 시-군별 대항전으로, 개인전은 남자 6개부문, 여자 5개 부문으로 나눠 각각 열린다. (031)944-0164

**단풍문화축제** 서울 심곡암이 단풍문화축제의 일환으로 10월 31일 암자 내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또한 암자 내 문수전 개원 기념 회화전도 마련한다. (02)914-8860

**불우이웃돕기 벼룩시장** 경기도가 불우이웃돕기 점프벼룩시장을 10월 23일 일산구 백석동 알미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벼룩시장과 기증품 판매, 외국인장터, 여성-노동-인권-평화-환경 등 단체별 테마부스가 마련된다. (031)967-9945

**합격발원기원법회** 강남 봉은사가 10월 23일 대웅전에서 2005학년도 수험생 합격발원 기원 삼천배 청야정진 대법회를 진행한다. 당일참가 가능. (02)3218-4800

**가릉빈가 합창단 연주회** 불교방송이 가릉빈가 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연주회를 10월 20일 아미가 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 연주회는 1부 민요와 가곡, 중간테너 이동원 씨의 독창, 2부 오페레타 아미타불 등으로 진행된다. 011-244-6293

**여성복지사업 기금지원** 부천시는 여성복지사업 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희망 단체 및 법인의 신청을 10월 22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 사업은 내년도 추진사업으로 여성 권익증진, 남녀평등 및 여성발전사업, 여성 국제협력사업 등이다. (032)320-2361

**경기산업디자인 전람회**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부천시 테크노파크에서 '제9회 경기산업디자인 전람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 및 일반인 등에게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한 이번 자리는 자유테마, 기업지정테마 등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031)259-7200

**인천, 어제와 오늘展** 인천광역시도진도서관이 개항기 전후의 인천의 모습들을 살필 수 있는 사진전시회 '인천, 어제와 오늘展'을 10월 18~24일(작전 역사), 25~31일(인천터미널 역사) 개최한다. 전시되는 작품들은 향토사진작가 최용백 선생의 작품들이다. (032)763-8132~4

신행수기

# 진실한 믿음 〈하〉

지영숙 (서울 강동구 천호동)

나는 열차에서 참으로 소중한 인연의 법문을 듣고 많은 의문점들을 해결하게 되어 너무도 기뻤지만, 단 한가지 뇌리에 빙빙 돌면서 시원치 않은 것은 "어떻게 열 번의 염불로 윤회를 벗어날까?"하는 것이었다. 염불만 하자니 지적이지 못한 것 같고, 믿지 않으면 선근이 적은 탓이니 괜스레 고민이 되었다.

그러나 기왕 부처님의 말씀이요, 스님의 권고를 따르기로 했으니 지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진실한 믿음을 갖기로 했다. 길고 긴 염불 정진이 시작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일이었다. 불안은 동풍에 구름 걷히듯 사라지고 단숨에 서울역에 다다랐다.

나는 역에서 내린 후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수없이 읊었다. 마중 나온 우리집 어른도 놀라는 기색이었다. 얼굴이 밝고 편안해 보였다는 것이었다. 믿음과 염불의 위력을 실감하는 여행이었다. 그 후로 나는 다음 달을 기다리며 집에서도 열심히 염불하고 법문 듣는 생활을 계속했다.

내가 기다리던 또 한 달의 보름날이 다가와 나는 기쁜 마음으로 부산을 멀다 않고 내려 갔다. 스님은 어떤 거사님과 지리산을 간다 하시며 동행하자고 하여 따라가게 됐다. 그렇게 한번 가고 싶었던 칠불암이었다. 그 때는 마침 하안거 결제 기간이라 선방에는 출입금지 푯말이 걸려 있었다. 스님은 살며시 사립문을 열고 따라 오라 하시며 안으로 들어섰다.

선방 스님들은 더워서 문을 모두 열어 놓고 정진하고 계셨고, 마당의 푸른 잔디들은 좌선하는 듯 싱싱하게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스님은 나에게 손짓만을 하면서 마당 한가운데 잔디 위에서 절을 하셨다. 그러자 나도 스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진한 감동을 받고 우러르는 마음으로 절을 하였다. 그 순간이 그렇게도 편안할 수가 없었다. 세 번 만 절을 하는 것이 아쉬워 오래오래 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선방의 반대편 스님들은 절하는 모습을



그림 · 김홍인

## 진실한 믿음 갖기위해 안간힘
## 염불정진 할수록 '감동' 밀려와

바라보는 듯했다. 절을 마치고 잔디 한 쪽에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스님!" 하면서 어른 스님 한분이 나오셨다. "스님! 어쩐 일이요?" 하자, 스님은 "입승스님, 제가 부처님들께 참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빈 손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했다. 입승스님은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렇게 훌륭한 보살님을 선물하시고" 하면서 나에게 다가와 "참 훌륭한 보살입니다. 이 이쁜 얼굴, 고운 옷으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게을리 하겠습니까. 보살님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스님들도 다 같은 생각입니다." 하시면서 내 등을 두드려 주셨다.

나는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입승스님은 "스님! 고마워요, 열심히 정진합시다" 하시면서 작별 인사를 하였고, 스님과 산길을 내려왔다.

나는 이렇게 감동적인 광경을 생전 처음 보았고, 마음에서 우러난 존경심으로 절을 하기도 처음이었다. 나는 "오늘 뵌 스님들이 꼭 부처님 같이 느껴져서 정말로 온 몸과 마음으로 절을 했습니다" 고 하였다.

그랬더니 스님은 "저 분들은 모두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부처님의 화신이 아니고서야 이 더운 여름에 저렇게 정진하겠습니까" 하셨다. 그리고 다시 "염불정진이 깊어지면 모든 생명, 자연까지도 부처님의 화신으로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먼저 진실한 믿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라고 하셨다. 그때서야 나는 스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그러자 내 마음 심연으로부터 "열 번의 염불로 극락을 가니 수없이 정진하면 극락이 내 곁으로 다가오리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날부터 이 믿음에서 단 한번도 물러서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아니 절 길을 걸은지 50여년 만에 진실한 믿음을 얻은 감격스런 날이었다.

스님은 누구든지 의문을 갖는 깨달음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다. "염불은 내면의 번뇌를 소멸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신앙의 빛을 일으켜 일체의 인연과 은혜에 감사하는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라고 하신다. 나는 이것도 깨달음인가 하고 의심했으나 점점 날이 가면서 염불의 깨달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느끼고 있다. 아직은 스님 같은 깨달음이 아니지만 괴로움, 분노와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른다.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안에서 살고 있다는 믿음으로 안심을 얻는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인연과 하나하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 몸과 생활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실감하고 있다.

내 비록 번뇌가 가득하고 욕망을 끊지는 못했지만 끝없이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고 정토를 그리워하면 마침내 그 세계에 태어난다고 하셨으니 나는 진실로 믿고 따를 뿐이다. 믿음과 이해가 깊어지면 이 땅에서도 가슴 벅찬 환희심이 날로 크게 일어날 것이라 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진실로 믿고 정진할 것이다. 저 또한 아미타 부처님과 스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염불수행을 보급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발원한다.

이 땅의 모든 스님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정진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발원하고, 모든 불자님들도 진실한 믿음 일으키시기를 아미타 부처님전에 발원하나이다.

신행수기 잘 쓰려면

글쓰기 요령 ①

## 편안한 마음으로 '고백' 하듯 쓰자

**●신행수기란 무엇인가**

수기(手記)란 자기의 생활이나 체험을 기록한 글이다.

고요한 마음에 까닭없이 어떤 바람이 일어 풍랑을 일으켰다가, 그것이 어떻게 스러져 다시 고요한 상태가 되는가 하는 마음의 현상에 대한 기록이 신행수기에 포함될 수 있다. 평지풍파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의 '본래 없음'을 깨닫는 자각이라든지 성찰 · 반성 · 깨달음 그리고 각자가 신행 생활을 하는 동안 갑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울림이거나 어떤 내적인 변화.

즉 전미개오(轉迷開悟)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한 단계의 성숙이거나 참회의 기도나 뜨거운 눈물로써 마음 한번 바꿈으로 해서 획득하게 되는 내면의 평정, 혹은 자유, 해탈에 이르게 되는 등의 신행 체험이 근간이 될 것이다.

**●수필과 수기**

문학은 표현이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표현하려고 애써야 한다. 기쁨 · 슬픔 · 외로움 등의 정서나 평화 · 자유 · 억압 · 해탈 등의 관념은 눈에 보여지는 사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학 속에서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한다. "아! 나는 외롭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건 문학이 아니다. 옛 시인은 외로운 여인을 '추선(秋扇)'이라는 사물로 표현했다. 여름에 사랑을 받다가 가을이면 곧 버려지는 부채에다 외로운 여인을 비유했다. 이렇게 정서나 관념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해 내는 것을 형상화라고 한다. 가령 "동전이 떨어졌다"는 표현을 "백 원짜리 동전이 마룻바닥에 똑똑 떨어져 또르르 굴렀다"로 고쳐 보자. 훨씬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마룻바닥에 떨어지면서 똑똑 두 번을 튀고 구르는 동전의 모양이 눈앞에 그려진다. 기왕이면 '수기'도 문학 작품이 되게 써 보자.

맹 난 자(수필가, '에세이문학' 발행인)

(전문은 www.buddhanews.com에 게재됩니다)

릴레이 수행일기 〈하〉



황영채
도서출판 '행복한숲' 대표

## '지금 여기의 나' 알아차리기에 매진
## 위빠사나 수행 생활화되니 자신감

위빠사나를 하려면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할 때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지나간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오직 현재 하고 있는 동작, 느낌, 생각만을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실재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위빠사나에서는 관념이나 명칭 혹은 모양새는 알아차림의 대상이 아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나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무상을 느끼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아,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 하고 그런 일로 감상에 젖어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다.

이와 같이 '현재,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할 때에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를 깨달아 집착이 떨어지고 번뇌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도 이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으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이 방법이 번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깥 경계가 아닌 자신의 몸과 마음만을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몸과 마음이란, 곧 오온(五蘊)이고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을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릴 대상을 신(몸), 수(느낌), 심(마음), 법(알아차릴 대상)의 4 가지로 분류하여 좀 더 쉽게 수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위빠사나를 신수심법(身受心法) 4념처 수행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위빠사나를 '일상의 알아차림'이라고도 한다. 위빠사나는 꼭 자리를 잡고 앉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행주좌와(行住座臥) 중에 다 가능하다. 누어서도 알아차림을 하면 와선(臥禪)이 된다. 가려운 것, 아픈 것도 알아차리면 느낌을 아는 수념처가 되고 화나는 것, 싫어하는 것, 망상 등을 알아차리면 마음보는 수행이 된다.

이런 모든 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릴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바로 수행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법념처다. 그렇게 되면 노력하기에 따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수행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위빠사나는 스승을 잘 만나야 한다. 수행 중에 일어나는 세세한 부분에서의 일들은 경전이나 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훌륭한 스승들은 이미 자신이 경험하고 또 스승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지혜와 방법으로 지도한다. 나는 평소에 '마음보는 수행(心念處)'를 하고 싶었다.

느낌이나 몸을 보기보다는 마음보기가 나에게 더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는 묘원(한국위빠사나선원장) 선생님으로부터 마음보는 수행을 배우고 있다. 정기적으로 선원에 나가 법문도 듣고 경행과 좌선을 한다. 이렇게 선생님의 법문을 듣고 개별적인 면담을 하면서 선생님이 미얀마에서 다년간 수행하면서 터득한 쉐우민선원과 마하시선원의 수행법을 고스란히 배우고 있다. 우리 선원에서는 종종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

"자 눈을 감고 손을 바닥에 대 보세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손과 바닥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느낌으로 아세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단단하고 차갑습니다."

"그것입니다. 손과 바닥은 관념입니다. 하지만 차가움, 단단함은 현재의 느낌이고 실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무슨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위빠사나 수행은 늘 가까운 곳에 있어서 좋다.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홍천 연화사
아미타 대불 성지순례
동양최대 아미타 대불
(높이:36m 아파트 12층 높이)
부처님 몸 안으로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은중경 · 극락도 · 지옥도 · 관람
7층에 올라가면 부처님 몸안에
미타삼존불 법당이 있습니다
1층에 열두 분 부처님을
한자리에서 친견합니다.
▶ 대형주차장완비
▶ 점심공양 가능
▶ 입장료 무료
◆ 주위 명소 :
홍천온천, 천년고찰 수타사
●찾아오시는 길
연화사
북방삼거리
홍천IC (중앙고속도로)
●매월 : 초하루 및 보름 (조계사 앞 관광버스 출발)
www.yhs108.com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1리 664번지 연엽산 연화사
전화 : 033)433-1815. 433-2009 팩스 : 033)433-5206

영험도량
퇴마승
불보살님 가피력 받는사람
참회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 갖는사람
누구나 4차원 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陰)을 양(陽)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면 육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 중병은 70~80% 4차원 장애
● 육체, 마음 고통은 4차원 장애
● 기타, 인생사 4차원 장애
▶ 인연기도로 가피를 받은 사례 ◀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 금전욕, 애착, 그리움, 미움을 갖고 살아가면 사후에 구천을 떠도는 파장이 되어 직계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해 원 사
초 하 루. 18일 법회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1천년간 썩지 않는 신비의 연밥? 연자육
(조금만 드셔도 공복감이 없습니다)
(껍질 벗긴 식용 연씨앗)
수행하시는 스님, 수험생에게 집중력 강화 !!
수행하시는 스님, 수험생에게 집중력 강화
신장, 비뇨기, 집중력 향상 및 혈액순환을 도와 줍니다.
다이어트를 하시고자 하는 분 에게도 좋습니다
● 취급식품
· 연자육 속살
· 유기농 빵 (백련잎빵 / 연꽃씨앗빵)
· 백련국수 / 백련칼국수
· 백련차 / 백련잎차
(주)좋은씨앗 연자육은 바로 드실 수 있도록 껍질을 벗겨 연자육 속살만을 태양에 자연건조 진공포장 하였습니다.
좋은 씨앗
전국지사문의: 080-534-4700 / 제품문의: 042-528-4415

불모산영산재 학인모집안내
시 간 매주 화, 수, 금 하오 2시 ~ 5시까지 00명
과 목
화 - 작법무(다게, 운심게, 삼귀의, 오공양, 요잡)
수 - 범음, 범패(불교의식 및 사물)
금 - 바라무(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명바라, 요잡바라)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2호
불모산영산재보존회 무학산 백 운 사
범음범패 · 법고무 예능보유자 주지 김석봉(철우)
경남 마산시 교방동 489번지
전화 055)246-7790 / 팩스 055)221-7769
휴대폰 011-852-1760

인사동에 문 연 한국국제차엽연구소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서 '차 품평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사)한국차인연합회와 한서대 정인오 · 짱유화 교수(차학전공) 등은 최근 서울 인사동에 '한국국제차엽연구소를 열고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했다. '차 품평'이란 과학적인 방법으로 찻잎의 품질을 검사하고 등급을 정하는 것. 그 결과가 제다 방법과 차의 가격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차문화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0월 8일, 차문화 연구와 교육의 장이 될 연구소를 찾았다.

# 객관적 평가로 우리차 국제화 기대


한서대 건강증진대학원 차학전공 과정의 학생들이 한국국제차엽연구소에서 국제규격에 맞는 품다기구를 갖추고 품다교육을 받고 있다.

## 전문인 양성위한 강의실·품평실 마련
## 교육 이수 후 한·중 시험 응시 자격 부여
## 제다방법·올바른 차 선택 기준 제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제 차 품평사 자격 인증시험을 치르게 될 연구소에 들어서자 기자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600여 종류에 달하는 차였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녹차와 발효차 등은 물론이고 중국과 대만, 일본 등에서 수입해 온 각종 차들이 학생들의 '품다(品茶)'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의실 옆에는 국제규격에 맞는 품평대와 찻잎 수분 측정기까지 갖춘 품평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현재 연구소에서는 차품평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차 품평 자격을 다섯 단계로 세분화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소 산하기관인 대한민국 차품평위원회와 국제명차품평위원회 그리고 중국 절강(浙江)대학교가 공동으로 인증하는 차 품평 자격시험과 중국 정부가 인증하는 차품평원과 품평사 자격시험에 맞는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다. 교육 이수 후에는 국내 및 국제 차품평 자격 인증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르면 내년 1월에 연구소 자체의 차 품평 시험을 치르고 2월에 중국 절강성에서 중국 기준의 품다시험에 응시하게 될 예정이다.

이 밖에 차학 기초 교육과정과 제다 연구 과정, 한중일 차문화사 연구 과정 등 차 애호가들과 일반인을 위한 강좌도 마련돼 있다. 한국차인연합회의 교육실이기도 한 이곳에서는 한서대 건강증진대학원 차학전공 학생들의 실습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연구소에서는 산하기관으로 대한민국 차품평위원회와 국제제다연구회 그리고 국제차문화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차품평위원회는 차품평사 자격 인증시험을 볼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하고, 국제제다연구회는 국내 제다 기술을 중심으로 녹차, 청차, 홍차 등 국내외의 각종 제다법을 연구하게 된다.

정인오 소장은 "중국이나 일본, 대만 등 세계적인 차 생산국들은 차에 대한 품질평가 기준을 마련해 차의 등급을 정하고 거래의 기준과 제다기술 발전의 바탕으로 삼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객관적인 차 품평을 통해 제다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다방법을 제시하고 소비자에게는 차 선택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품다란 단순히 차의 맛이 좋고 나쁨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차 속에 담겨진 절대적 값어치를 가려내는 작업입니다. 일반적인 시음회 수준이 아닌, 국제기준에 맞춘 품평으로 우리의 차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는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차 자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02)6263-7575

글=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 강원도, 녹차 생산단지 조성

그동안 추위 때문에 남부지방에서만 재배되는 것으로 알려진 차가 강원도 영동지역에서도 재배될 전망이다. 강원도농업기술원은 최근 차나무를 고랭지에 심어 토사 유출 방지는 물론, 고랭지 채소 대체 작목으로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산 차 주산단지인 전라도 보성과 화순, 고창 등지에서 수집해 심은 차나무 묘목 재배에 성공한 농업기술원은 차나무를 안정적인 고소득 작목으로 정착시켜 강원도를 대표하는 녹차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지난달 대학교수와 차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강원 차 사업단'을 발족, 2006년도까지 내한성 고품질의 차나무를 개량하고 차 생산 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등 녹차 생산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 장미향 씨 <아홉번 덖고…> 발간



20여년 동안 차를 만들어 온 진주산업대 장미향 명예교수가 차 문화를 망라한 책 <아홉 번 덖고 아홉 번 말리고>를 펴냈다.

이 책은 지난 1년간 <무등일보>에 연재된 '다인이 쓰는 차 이야기'를 묶은 것으로, 차를 만드는 법과 달이는 법, 마시는 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다도구의 종류와 생활 속에서 쉽게 차를 마실 수 있는 법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지은이는 현재 순창 조씨 절민공파의 종가 뒤편 대나무 사이에서 나는 찻잎으로 무공해 죽로차를 만드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 '설록차 문학상' 공모

(주)태평양 설록차는 12월 20일까지 '제4회 설록차 문학상'을 공모한다. 차에 관련된 주제라면 어떤 것이라도 접수 가능하며 시조 및 동시조, 일반시, 동시 부문을 모집한다. 참가대상은 초등부와 중 · 고등부, 일반부 세 부문이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2백만원과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수상자 발표는 2005년 1월 14일. 설록차 홈페이지(www.sulloc.co.kr)나 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 2. 기원전 시대

이 시대의 차문화는 중국이 가장 앞섰고 또 그 기록들도 여럿 남아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기의 기록들을 신화나 전설로 취급한다. 일반적으로 차의 확실한 기록은 B.C 59년 작성된 <동약>에서부터라고 믿는다. 이때는 다(茶)라는 글자는 없었고 주로 도(荼)나 명(茗)으로 기록되었으며 차가 주로 건강에 관계되는 약재로 취급되었다.

① 그릇을 사용한 시기로 음식물을 섞거나 끓여 먹었을 개연성이 높다. 곧 마실 거리를 만들었을 것이다.

② 신라의 도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신라식 도기를 제작했다.

③ 고대신화 삼황(三皇) 중의 하나인 신농씨는 <식경(食經)>에서 "차를 오래 마시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茶茗久服 令人有力悅志)"라고 했다.

④ 은 왕조의 공신 이윤은 <탕설(湯說)>에서 "맛으로 말하면 차와 같은 것이 없다(志味不如茗)"라고 했다.

⑤ 주공이 썼다는 <이아>에 차의 다른 이름인 '가(檟)'라는 글자가 등장한다.

⑥ 제(齊)나라의 세 임금을 모신 안영(晏嬰)은 <안자춘추(晏子春秋)>를 쓴 명제상이다. "제나라 경공의 재상 영이 잡곡밥과 구운 고기며 달걀 그리고 차나물로 식사를 했다."<다경>

⑦ 상여(相如)는 <범장편(凡將篇)>에서 차의 다른 이름인 '천(荈)'이라는 글자를 썼다.

⑧ 왕포는 <동약>에 "다구를 갖추어 차를 끓이고…무양에 가서 차를 사오는 일을 해야 한다"고 썼다. 이는 노비가 해야 할 일에 차 끓이는 일과 차를 사오는 일이 들어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⑨ <사부(詞賦)>의 작가인 양웅(B.C 53~18)이 차를 마셨다.<다경>

### 茶기록 '동약(僮約)'이 최초

**기원전 시대** @ 표는 약(about)

| 한 국 | | 중 국 | | 일 본 | | 서양기타 | |
|---|---|---|---|---|---|---|---|
| 선사시대 | @6000 신석기 문화: 세석기(細石器) 제작 | 선사 | 4000 앙소문화 | 죠몬시대 | 660 야마토 정권(나라) | 고대사회 | 4500 이집트문화 |
| | 5000 암사동 유적 | | 2737 신농(神農)시대③ | | | | 4300 인더스 문화 |
| | 2333 단군, 아사달 도읍(동국통감) | | @2500 황하문명 | | | | @3500 메소포타미아 |
| 고조선시대 | 1122 기자 8조의 금(禁) | | 1760 은 왕조 건국(이윤의 등장)④ | | | | @2500 바빌로니아 문화 |
| | 1000 농경문화 시작(돌 도끼, 마제 석검, 토기 등)① | 주 | 1066 주의 건국 | | | | |
| | 800 고조선 수도 왕검성으로 옮김 | | 1060 주공의 <이아(爾雅)> ⑤ | | | | |
| | 450 부여(송화경 유역) 진국(남부지역) 건국 | | 770 춘추시대 시작(주의 동천) | | | | 776 제1회 올림픽 |
| | @400 철기문화시대(스키타이계) | 춘추전국 | 551 공자의 탄생 | | | | 557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 |
| | @300 원삼국의 시작 | | 547 안영⑥ | | | | |
| | 194 위만이 고조선을 빼앗다 | | @500 윤회가 노자에게 차를 대접하다 | | | | 334 알렉산더의 동진(東進) |
| | 108 위만조선 멸망 | | 403 전국시대 시작 | | | | |
| 삼국시대 | 57 신라 건국 | | @감로선사 몽산에서 차를 따다 | 야요이시대 | | | @ 로마의 지중해 지배 |
| | 37 고구려 건국 | | 221 진(秦)의 통일 | | | | |
| | 27 신라도공 일본으로 가서 도기 제작 ② | 진 | 206 한(漢)의 건국 | | | | 60 삼두정치 |
| | 18 백제 건국(위례성) | 한 | 179 사마상여⑦ | | | | |
| | | | 87 <사기(史記)> 완성 | | | | 4 예수 그리스도 탄생 |
| | | | 59 <동약(僮約)> ⑧ | | | | |
| | | | 53 양웅⑨ | | | | |





▮ 방생(放生) – 방생이란 죽음에 직면한 산 것을 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방생이란 살생을 금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살게 해주는 적극적 선행입니다. 범망경(梵網經)에 '항상 방생을 행하고, 남도 방생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세상 사람이 축생(畜生)을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는 마땅히 방편을 써서 구호하여 괴로움에서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생이 물고기를 강에 놓아주는 의미로 왜곡되어서는 안됩니다. 참다운 방생은 이타(利他)의 방생입니다.

삼가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 하옵니다.
풍성한 가을이 왔습니다. 포교 일선에서 중생제도에 혼신에 힘을 기울이시는 주지스님께 엎드려 삼배 올립니다. 금일 제가 정월방생법회에 황금잉어를 소개코자 펜을 들었습니다. 잉어는 공룡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며 어류중에서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또한 황금색은 왕을 상징 하기도 합니다. 오륜 행실도, 신이담, 등용문, 한국민화 등등 많은 곳에서 잉어를 길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잉어에 관한 몇가지만 소개 올립니다.

**오륜행실도**

용왕의 아들인 잉어를 구해주고 보은을 받았다는 신이담(神異譚)이 전해오고 있다. 일부 문중에서는 잉어를 먹지 않는다. 파평 윤씨는 꿈에서 잉어를 살려주고 축복과 출세의 길이 열렸다고 하였으며, 평산 신씨는 잉어의 뱃속에서 신립(申砬) 장군의 금(金)동곳을 발견하고 조상의 살을 먹은 고기라 하여 꺼린다고 한다. 잉어 꿈은 수태를 알리는 길몽이라 하였다. 잉어를 용종(龍種)으로 보고 입신출세를 상징한다. 잉어가 황하 상류의 룽먼(龍門)의 거센 물길을 오르면 용이 된다는 중국의 등룡문(登龍門) 고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식되고 있다.

**용 문**

중국 황하의 최상류에 있는 협곡을 말하며 그 지방에서는 하진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이 용문의 협곡은 물흐름이 거센 높은 폭포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 폭포 밑에 있는 강에는 거센 물기둥을 거슬러 올라 가고 싶어 하는 많은 잉어들이 모여서 살고 있으나 웬만한 잉어는 거센 폭포를 거슬러 올라 가기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연습을 거듭하고 용기와 슬기를 터득한 잉어는 기어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며 등폭한 잉어는 용으로 화신하여 등천한다는 전설에서 곳이 용문 또는 등용문이라 불리워졌으며 중국의 과거(관리 등용 시험)를 등용문 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잉어에 관한 중국 사상이 잉어와 함께 일본에 전래되어 일본에서는 남자 아이를 나면 5월 단오절에 '고이노리보리'라는 창호지나 천으로 만든 커다란 잉어 기구를 지붕위에 띄어 놓고 아들의 출세를 기원하는 풍습이 생기기도 했다. 동양의 중국에서는 공자가 잉어를 지혜와 슬기의 상징으로 중히 여겼고, 실제 중국에서는 옛부터 잉어를 용문 잉어라 하여 과거어나 출세어로 여겼다는 고사가 있다.

끝까지 봐주신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성불 하시어 인류에 스승이 되시길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주문방법
- 크기는 15cm이상
- 10일전까지 전화예약
- 수량 100마리 이상
- 콜벤비용은 별도부담

황금잉어 유통 충남 천안시 원성동 450-8번지
TEL: 041)622-4985 / H·P: 018-690-4985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




차(茶)를 좋아하신다구요?

차가 궁금하시다구요? 차에 가까이 계시다구요?
그럼 매달, 월간 『다도(茶道)』 한 권 쯤은 보셔야지요.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에는 차 한 잔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차의 역사, 세계의 차문화, 다도구의 미학, 차생활 속의 감동 에세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도를 접하는 순간, 일상은 한층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권당 가격 6,500원. 1년 정기구독 65,000원. 문의 : 02-722-7777

# 이 세상만사가 부처님 법 아님 하나도 없어

여러분께서 추석을 지내셨습니다. 추석을 지낸 뜻을 우리가 한 번쯤은 음미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든지 밥 먹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옷 입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물 안 먹고 사는 사람 없고, 불 쓰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땅 딛고 다니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를 마시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고로 우리가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으로 밥을 지어서 놓든 떡을 해서 놓든 무엇을 해서 놓든,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일체 만중생과 더불어 같이 지수화풍이나, 또는 무정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마음들을 한데 둥글려서 그 마음으로 깊이 감사함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얘기하는 거보다도 몰아서 얘기하는 것이 간단하고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입니다. 무한량이라면 무한량일 수 있고 작다면 바늘 구멍 하나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생각해서 진실하게 감사함을 느낄 줄을 모두 모릅니다. 더군다나 가깝게 있을수록 더 감사함을 모릅니다. 없으면 당장에 생명을 유지 못 하는데도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 쓰는 거와 불 쓰는 거와 땅을 딛고 다니는 거와 공기를 쐬는 것에 감사함을 느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또 일체 만물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고, 또 상대성 원리로써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창조력을 기를 수도 있고 창조를 해낼 수도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일체 만물만생 전부가 다, 흙이든지 무정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지수화풍을 막론하고 더불어 모두가 평화스럽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끔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질 못합니다.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여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들이 물질세계의 50%에만 전전긍긍하니 거기에까지 마음이 미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내가 산다느니 내가 했다느니 내가 말했다느니, 그리고 망한 거는 타의에 의해서 망했다느니,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못살게 됐다느니, 이러한 문제 등이 모두 여러분의 마음에 사무치기 때문에 밝게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천당 지옥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 진정코 무서운 도리라는 것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일체 만물만생이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로 낳는 거나 알로 낳는 거나 화해서 낳는 거나 질척한 데서 낳는 거나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정물도 식물도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전력이 똑같듯이 인간의 불성의 씨는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음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모습을 지어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박씨를 심었으면 박이 나죠. 박의 싹이 나고 박이 또 열리죠. 그러나 마음의 불씨라는 것은, 마음의 씨라는 것은 박 씨도 아니요 사람 씨도 아니요, 이것 씨도 아니요 저것 씨도 아닌 자체의 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먹는 대로 입력이 돼서 그것이 현실로 모습을 들고 나오고 바로 현실에 모든 생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보다도 벌레가 되느냐 짐승이 되느냐, 날아다니는 새가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무서운 것은 둘째 치고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낳았을 때 거기까지도 미치게 됩니다. 부모가 살인을 저질렀다거나 사상이 그르다 해서 만약에 부모한테 어떤 판정이 내려졌다면 그 자식들에게까지도 연관이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런 문제 등이 현실에 결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두렵게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은 사람의 모습으로써 이렇게 살지만, 한순간에 꿈같이 내 몸이 사대(四大)로 흩어져서 제각기 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고 불로 돌아가는데, 원점으로 다 돌아가는데 하나도 가져갈 게 없어요. 몸도 가져갈 수 없고 보물도 가져갈 수도 없고, 재산도 가져갈 수가 없고 또는 부부와 자식도 가져갈 수가 없고, 모든 권속도 가져갈 수가 없고, 권리고 친구고 누구고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이 바로 업식입니다. 그 업식으로 말미암아 모습을 사람으로 가지고 나오느냐, 짐승으로 가지고 나오느냐, 벌레로 가지고 나오느냐, 새로 가지고 나오느냐, 독사로 가지고 나오느냐, 개로 가지고 나오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은 사는 게 뭐, 살아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렇게 방치하는데, 여러분이 사람의 의식으로 생활을 하고 사시다가 만약에 짐승이나 땅 속의 벌레나 독사가 짝짓기 하는 데 자동적으로 들어간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넝마는 넝마전에 있고 금은 금방에 있습니다. 깡통은 깡통전에 있고 무쇠는 무쇠전에 있습니다. 사람들도 천차만별로 끼리끼리들 모두 모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자동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모습을 짓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의식으로 살다가 짐승 모습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아무리 울고 발버둥쳐도, 개로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면 멍멍 하고 짖을 수밖엔 없는 겁니다. 새로 나왔다면 새로 지저귈 수밖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눈물을 흘려도, 간절하게 말을 해도 세상 사람은 들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답답한 거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재나 쌀을 곱게 해놓고 뭐가 됐는가 발자국을 보는 유래가 있었죠. 구렁이가 됐으면 그 재를 가지런히 해놓은 거기에 구렁이 표시가 나고, 사람이 됐으면 사람 발자국 표시가 나고 이랬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지옥이 우리 눈앞에 그냥 널렸고 천당도 눈앞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일이 현실에 진실로써 그냥 막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지금 닥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겁니다. 금으로 반지를 만들었다면 반지가 아무리 찌그러졌어도 금방에 가서 다시 재생돼서 나오지만, 무쇠나 넝마라면 깡통이나 그런 철 종류라면 가서 재생이 돼도 철 종류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앞길이 세세생생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관련이 되고 자식에게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러는 것이 모두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그대로. 이걸 소홀히 생각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로다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어떠한 병이다 하면 거기에서 그냥 깜빡 마음이 죽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아이구, 이젠 죽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반면에 그것이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체내의 모든 의식들에게 하나로 그냥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잘못되는 것도 입력이 돼서 잘못되는 거, 잘되는 것도 입력이 돼서 잘되는 겁니다. 입력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컴퓨터는 물론 사람이 넣는 것만 입력이 되지만 이 자동적인 심성의 컴퓨터는 아주 여러분의 세세한 것까지도, 큰 거나 작은 거나 세세한 것까지도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지은 거는, 알고 입력이 된 것은 현실에 알게끔 나오고, 모르고 입력이 된 것은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과정에서 천차만별의 이 마음 도리가 이렇게 귀중하고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거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과거도 현실이요, 미래도 현실입니다. 영원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내가 일러드리는 것은, 그렇게 과거에 살 때 입력이 된 것이 현실에 나오는 거니까 현실에 나오는 것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자기가 땅을 걸어가다 엎드러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듯이,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을 자기한테다가 맡겨 놓고 잘된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잘되게 돌리는 것도 거기다.' 하고 맡겨 놓고 지켜보고 체험해라, 이것이 본래 참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고 입력을 시키면 과거에 입력됐던 것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면서 넣으면 넣는 대로 자동적으로 그릇이 비고 또 넣으면 또 비고 넣으면 넣는 대로 그릇이 비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이런 쉬운 방법을,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길을, 아주 손쉽게 여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한생각이 모자라서 내다볼 줄 모르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먹어보지 못해서 맛을 모르고, 듣질 못해서 생각이 나질 않아서 항상 독 속에서 내 마음이 빠져나오지 못한대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몸뚱이가 독이라면 독 속에서 나와야 내 몸뚱이가 독을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 몸이 항아리라면 항아리 속에서 나와야 자기의 몸뚱이 항아리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항아리 속에 들어 있으면서 어떻게 항아리를 굴린단 말입니까?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면 팔만대장경을 모두 다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걸 보면 그냥 단번에 그 뜻이 들어오는 겁니다. 전자에 못 알아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러던 것이 그냥 단번에 '아, 저거는 무슨 뜻이고 저거는 무슨 말이고….' 이런 것이 아주 단번에 옵니다. 이 세상만사가 부처님의 법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깐요. 우리들의 법을 빼놓고 부처님 법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마음이라는 게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광대하고 무변한 것을, 한생각이면 두루 할 수 있는 것을, 한생각에 바늘 구멍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뺏어갑니까? 누가 갖다줍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 세상을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도 그릇이 작지 않고 두드러지지도 않는다, 꺼내도 줄지도 않고. 아시겠죠?

그러한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닌데 방편으로써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한데 떨어지지 않는다면 법이 될 것이고, 내가 말을 하는데도 한데 떨어트리지 않고 말을 한다면 이것도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와 말을 하는 자가 둘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합쳐져서 밝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네가 했다 내가 했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사이도 없고 내가 말한 사이도 없고, 나도 없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도 없고, 그 원인이 무슨 까닭인가 하고 물었을 뿐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그만 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삼배를 올리는 질문자에게) 삼배를 일배로 하세요.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삼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질문자1: 안타까운 마음에 어리석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나이도 어린데 머리카락이 빠지고 별생각이 듭니까?

▲대중: 예.

▲스님: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셔야 될 겁니다. 여직껏 그래도 마음 공부하라고 이끌어왔고 여러분과 같이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의 마음이 전깃줄이라면 내 마음도 전깃줄이 돼서 와서 서로 닿으면은 불이 밝게 켜지는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이 전깃줄도 아니요, 저 전깃줄도 아니다, 단 전깃줄과 전깃줄이 맞닿듯이, 마음과 마음이 닿으면은 밝게 불이 들어와서 한 가족이 다 밝게 살 수가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문제든지, 어떤 가정도 그렇고 넓게 생각한다면 어떤 지역도 국가도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지역이 공동 묘지였습니다. 근데 시체들을 그냥 한데 몰아서 갖다가 뿌려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해를 당할 수밖에요. 동네에 도둑이 생기고 사람이 다치고 한 사람은 죽어버리고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다 여기에다 절을 짓게 됐는데 해골이 하나하나가 그냥 물밀듯이 밀어닥쳤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대로 어디 대답해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해야만이 없앨 수 있겠습니까?

▲신도1: 범소유상(凡所有相) 개시허망(皆是虛妄)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즉견여래(卽見如來).

▲스님: 말로만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하하. 마음속의 진실과 또 극치적으로 나라는 게 없고 상대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여래가 되죠. 여래, 이 자체는 어떠한 부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모두가 돌아가는 자체가 그대로 여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이 마음공부 하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둘이 아닌데….' 해도 체가 없는 거니까, 나도 마음이 체가 없는 것이요 상대도 체가 없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입력을 한다면 모두 두드러지지 않는다. 마음속에 이 세상을 다 넣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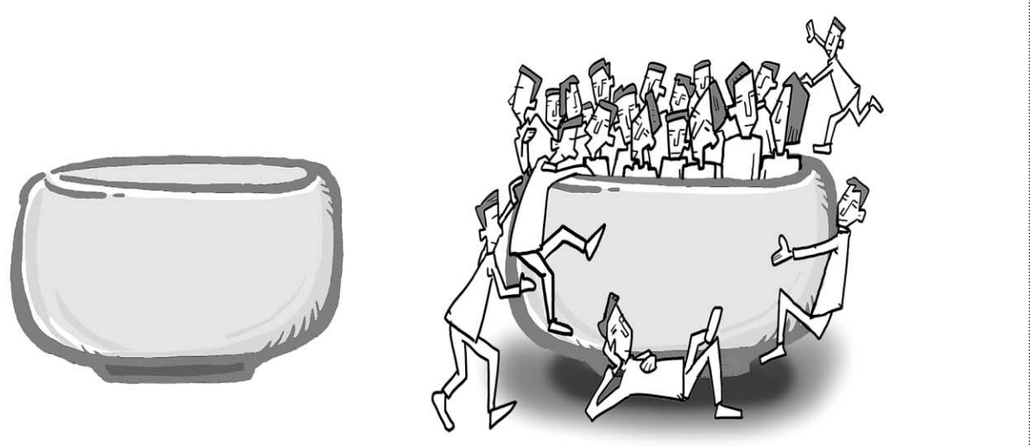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자기가 땅을 걸어가다 엎드러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듯이

##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을 자기한테다 맡겨 놔라!

☞30면으로 계속

#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면 할 수 있어

☞29면에서 계속

로 나지를 않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삶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성격까지도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여쭙니다.

▲스님: 인체의 모든 생명의 의식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내 인체의 모든 의식들이 한마음으로서 작용을 해주니까 틀림없이 할 수 있다. 머리가 빠졌던 것도 나게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갖는 다면 할 수 있어요.

▲질문자2: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후미에 대해서 잠깐 여쭈고 싶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많이 공동묘지에 묻혀져 있던 그런 영령(英靈)들이 스님과는 어떤 인연이었기에 그런 좋은 인연이 되었는지요.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

▲스님: 인연이 별다르게 따로 없는 겁니다. 바람결같이 스쳐가는 인연. 허허허. 우리 모두가 바람결같이 스쳐가는 인연들입니다. 이게 생시도 아니요 꿈도 아니요, 꿈도 아니요 생시도 아닙니다. 생시와 꿈과 둘이 아닙니다. 모두 바람결같이 돌아가고 찰나찰나 만남이 있는 것이 그대로 인연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다 절을 지으려니까 인연이 된 거죠.

그림 · 최주현

## 이 생각 저 생각 나기 때문에 광대하게 부처를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모두 인연이 돼서 하나로 되니까 금방 그 영령들은 백이든지 천이든지, 만이든지 모두가 인간으로 환토를 한 거죠. 환토를 해서 내놔도 내놓은 사이가 없이 또 내놔지죠.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여래의 집에 들었다가 여래가 된 거죠. 부처가 다 됐다 이 소리죠. 모두가 이렇게 긴요하고 이렇게 모두 무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질문자2: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같은 그런 논장을 보면은 아뢰야식(阿賴耶識)이다, 장식(藏識)이다, 여래장(如來藏)이다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위 팔식(八識)이라 그러죠. 장식을 말하는 것인데, 팔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할 때의 그 마음과 칠식이 다 팔식이다 하는 그 식(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자 여쭙니다.

▲스님: 그거를 여러 마디로 할 것 없이 아주 축소해서 말을 하죠. 칠식(七識)이다 하는 것은 우리 네 육근(六根)이 공(空)해서 돌아가는 거를 하나로 묶어서 한마음이 된다면 그것이 칠식입니다.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서 내 몸을 떠나서 더불어 같이 이 세상 사무 사유를 한데 합쳐서 한마음이 된다면 팔식(八識)입니다. 작게 따진다면 칠식이요, 넓게 전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한데 합친다면 팔식에 속합니다. 칠식이래도 하나요 팔식이래도 하나입니다. 팔식 하면 벌써 칠식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팔식 하면 팔이라는 건 없어지고 식만 남아서 그건 구경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래장이 되는 거죠. 여래라는 것은 일체 만물만생이 다 송두리째 들이 아닌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없고 너도 없어지는 겁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기 때문에 모두 부처 자리 아닌 자체가 없고, 부처님의 작용 아닌 게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래장입니다.

▲질문자2: 다음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작용을 관찰을 해보면은 일순간도 쉬지 않고 찰나에 일어났다가 찰나에 없어졌다 또 찰나에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작용이 끊임없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중에는 한생각 일어났다가 한생각 없어지는 그 생멸심이 곧 멸하면은, 그것이 고요하고 고요해서 마음이 고요한 경계에 들어가서 그것이 참 낙(樂)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요한 그러한 마음의 자리와 끊임없이 일순간도 쉬지 않고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생멸심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요.

▲스님: 만날 말씀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여기 걸어올 때에 한 발 떼었다 한 발 놓고 한 발 떼었다 한 발 놓고, 이게 생멸입니다. 이게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알려고 말로 표현을 하자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마음이 이렇다는 것과 한 발 떼어놓고 한 발 놓고, 한 발 떼어놓고 한 발 놓고 하는 것과 뭐이 다릅니까? 이게 어떻게 둘이겠습니까? 한 발 떼어놓고 한 발 놓고, 한 발 떼어놓고 한 발 놓고 하는 작용이 없으면 우리가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안 그런가요? 일어났다 가라앉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성불이라는 말도 없을 거고 중생이라는 말도 없을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방편으로 얘기해볼까요? 아버지 노릇 하다가 남편 노릇 하다가 또는 형님 노릇 하다가 자식 노릇 하다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방 일어났는데 금방 딴 걸로 돌아갔어요. 금방 딴 걸로 돌아가고 딴 걸로 돌아가고, 이렇게 일어났다 놓았다가 일어났다 놓았다 해도 그냥 여여하게 그냥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둘이 아닌 것입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그냥 '여보!' 하면 '왜 그래?' 하고 일어나는 마음. 그 일어나는 마음은 찰나에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악으로나 선으로나, 일어나는 마음을 잘 응용을 하면 선이 되고 잘 응용하지 못하면은 악이 됩니다. 싸움을 할래도 부를 테고, 좋은 말을 할래도 '여보!' 하고 부를 겁니다. 그런 걸 대치를 해서 잘 응용한다면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 속지 말고 한군데서 나온 거 한군데에 제대로 되놔야

▲질문자2: 예. 그렇다면, 한생각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그 마음을 이름 붙여서 생멸심이라고 한다면, 그 생멸심과 적멸심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번뇌심과 보리심이 둘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같이 이해가 되는 걸로 되겠습니까?

▲스님: 본래심이 번뇌심과 다르다고 관습에 의해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이 나지 않으면 광대하게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고정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마음 저 마음, 이 생각 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광대하게 부처를 이룰 수도 있고 광대하게 창조를 해낼 수도 있고, 창조력을 기를 수도 있고 계발을 할 수도 있고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고요. 그러니까 번뇌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수행하는데 발전하게 하기 위한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재료!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재료!

항상 내가 그런 말을 하죠.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겁니다. 동짓날 팥죽을 쑤는데 팥죽 방울이 수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걱으로다가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하고 쳤는데 무슨 까닭인가 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만 그렇게 하지 그 까닭을 모른단 말입니다. 내 몸뚱이가 팥죽 솥이라면 팥죽 방울이 일어나는 대로 그걸 번뇌라고 하는데, 번뇌라고 하기 이전에 모든 게 그 속에서, 한 속에서 화해서 나오는 업식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재료로 알아야죠.

속지 말고 한군데서 나온 거 한군데에 제대로 되놔라 하는 소립니다. 이것도 문수, 이것도 문수하고 친 게 자기 마음의 주장자로서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마다 거기다가 놨습니다. 놓으라고 그런 방편을 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자리에는 일어나는 번뇌도 망상도, 또는 도라는 이름도 없는 겁니다. 그대로 여여하게 걸어오듯이,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걸어오듯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레공법이죠. 우리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합해서 불이 들어와서 가정이 밝게 살고 사회가 밝게 살 수 있는 것이니 바로 한마음에 밝게 불이 켜졌을 뿐입니다.

▲질문자2: 재료를 재료로서만 알고 재료에 결코 끄달리지 않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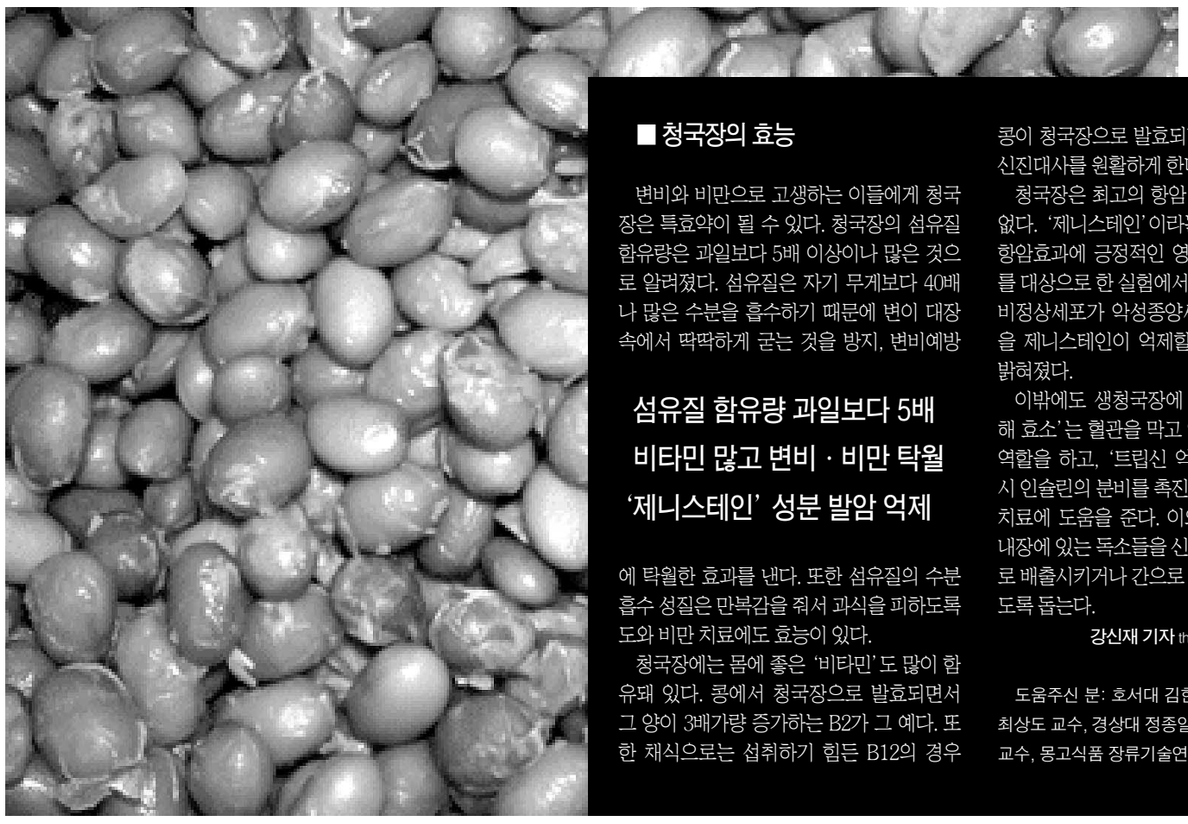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60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 하(茶)당 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관 절 염
자 생 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삐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천하명당 - 배산임수 - 사계절 물이 철철 흐르는 곳
사찰부지 / 연수원 / 복지관부지
위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현산 자락에 위치 안성 C·C근처 / 칠장사 진입도로 입구
도로 2차선 접선지 / 접근성이 매우 훌륭함
면적 면적 3,000평~10,000평 (필요한 면적 만큼)
특기
❖ 天下明堂 地氣를 찾는분 환영
❖ 부지내 지하수가 매우 풍부함
❖ 청룡 · 백호 외호가 뛰어나며 특히, 백호가 역수(逆水)한 곳
❖ 중개인 사절 (실수요자만 직접 면담)
연락처 : (주)02-2269-4023 / (019)9713-9984

법문,불경을 녹음해 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다른 이들에게 설하는 공덕이 엄청나게 크다고 10여번이나 거듭 강조하시면서 그리하라고" 간곡히 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보귀의하옵고
세상에 널리알리하는 부처님의 은덕을 강남포교원(원장스님,성열) 협력업체 (주)서광아이엔티에서는 귀 사찰의 은스님및 주지스님의 불경(독경, 법문)을 녹음 및 테이프로 제작해드립니다.
고가의 녹음비용이 드는 스튜디오녹음을 출장방문하여 녹음을 하기때문에 각 사찰의 주지스님께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직접출타하시는 불편을 줄이시게 되고 또한 고성능의 녹음기로 녹음을 받아 디지털 음성 편집작업을 하기때문에 편리하게 녹음을 마치실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된 작업은 테이프및 CD로 제작해드리게 되며 신도님들께 배포함으로써 각 사찰에 생활속에서의 불교를 쉽게 접하게 해드릴수 있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귀사찰에 부처님의 은덕이 널리 퍼지길 기원하옵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친절한 상담으로 궁금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주요업무: 사찰홈페이지제작,성금모금 ARS, 각종녹음
(주)서광아이엔티
본사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3가 43-1 원광빌딩
Tel : 02-711-2922 Fax : 02-711-2924
24시간 상담전화 : 0505-336-7555
은행계좌번호 : 국민은행 015-25-0055-534
(주)서광아이엔티



■ 청국장의 효능

## 섬유질 함유량 과일보다 5배
## 비타민 많고 변비 · 비만 탁월
## '제니스테인' 성분 발암 억제

변비와 비만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청국장은 특효약이 될 수 있다. 청국장의 섬유질 함유량은 과일보다 5배 이상이나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섬유질은 자기 무게보다 40배나 많은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변이 대장 속에서 딱딱하게 굳는 것을 방지, 변비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낸다. 또한 섬유질의 수분 흡수 성질은 만복감을 줘서 과식을 피하도록 도와 비만 치료에도 효능이 있다.

청국장에는 몸에 좋은 '비타민'도 많이 함유돼 있다. 콩에서 청국장으로 발효되면서 그 양이 3배가량 증가하는 B2가 그 예다. 또한 채식으로는 섭취하기 힘든 B12의 경우 콩이 청국장으로 발효되면서 새롭게 형성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청국장은 최고의 항암 식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제니스테인'이라는 물질은 청국장의 항암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흰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된 비정상세포가 악성종양세포로 진행되는 것을 제니스테인이 억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이밖에도 생청국장에 함유된 '단백질 분해 효소'는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이는 역할을 하고, '트립신 억제제'라는 물질 역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켜 당뇨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레시틴'은 내장에 있는 독소들을 신장으로 보내 소변으로 배출시키거나 간으로 보내 독성을 분해하도록 돕는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도움주신 분: 호서대 김한복 교수, 진주산업대 최상도 교수, 경상대 정종일 교수, 부산대 박건영 교수, 몽고식품 장류기술연구소 김남대 박사

*10월 9일 '청국장의 날'*

10월 9일. '청국장의 날(1009 · 청 청국'로 선포된 이날 경남 진주산업대에서는 식품과학연구소와 한국전통발효식품연구소가 공동으로 '신비한 청국장의 건강선언'이라는 심포지엄을 열고 청국장의 효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웰빙시대 확실한 건강식으로 자리매김한 청국장의 효능과 조리법을 살펴본다.

# 청국장에 밥 한그릇 '뚝딱' 건강에 이만한 것이 있을까!



■ 청국장 만들기

① **콩 고르기**– 중간 정도의 콩을 준비한다. 수입콩보다는 국산 콩이 발효가 잘 된다.

② **콩 씻기 · 불리기**– 선별한 콩은 깨끗이 씻은 후 물에 불린다. 콩 부피 3배 이상의 물을 준비해서 12시간 정도 불리면 된다.

③ **콩 익히기**– 불린 콩을 솥에 부어 끓인 후 중불 정도의 불에서 연한 갈색이 날 때까지 1시간 정도 푹 삶는다. 압력솥을 이용해 찌는 방법도 있다. 솥 내부에 시루 역할을 하는 기구를 올려놓은 후, 2cm 정도의 물을 부은 뒤 콩을 올려준다. 솥에 김이 오르면 불을 약하게 한 뒤, 20분 정도 삶으면 된다.

④ **균 접종하기**– 청국장의 종균으로는 깨끗한 볏짚을 사용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청국장을 이용한다. 볏짚을 사용할 경우 삶은 콩이 식기 전에 볏짚을 깔아 그 위에 뜨거운 콩을 담거나, 콩 사이사이에 볏짚을 잘라 꽂아 60도까지 식힌다. 볏짚을 구하기가 힘들다면 삶은 콩을 그대로 발효시켜도 된다. 기존 청국장을 이용할 경우 콩이 식기 전에 콩 500g당 한 수저 정도로 골고루 뿌려 균을 접종하면 된다.

⑤ **발효시키기**– 삶은 콩에 볏짚을 잘라 꽂은 뒤에는 약 40도의 온도와 80%정도의 습도를 유지시켜 줘야 한다. 전기장판에 올려 놓은 뒤 이불을 덮는 방법이 좋다. 2~3일 후 청국장 발효 냄새가 나고 콩 표면의 갈색이 진해지며 하얀 실이 생기면 발효가 잘 된 것이다.

⑥ **가공하기**– 생으로 먹지 않고 찌개로 끓여 먹을 경우라면 소금이나 양념을 첨가하는 가공 과정이 필요하다. 소금, 마늘, 고춧가루 등으로 양념하는데 소금의 첨가량은 2%정도면 된다.

# 내마음 열면 타인 마음도 열려

우리 가족 이렇게 신행해요 <18>

## 각운 거사 가족

"장모님, 세상 살기가 힘이 듭니다. 장모님께서는 늘 마음이 편안하신 것 같던데 저도 불교를 믿으면 그렇게 될까요?" 개신교가 모태신앙이었던 맏사위가 이렇게 묻자 장모님은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자네, 나를 믿는가?" 그리고 찾아간 곳이 안국 선원(선원장 수불 스님). 출가만 안했다 뿐이지 절에서 용맹정진하며 수불 스님께 화두 점검을 받던 사위는 세상을 흑백으로 분별했던 예전과 달리 온 세상이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라는 걸 알게 됐다.

그 후 '정각(正覺)'이라는 법명을 받아 불자가 됐고 내친 김에 자신의 회사 이름까지 '아름다운 안국'으로 바꿨다.

그렇게 오 씨를 자연스럽게 불교로 이끈 장인 이은영(61 · 각운) 거사와 장모 이재남(57 · 무착지) 보살 가족은 지금 안국선원에서 2대에 걸친 참선가족으로 소문 나 있다. 다섯 딸 중 명신(32 · 선운행), 명림(29 · 선향도), 명은(26 · 원광안), 명진(22 · 지명향)과 두 사위 오학준(36 · 정각), 한상호(30 · 길봉) 씨까지 가족 모두가 수계를 받은 것도 특이한데, 더 놀라운 건 각운 거사 내외가 참선을 시작한지 불과 4년여 만에 온 가족이 발심했다는 사실이다.

처음 참선을 시작한 건 무착지 보살이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절하고 염불도 해봤지만 마음이 허전하기만 했던' 무착지 보살은 안국선원에 다닌 이후로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참선 용맹정진을 했다. 어느 날, 무착지 보살이 남편 각운 거사에게 넙죽 삼배를 올렸다. 자기주장만 고집했던 허물을 남편이 그동안 어떻게 받아줬는지 깨닫게 되자 '남편이 바로 부처'라는 생각이 진심으로 우러나왔던 것이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깜짝 놀란 남편은 "당신이 배운다면 나도 해보겠소"라며 그때부터 좌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두 부부가 합심해서 시작된 참선 열풍은 이제 주변까지 바꾸고 있다. 얼마 전에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시댁 어른까지 절에 다녀갔었다. 시댁 어른은 "어떤 가르침이길래 내 아들이 이렇게 변했느냐"며 왔다가 수불 스님의 법문을 듣곤 "과연 훌륭하신 분이다. 모든 것이 이치에 딱 맞는다"고 탄복했다.



딸 부잣집 각운 거사네 가족. 일요일이면 모두 법복을 입고 안국선원에 모인다. 앞줄 왼쪽부터 각운 거사, 무착지 보살, 정각 거사, 뒷줄 왼쪽부터 명진 · 명은 · 명신 양.

## 2대, 참선 통해 가족애 키우며 포교 앞장

이 거사의 가족들은 이렇게 주변인연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참선공부의 힘이라고 말한다.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이다.

기자가 참선공부에 대해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고 물어보자 가족들은 웃음을 터트렸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어느 곳에 걸리는지 살펴보고 놓아가는 것입니다." 무착지 보살이 좀 더 자세히 설명했다.

"정진하다 보면 말 그대로 매일 매순간이 모두 참선이 됩니다." 우문현답이었다.

이은비 기자


김재덕 역학교육원
역학, 음양오행, 인성컨설팅 강사
주간지 Goodday 365 "미용역학 삼정의 인연법 사주에어" 고정연재중
월간뷰티패션 "역학풀이" 연재중
실력있는 역학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모집과정 : 수시모집
강 의 : 주 1회(화요일)
사주통변이 부족하신 분, 책을 보고 독학하신 분
사주통변이 자신 없는 분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관상학 (특강 월2회 화요일)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제40회
3000배 철야정진
◆ 날 짜 : 10월 30일(토) 저녁 9시~ 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수련복(하의) 2매, 간단한 간식, 물병
▶10월 30일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머리는 순간 맑아지고, 몸속의 노폐물은 폭포처럼 빠져나가며, 위장과 간은 청소되어 피로회복과 컨디션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우주의 맑은 氣가 꽉 찬 기능성 차를 마시며 3000배 정진을 하면 그 효과를 즉석에서 체험 하게 됩니다. 특히, 운전, 등산, 수험생, 싸우나에서 효과를 본 많은 체험사례가 있습니다.
◆ 장 소 : 분당 이매역 태안사 대법당
◆ 찾아오시는 길
• 전철 :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분당선 :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 버스 : 1116(잠실역), 9413(구 1110번: 삼성역) 분당으로 직통연결 농업기술센타 앞에서 하차 후 SK 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소리산참선캠프 법왕정사가 속해 있던 소리산이 매매되는 안타까운 일로 중단 되었던 3000배 정진을, 수행환경이 아주 좋은 분당의 태안사 대법당 에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동참하시어 업장소멸과 소원성취의 기쁨을 누리시고, 호흡에 맞춰 절하는 비법으로 몸속의 노폐물과 나쁜 기운을 가장 빠른 시간내에 배출하는 효과를 즉석에서 체험하는 21세기 인류 최고의 건강법인 3000배의 테크닉을 체득하시길 바랍니다.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전화문의: 02)456-4994 456-0035
양평 소리산 법왕정사 ☎ 전화문의: 031)771-7745 771-6736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프레야타운
www.freya.co.kr

그녀의 가을 이야기-
로맨틱 프레야

나를 바꿔주는 세상, 프레야 타운

옷만 사는 쇼핑몰이 아닙니다. 고르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은 물론
패션 그 자체를 즐기는 곳 프레야 타운! 패션을 입기전에, 즐거움을 입는다! 프레야타운

찾아오시는 길

▪ 버스노선안내

일반버스 [ 밀리오레 앞 하차 ]

지선 0013, 0212, 1011
1013, 2232, 2014

간선 105, 106, 144, 152
201, 261, 420, 303

순환 01, 02

광역 9403, 9410

공항버스

'601' 공항리무진 동대문종합시장앞 하차
(인천 국제공항 ~ 동대문 종합시장)

기 점
- 첫차시간 05 : 00 막차시간 21 : 00

인천공항
- 첫차시간 05 : 00 막차시간 23 : 00

▪ 지하철노선안내

1·4호선 동대문 역 / 2·4·5호선 동대문 운동장 역




층별소개

| | |
|---|---|
| 17~22F | 오피스텔 & 아파트 |
| 14~16F | 사무실 |
| 13F | 프레야 패션 아카데미, 서울 패션 디자인센터 |
| 12F | 남/여 맥반석사우나, 동대문 스포츠 센터, 골프연습장 |
| 11F | 전문식당가, 병원(내과/치과/한의원/비만클리닉), 호프/사진/커피숍 |
| 10F | 프레야 시네마 MMC |
| 8F | 컨벤션 웨딩홀, 부페 |
| 7F | 혼수백화점 |
| 6F | 수입멀티 전문매장 |
| 5F | 구제 전문매장 |
| 4F | 패션잡화(액세서리, 가방, 핸시 외), 남/여 구두 |
| 3F | 남성의류(정장/영캐쥬얼/힙합) |
| 2F | 부인복, 아동복, 아동화 |
| 1F | 숙녀복, 수입명품잡화, 화장품/안경/귀금속<br>아이스크림, 놀이시설 (타가디스크, 바이킹) |
| B1 | 비즈공여(구슬/액세서리), 이동통신(휴대폰, A/S), 소형가전, 타워노래방<br>원단/의류부자재, 홈패션, 구화산(중화오리전문점), 롯데리아, 커피숍 |
| B2 | 여성전용주차장, 스낵코너, 슈퍼마켓,<br>미용실, 성인오락실, 당구장 |
| B3~B6 | 주차장 |

프레야타운 8층 고품격 웨딩홀-
프레야 컨벤션 웨딩홀 뷔페 탄생!

결혼 돌 회갑 각종모임 / 2,000여석의 최대규모의 연회홀
3,000여대의 초대형 주차장 / 100여가지의 호텔식 뷔페

예 약 문 의 02)2274-0110